

30년 동안 쌓아온
건축재료산업의 이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DECEMBER 1988. NO. 237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온단열재
1년 개발
2년 개발

초고온 내
세라믹을 198



건축용 내장재
금강석고보드 1985년
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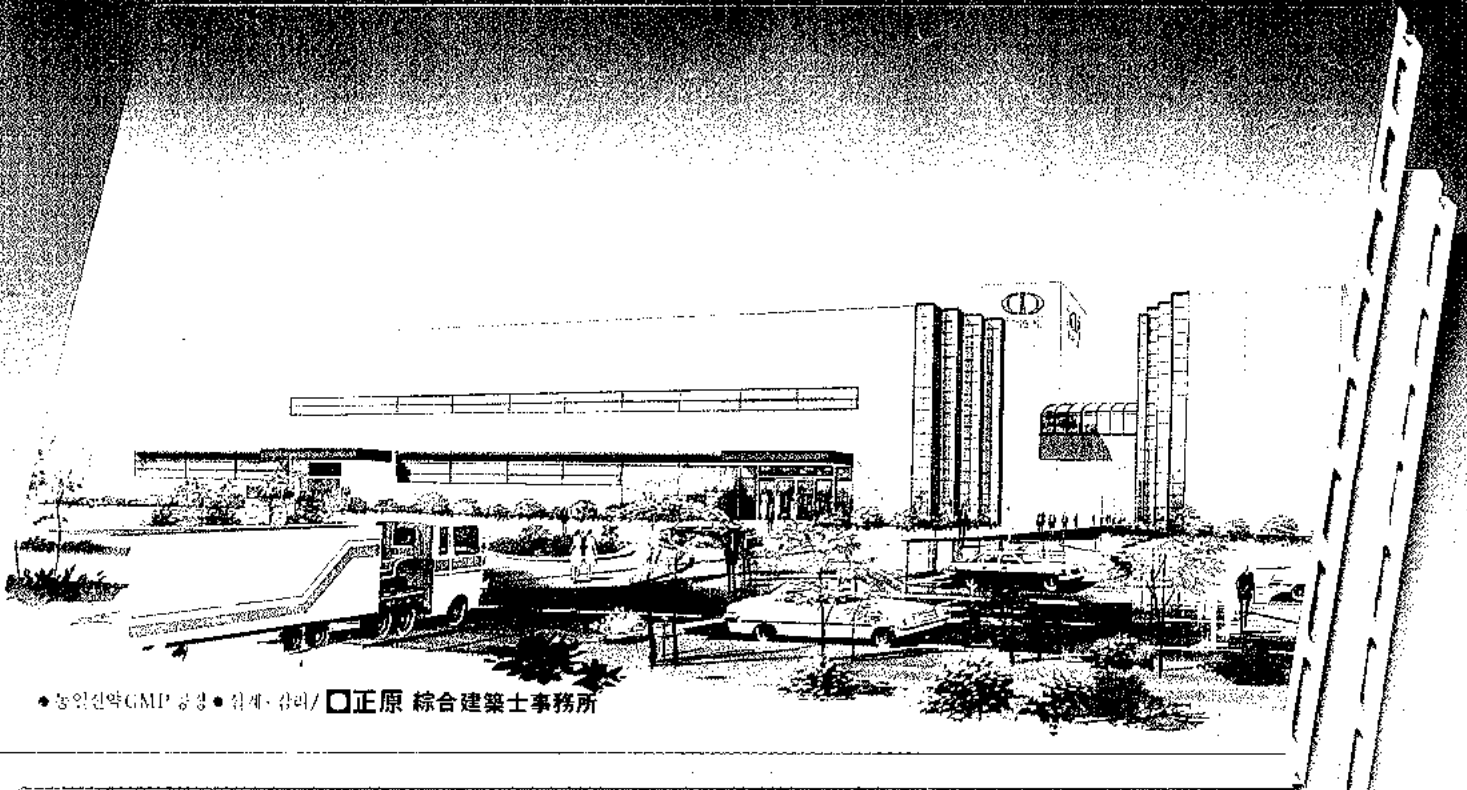
흙을 천정판
1985년 개발

1.

9字: 1988. 12. 15. 1985. 12. 31 第3種郵便物(4)級 認可 郵便番號: 13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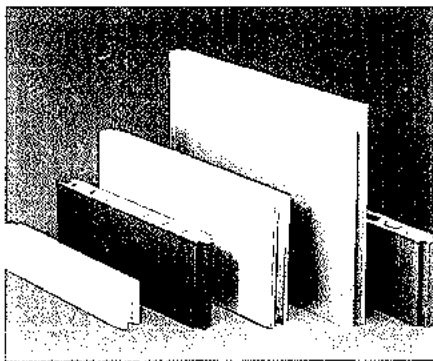


1988. 12



◆농업신약 GMP 공장 ◆신계·삼리/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바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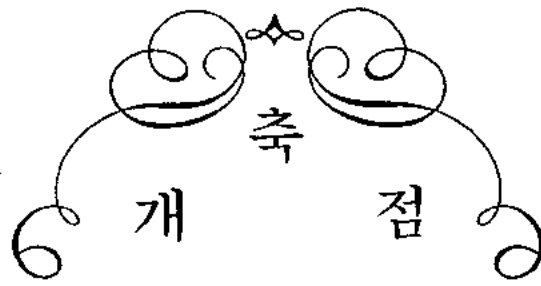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8(구내281) 베이스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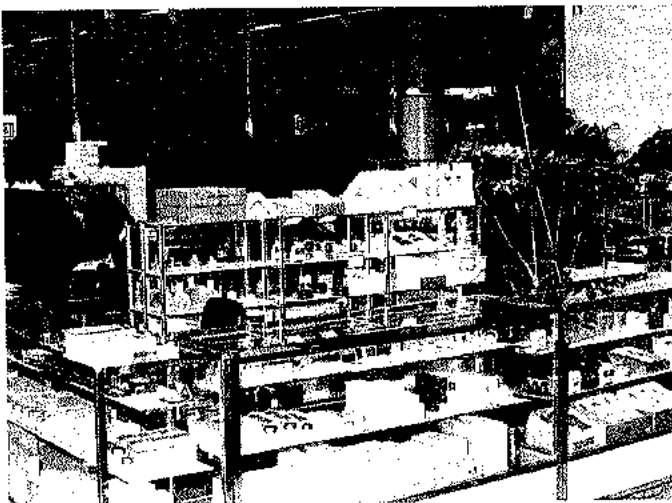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구판장 개장

당 구판장은 쾌적한 장소에서 조합원 및 사무실직원과 가족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
연금 매장가격)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장을 개설하였오니 많은 이용으로
조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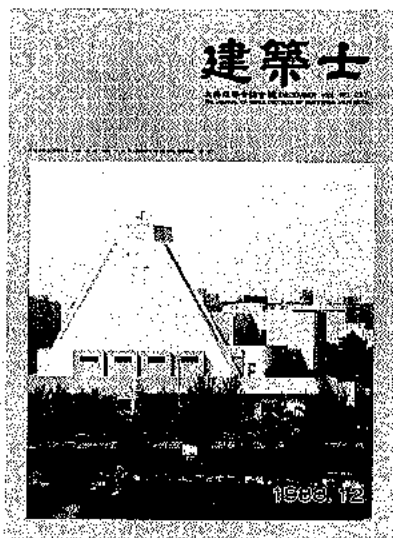
1. 장 소: 건축사회관 1층 전판
2. 영업시간: 09:30~18:00시
(매주 일요일 휴점)
3. 상품안내
 - 문 구 류(설계용품 및 사무용품일체)
 - 전자제품(삼성, 대우, 롯데파이오니아)
 - 생활용품코너
 - 화장품 · 탄제리 · 주방기구
 - 스포츠 · 안경 (명동안경)
 - 삼성카메라 · 시계 · 코닥필름
 - 식품코너
 - 오투기식품 · 삼양식품 · 햄종류
 - 캔종류 · 인삼 · 꿀 · 음료수외 다수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매장전화번호: 585-5247 우신교역: 588-0772



표지: 신천동 천주교회
설계: 김영섭 (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發行人: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朴榮翼

副委員長: 尹錫祐

委員: 金琪碩, 卞鎔, 金晶東, 趙聖烈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圭 (洗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o-Tae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Park, Young-Ik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建築士

차례

1988년 12월호 (통권 237호)

6 第17代 會長 就任辭

8 建設部長官 就任辭

會員作品

- 9 B.N.F 주택.....崔勝元
- 12 금문빌딩.....崔英集
- 14 신천동 천주교회.....金瑛燮
- 16 한국외환은행 강서지점.....李永熙
- 18 '88골프클럽하우스.....宋基德
- 20 기아체육관.....金相伯+金善洋
- 22 서울대 의과대학 부설 간연구소.....金壽根

特輯 /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 24 학생쟁보리대회 개최사
- 26 학생쟁보리대회 치사
- 28 제2회 건축학생 쟁보리를 마치고.....趙載云
- 33 각 회원국의 반응

38 신임 임원 취임소감

47 한해를 보내며.....金仁喆+金正湜+朴舒弘+朴研心

研究

- 52 명주군 김남명氏 가옥 研究.....張順鏞
- 58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3).....金基哲
- 64 三國時代의 建築文化.....張慶浩
- 70 住居用建物の 에너지 計算尺 開發에 관한 研究.....朴相東外

資料

- 86 '88년도 건축사지 총목차
- 88 건축법시행 규칙중 개정령
- 92 10월분 도서신고 현황
- 94 協會消息

第17代 會長 就任辭

「歴史의 運命은
힘있는 者의 便」

존경하는 역대회장님,
내외귀빈과 전국의 시도지부 임원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제23회 定期總會에서
저를 제17대 회장에 선출되도록 聲援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그동안 역대회장과 본부와 시도지부 임원을 비롯
회원 여러분께서 희생적으로 봉사하여 주신 결과
23년의 연륜과 2천9백여 회원을 헤아리는
大協會로 발전하였으며
건축사의 社會的 地位도 높아지고
權益도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時點에서 볼 때
급속도로 앞서가는 사회발전 추세에 만족할 만큼
조화되지 못하는 여러 관련분야의 사정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많은 懸案을 안게 된것도
또한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現實을 直視하면서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期待에
副應할 수 있도록 問題를 풀어나가고
業務與件과 環境을 적극 改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對内外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특히
다음 몇가지에 대하여서는 중점적으로 힘을 쏟아
最短期日에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會長 離就任式

大韓建築士協會

功在
事功
會



먼저 對內的으로는 힘있는 협회, 강한 협회가 되도록 협회의 體質을 刷新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도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여 스스로의 앞길을 열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實力團體가 되려면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이 同心團結 하셔야 할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회원의 同心團結을 최대로 도모할 수 있는 行事와 事業들을 다각도로 개발, 활발하게 전개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기울여 주시는 노력이 한층 값있는 것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계 내에 正義가 숭양받고 도착하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우리의 名譽와 品位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制度的인 각종 裝置를 최대로 활용할 것임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힘있고 정의감 넘치는 협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저는 또 이 협회가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平生職場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협회와 회원업무를 나의 일처럼 창의력 다하여 소신있게 처리해 나가는 당당한 직원상을 세울 수 있도록 보다 公平無私한 信賞必罰制의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은 이제 心機一轉하여 새롭게 奮發해 줄 것을 당부 합니다.

다음 對外的으로는,

첫째, 公務員 特別銓衡 制度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특혜제도는 건축사 시험제도와 형평상 균형을 잃고 있으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일방적으로 건축사에게 무거운 행정처분이 가하도록 되어있는 建築士 行政處分 制度를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단독건축사사무소 등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事務所의 區分 登錄制를 폐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째, 종전규정에 의한 2급 건축사로서 10년 이상의 사무소 개설 경력을 가진 회원은 전원 구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建築士法과 建築法 중 규제나 처분 위주로 되어있는 여러 조항을 오늘의 民主的 視角에서 예의 검토하여 빠른 시일에 改善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의 建築行政이 建築文化 助長行政 차원으로 전환되어 가도록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역대회장님,

내외귀빈과 전국의 시도지부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여러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에는 微力하나 많은 일을 하고 큰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협회와 회원이 다함께 발전하고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목표입니다. 부디 합심 협력하여 큰 힘을 모아 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歷史의 運命은 힘있는 자의 便」이라는 말을 示唆의으로 인용하면서 취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고 가정에도 행운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88. 12. 13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 基 德

時代適應에 模範을 보이자



우리나라는 歷史發展의 大變革期에 있다. 지난 30여년간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방면에 걸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다른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그 類例를 볼 수 없다.

대변화의 흐름속에서 우리의 衣食住중 衣食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이제 우리의 욕구는 住宅問題에 집중되어 있다. 역사의 흐름의 또 하나의 軸은 均衡에 대한 욕구이다. 그것은 국토의 均衡開發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의 質의 문제, 삶의 質의 문제는 대변혁기의 새로운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經濟의 이러한 3大變革의 흐름을 주시하고 이들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그 해결은 建設部가 맡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어느 부분보다 더 앞을 내다보고 政策을 推進해야 할 곳이 건설부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여러분들의 강한 욕구와 분발을 기대한다. 가능한한 責任과 裁量을 직원들에게 주어 長次官은 정책개발에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항상 小利를 버리고 大道로 가고, 마음을 열어 개방적인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행정을 해야한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合理과 公平無私에 두어야 한다.

강한 建設部, 공평무사하고 대도를 걸어갈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항상 국민과 對話하고 국민의 意思를 收斂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발전은 公職者의 召命意職이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일부 사회적혼란은 언제든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이러한 때에 만약 公職者의 召命意識이 흔들린다면 우리사회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變化의 시대는 또한 適應의 시대이다.

항상 우리의 思考를 갖고 닦아 바꾸어 나가 시대에 適應해야 한다. 適應에 모범을 보일 곳이 公務員이다. 責任과 裁量을 쥐서 마음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建設部長官 朴 昇

B.N.F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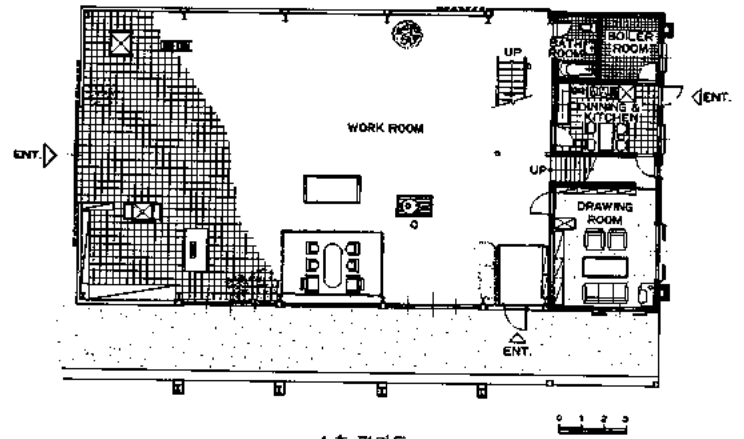
Burns Fiberarts

崔勝元 / 건축사사무소 홍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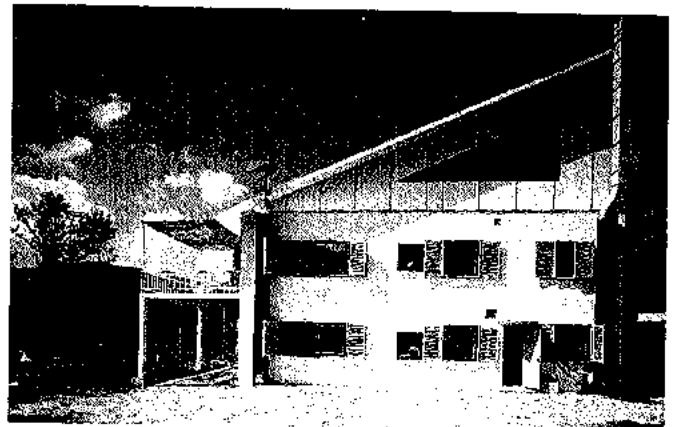
Designed by Choi, Seu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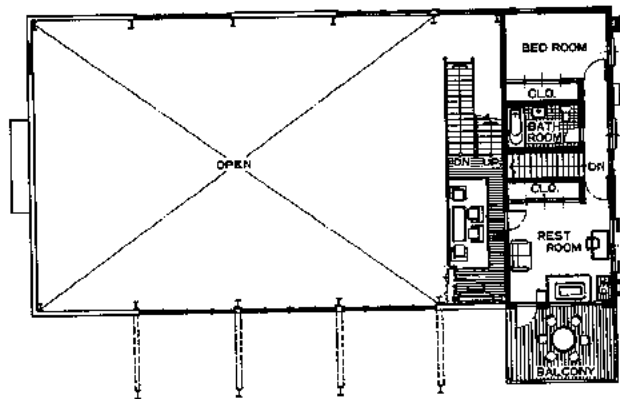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주용도 / 스튜디오
 대지면적 / 3,386m²
 건축면적 / 344m²
 연면적 / 389m²
 층수 / 지상 2층
 구조 / 철골조 및 조적조
 작업장 : 1형강
 주 벽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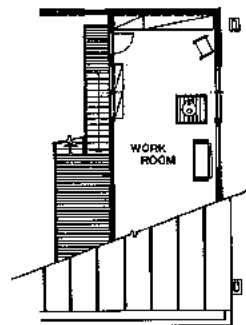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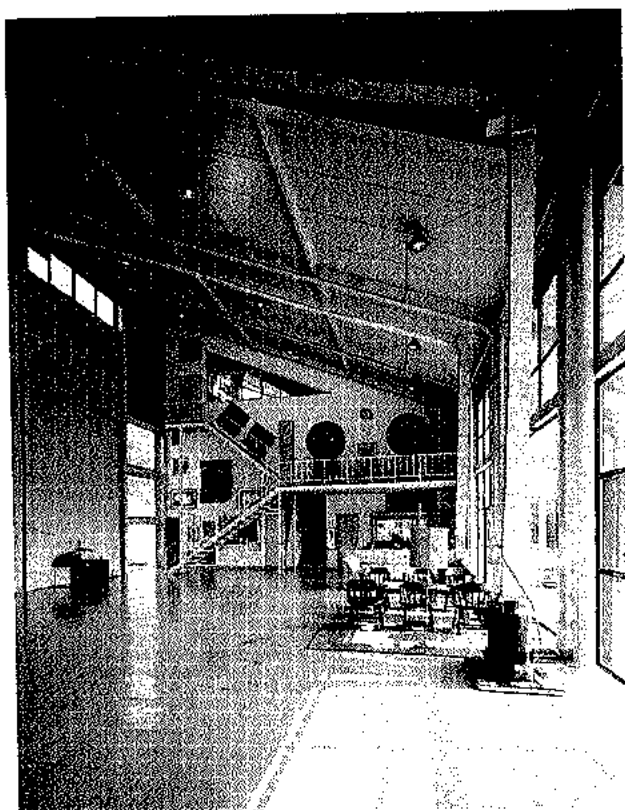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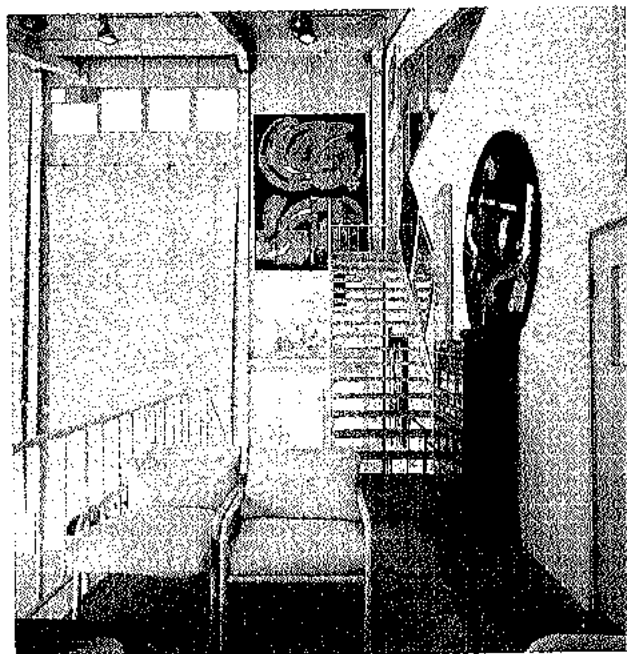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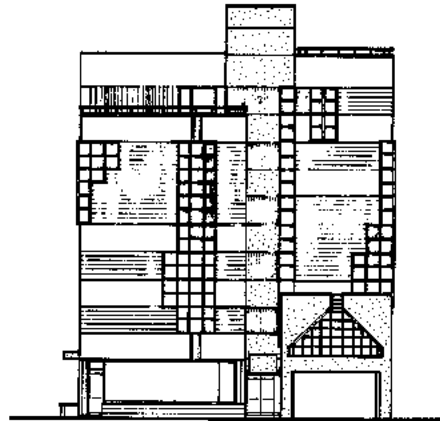
지붕밀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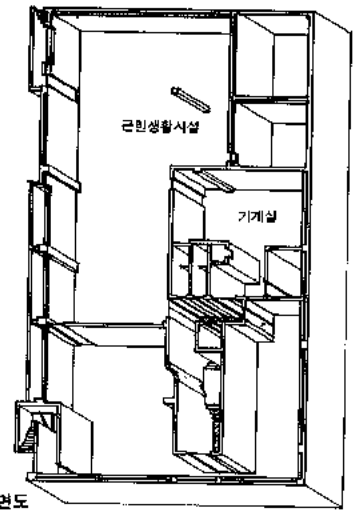
금문 빌딩

Kummun Building

崔英集 / 건축사사무소 탐
Designed by Choi, Young-Jeep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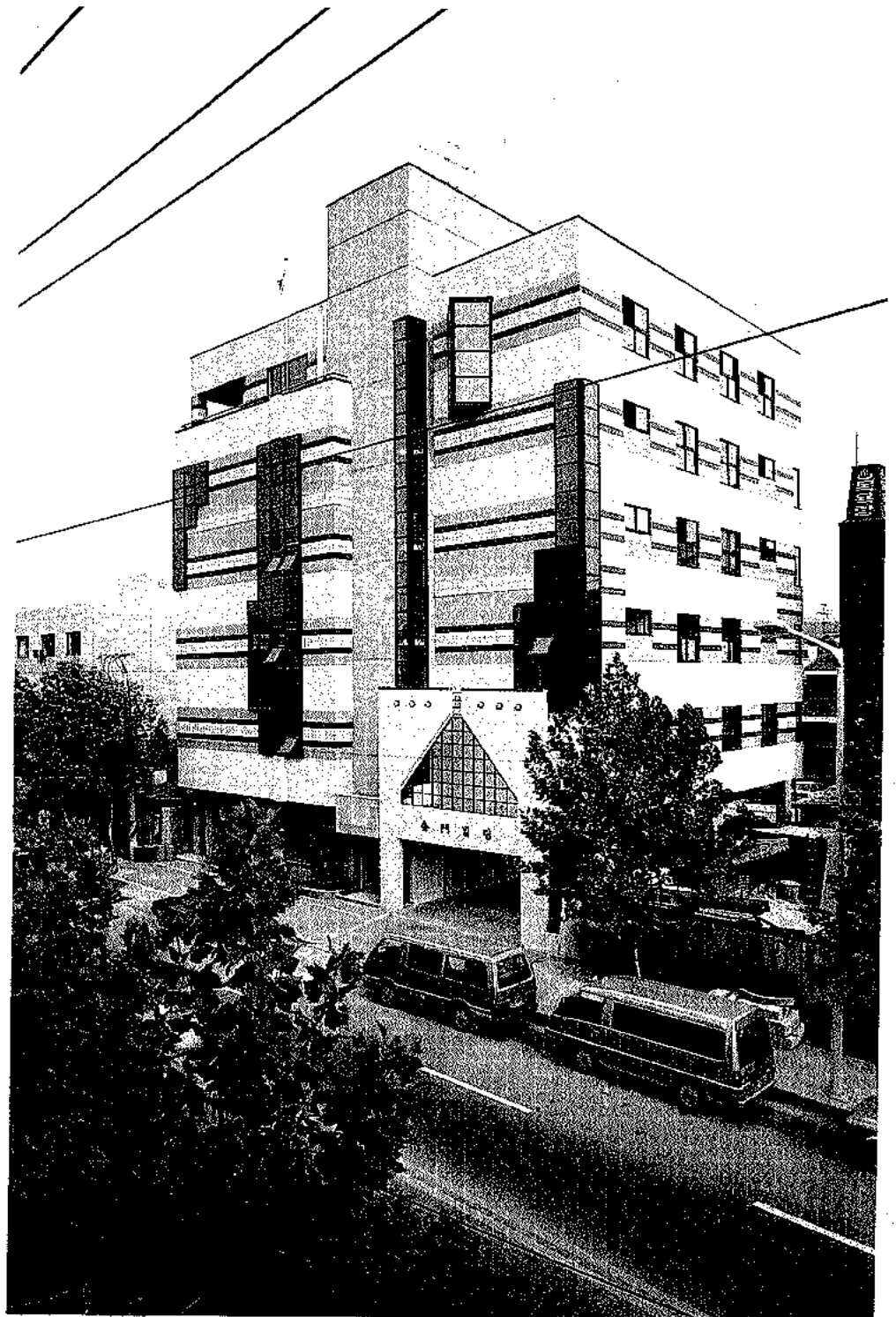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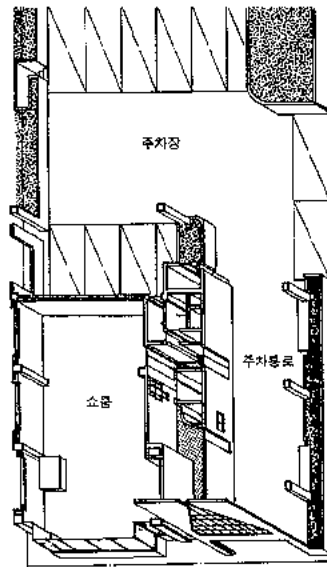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9-23
대지면적 : 811m²
건축면적 : 378.26m²
건폐율 : 46.6%
연면적 : 2,703m²
용적율 : 26.3%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 : 외장타일+칼라플라스터
용도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장방형의 소위 잘 생긴 대지에 무엇이 들어설지 모르는 무표정한 임대 목적의 건물을 설계할 때면 정말 막막한 느낌이 들곤 한다. 하나씩 둘러 도로변 공지들이 5-6층 건물들로 들어 서기 시작하는 이 지역도 이렇다 할 개성 없이 그렇게 자연발생적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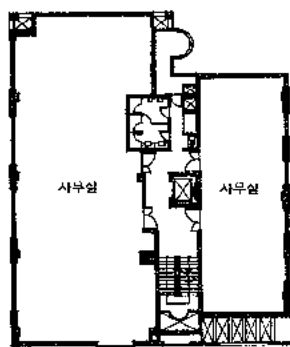
도시적 문맥을 논하기 전에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생각의 출발은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생길지 모르는 도시적 상황의 변화와 그 표정을 가정하여 감지하는 일이다. 거리는 그 거리를 둘러 싸고 있는 건물들과 그 건물들과 더불어 발생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의해 성격과 활기가 불어 넣어진다.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 쓰는 사람에 의해 이 건물은 이 거리를 보다 생명력있게 만드는 상쾌한 건축이 되어야 한다. 건축을 기능과 조형과 공간으로 설명하고 평가할 때, 그것 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감각이 있다. 작가의 손 맛이라고나 할까, 같은 조건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음식맛이 전혀 틀려지는 것처럼 건축도 건축가의 손에 의해 전혀 다른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

금문 빌딩은 평면구성이나 입체구성의 기분으로 전체적 조형을 만들어 나갔고 솔직담백한 외장재료 - 콘크리트, 플라스터를 주바탕으로 하고 일부 타일을 장식적으로 사용하여 타일이라는 재료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창호의 변화있는 대화와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듯한 주차통로의 멋진 대문은 이 건물을 밝고 명랑하게 자신이 넘치는 건물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림을 다 그리고 그 작품제목을 정하기도 하듯이 설계를 다 끝내고 이 작품의 제목을 「금문」이라고 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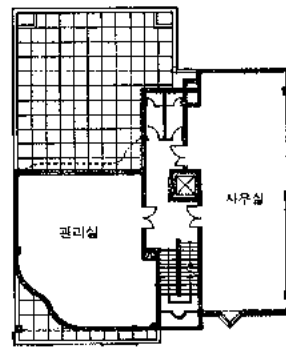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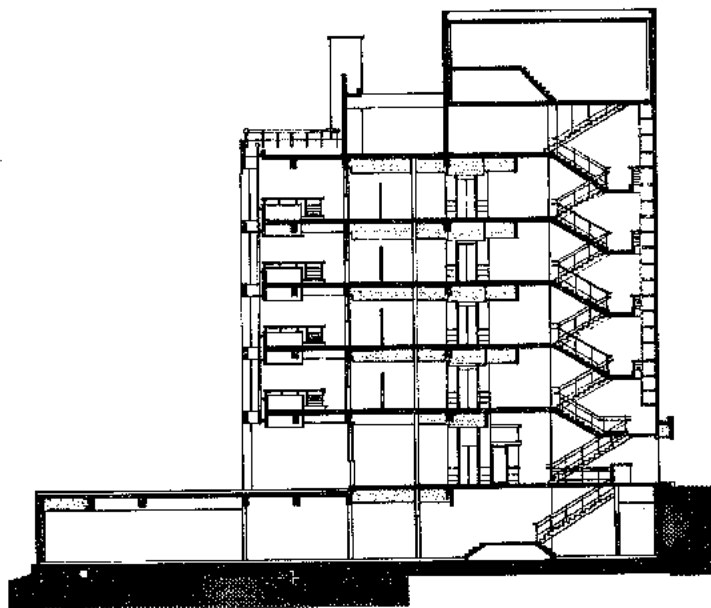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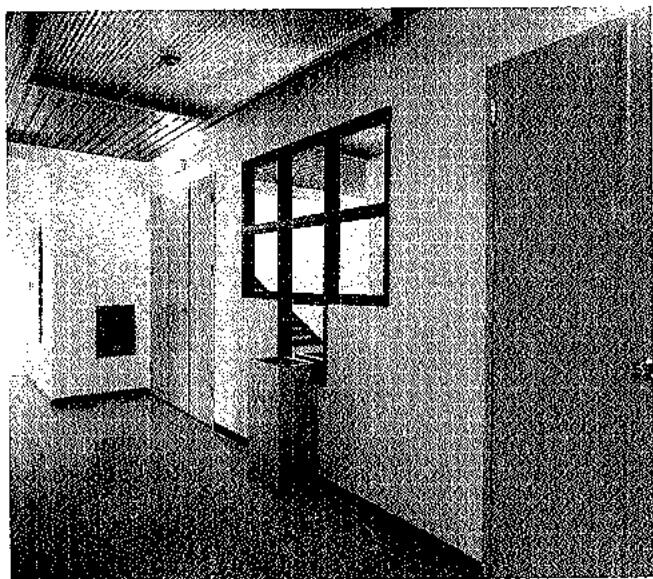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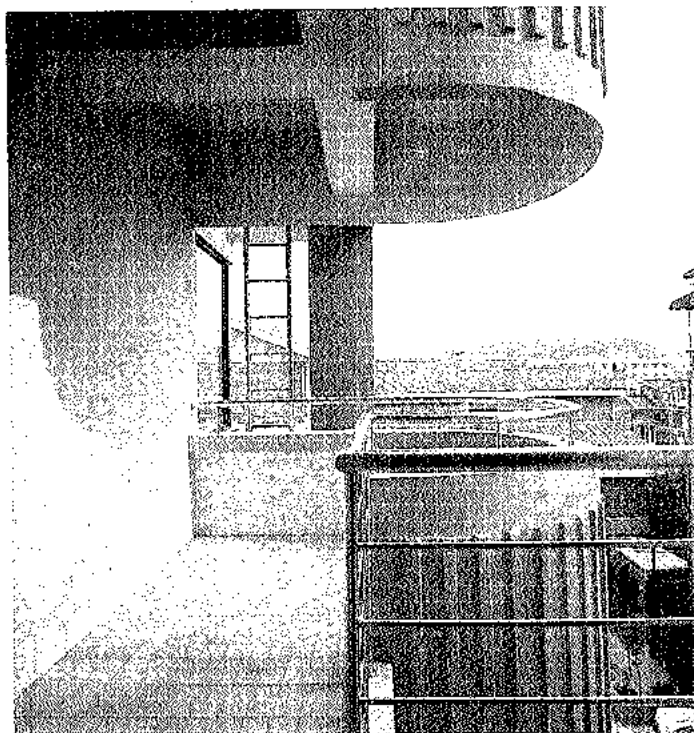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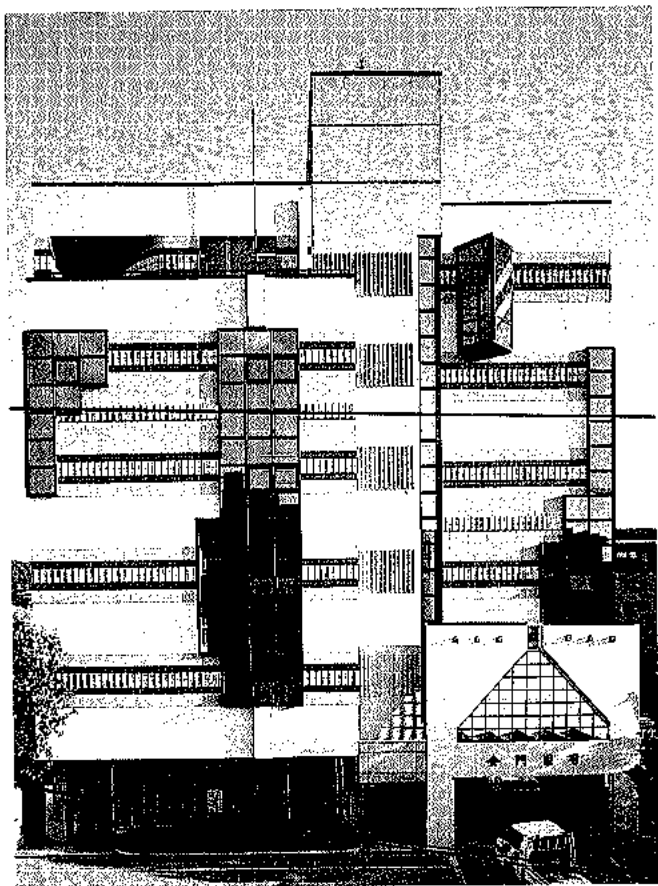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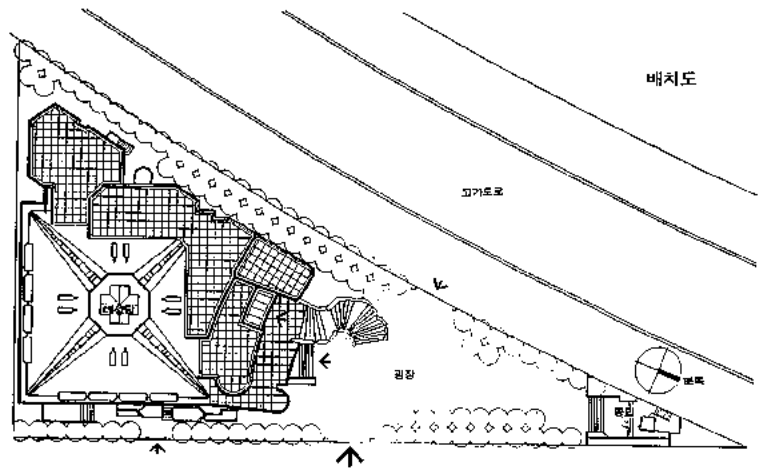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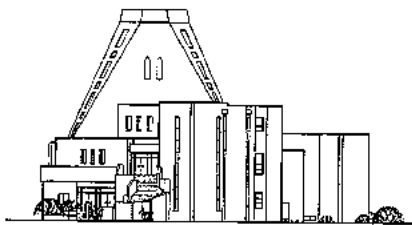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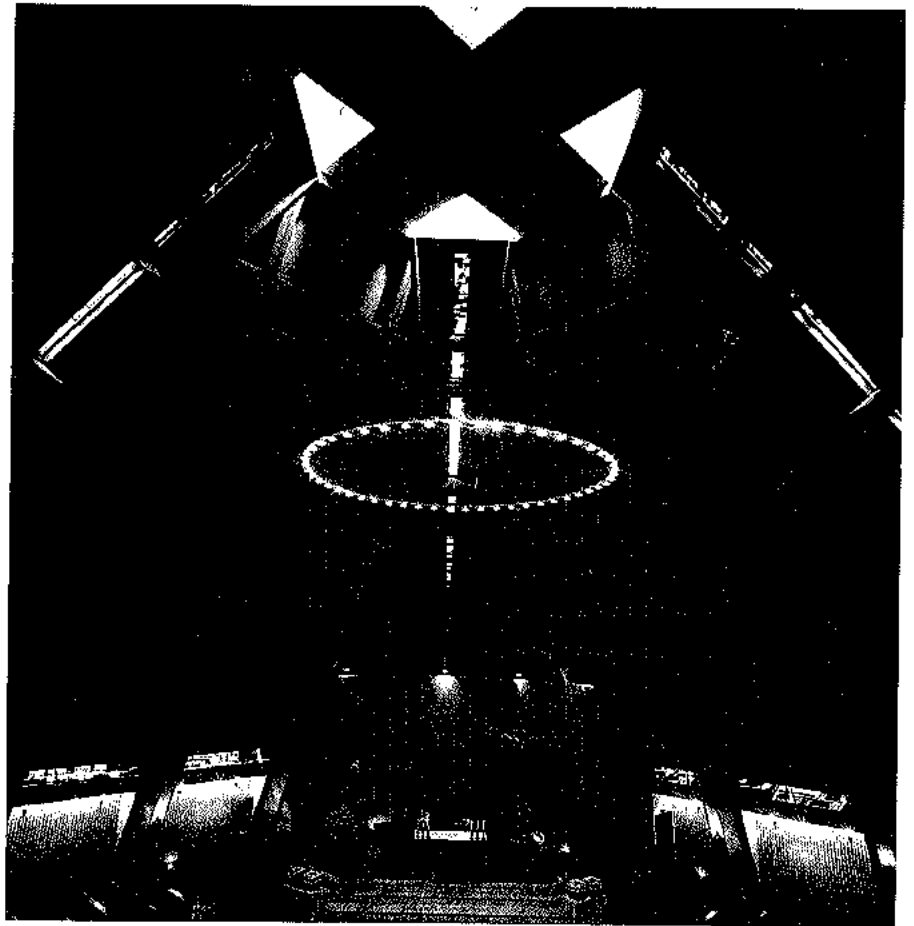
신천동 천주교회

Catholic Church in Shinchun-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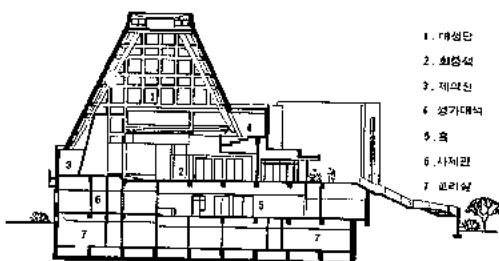
金瑛燮 /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Sub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동구 신천동
대지면적 / 2,281.0m²
건축면적 / 1,011.6m²
연면적 / 3,058.5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 / 외벽용 백색자기질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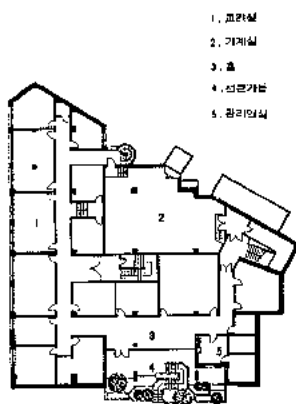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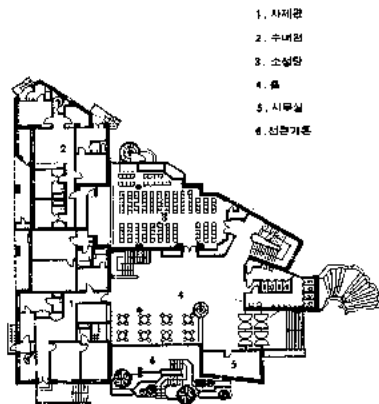
단면도

1. 대성단
2. 회중석
3. 제단
4. 성가대석
5. 홀
6. 사제관
7. 교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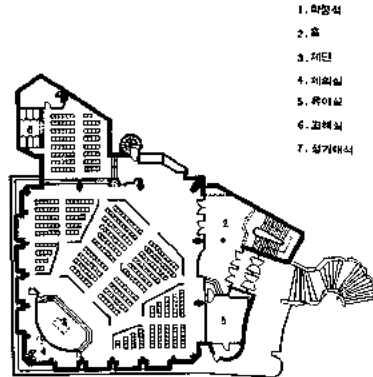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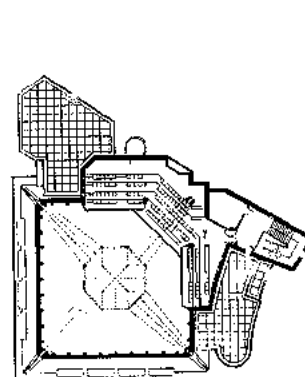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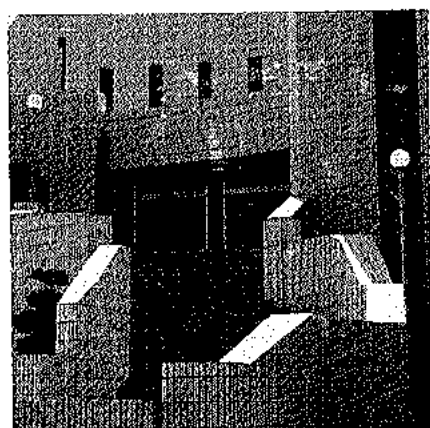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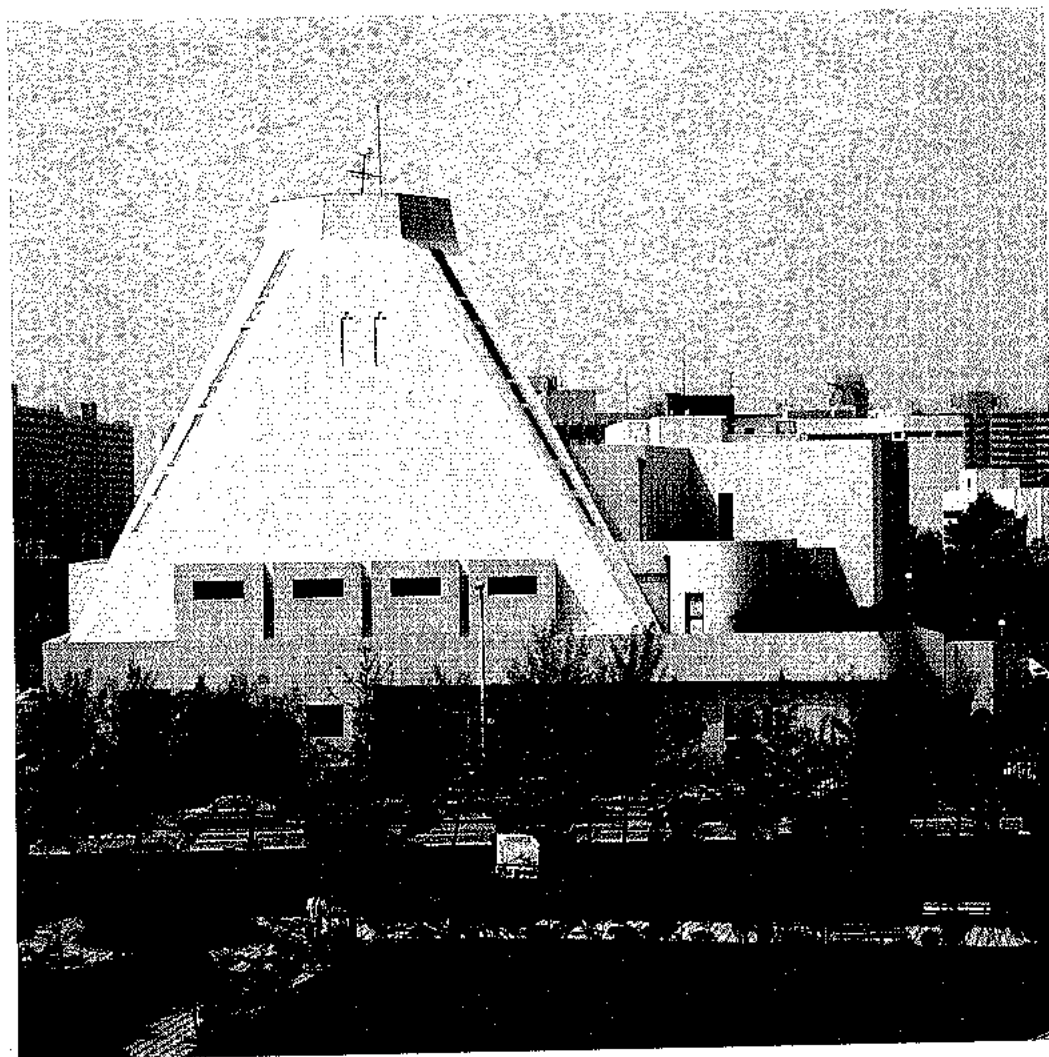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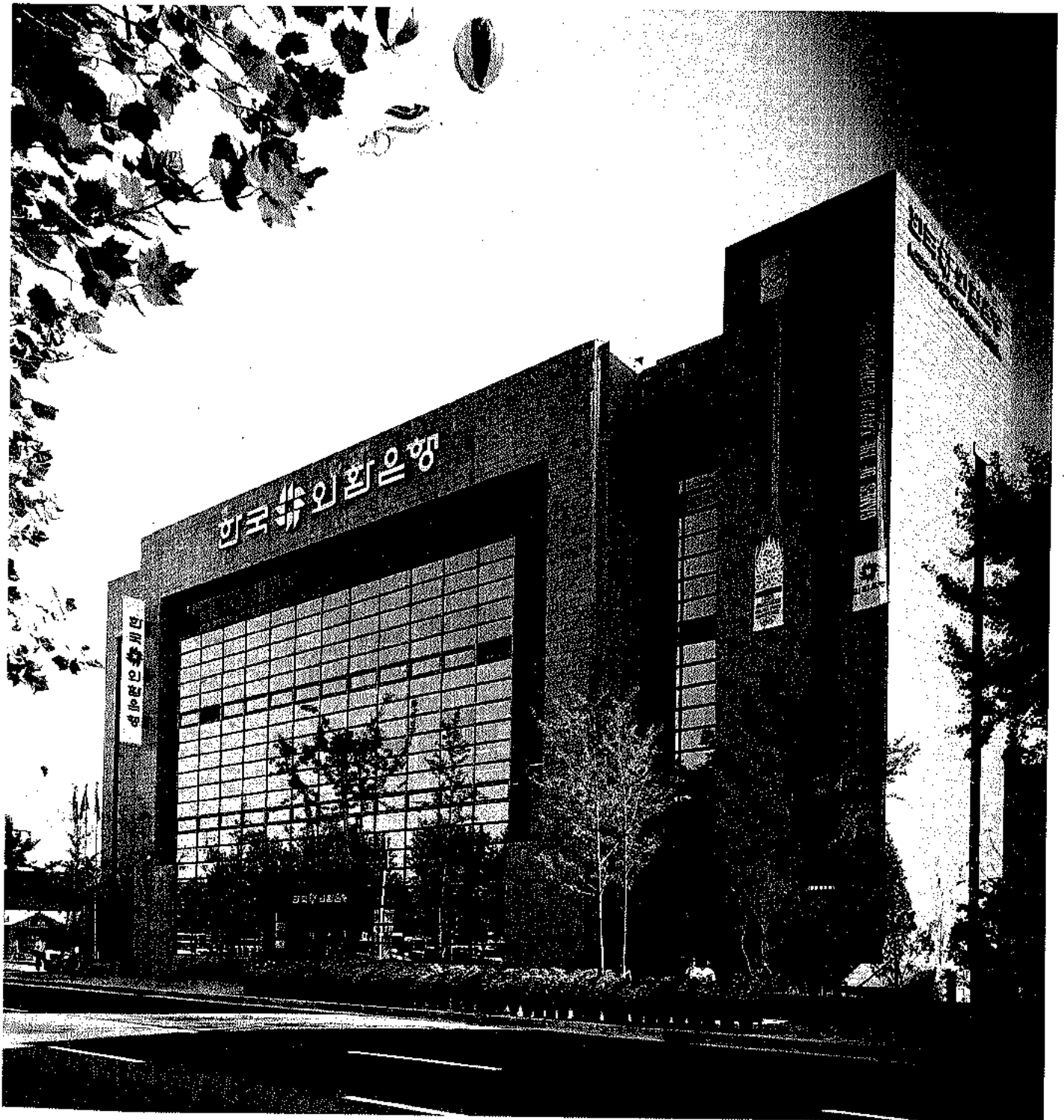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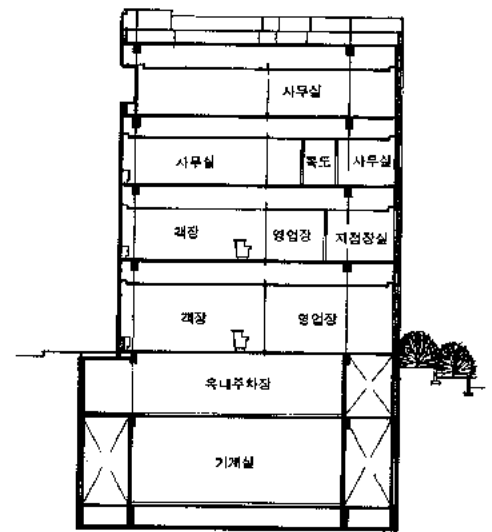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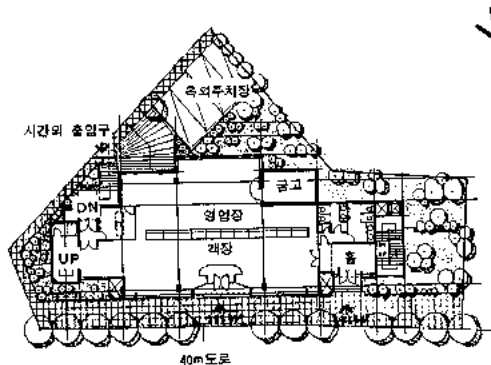
한국외환은행 강서지점

The Kang Suh Branch of The Korea Exchange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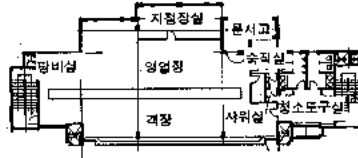
李永熙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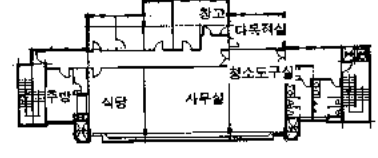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북동
지역지구 / 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도시계획구역

대지면적 / 1,000.9m²

건축면적 / 429.39m²

연면적 / 2,687.13m²

층수 / 지하 2층, 지상 4층, 옥탑 1층

건폐율 / 42.90%

용적률 / 169.84%

최고높이 / 18.4m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재료 / 외장석기질타일, 방색알미늄창
(18mm 목층 반사유리)

주요기능 / 지하 2층 :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 주차장

1층 : 영업장, 객장

2층 : 영업장, 객장, 지점장실

3층 : 식당, 사무실

4층 : 사무실

옥탑층 : 물탱크실

콘설단트 / 건축담당 : 손상원

구조 : 서진건축연구소

기계설비 : 다운설비

전기 : 화인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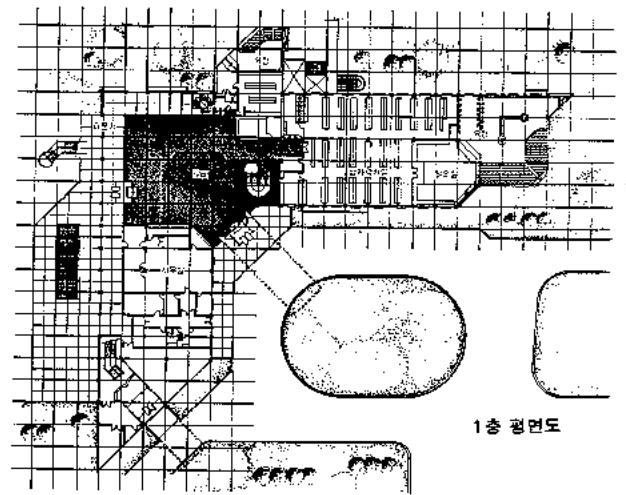


'88골프클럽하우스

'88Golf Club House

宋基德 /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ee-Duk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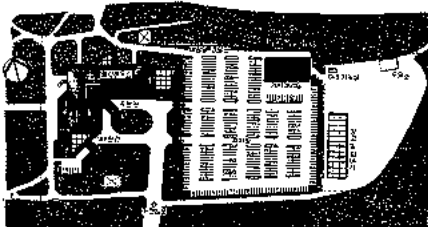
본 클럽하우스의 배치계획은 골프장의 Land Mark적 요소이므로 진입도로쪽에서 뿐만 아니라 부지 어느곳에서도 잘 보이는 장소에 배치하였으며, Golf Course는 Club House를 중심으로 남·서·북등에 걸쳐 각 9Hole씩 36Hole를 배치하였다.

주차장은 건물 전면 가까이 Club House에서의 경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G.L을 낮추어 400대 주차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옆에 관리동, 티비사동과 작업공간을 두어 우회도로로 출입하도록 동선분리를 꾀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정문을 거쳐 아름답게 조정처리된 로타리를 돌아 현관에 이르면 아크릴 수지 그라스로 덮힌 반 원통형 Canopy가 밝은 분위기로 맞이하여 방풍실을 지나 Lobby에 들어서면 Open된 상부 Top Light로부터 비치는 절제된 자연채광이 내부벽 및 천정의 주종을 이루는 Wood Panel과 Wood Flooring에 반사되어 은은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케하며, 로비에서 강화유리 및 황동제 난간으로 예쁘게 장식된 Carpet계단을 사뭇히 밟고 2층에 오르면 Open된 Lobby공간으로 쏟아지는 자연채광의 찬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며 왼쪽으로는 단체실 및 귀빈실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휴게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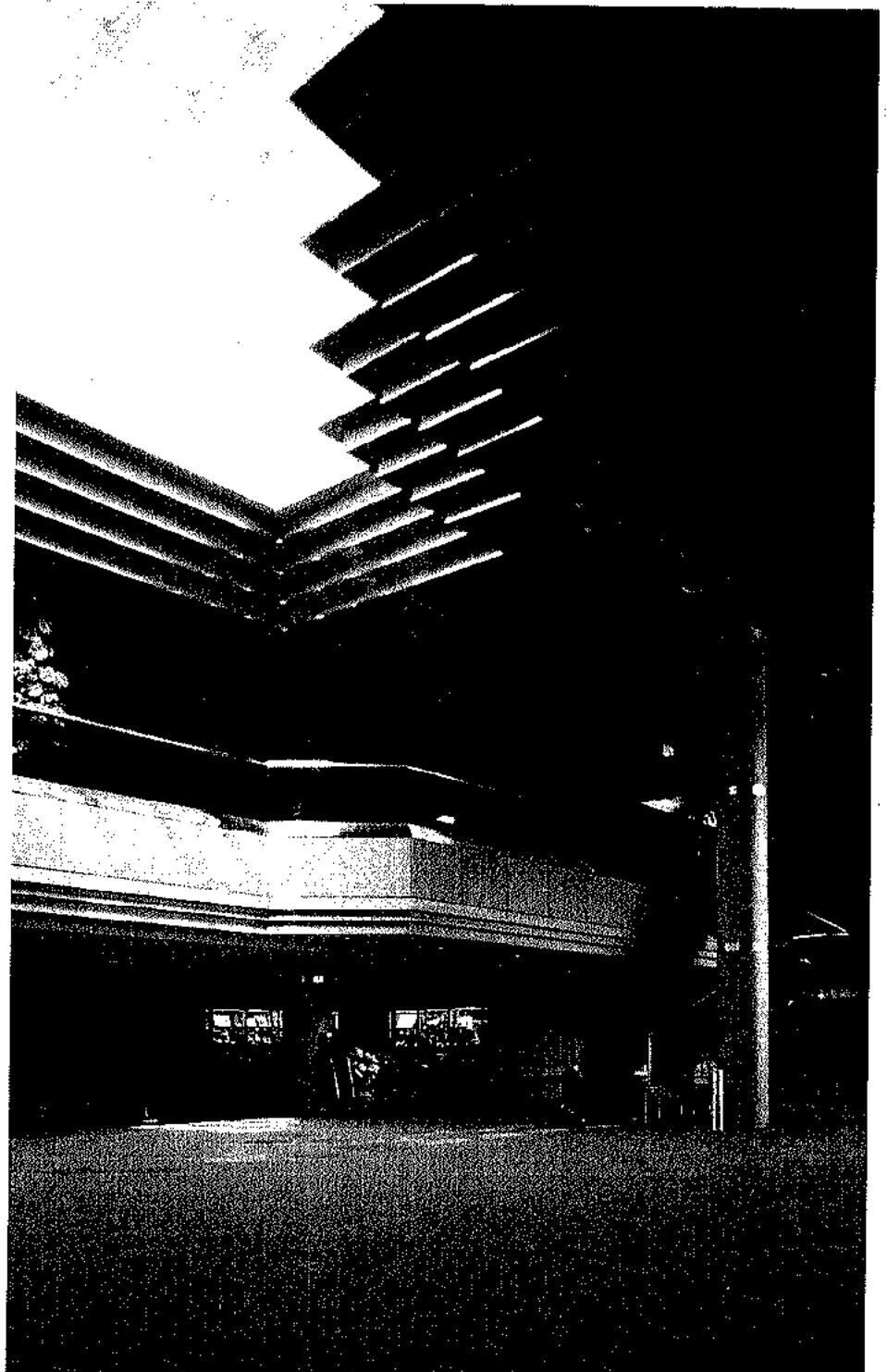
식당 남쪽으로 멀리않은 곳에 경관이 수려한 산들이 한쪽의 동양화처럼 펼쳐져 있어 쾌적한 분위기속에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서쪽으로는 주차장과 작업장등이 보이는게 혼이나 현재 식재된 수림들이 충분히 자란 뒤에는 거의 가려질 것 같다.

외관처리에 있어서 외장의 주된 Color는 자연과 잘 조화되는 Brown계통을 택했으며 사방에서의 시각환경을 고려하여 지붕은 흑갈색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된 모임 지붕형태를 택하였다. 지붕 일부에는 삼각형의 내민창을 두어 Classic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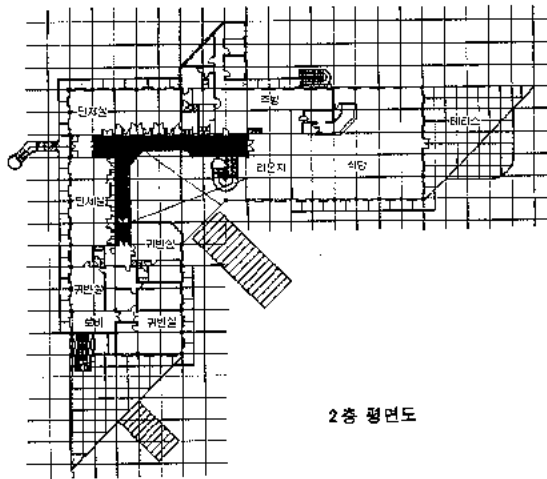
외벽마감은 벽돌 타일과 자연석 치장 불임으로 하여 온후하고 세련되면서 주위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하였으며, 기둥을 돌출시켜 Vertical Line을 강조함으로써 신선한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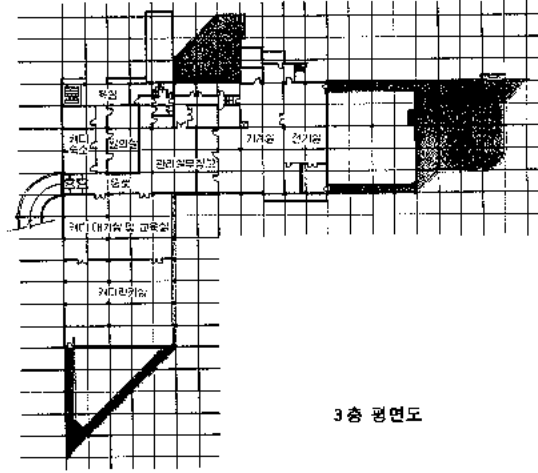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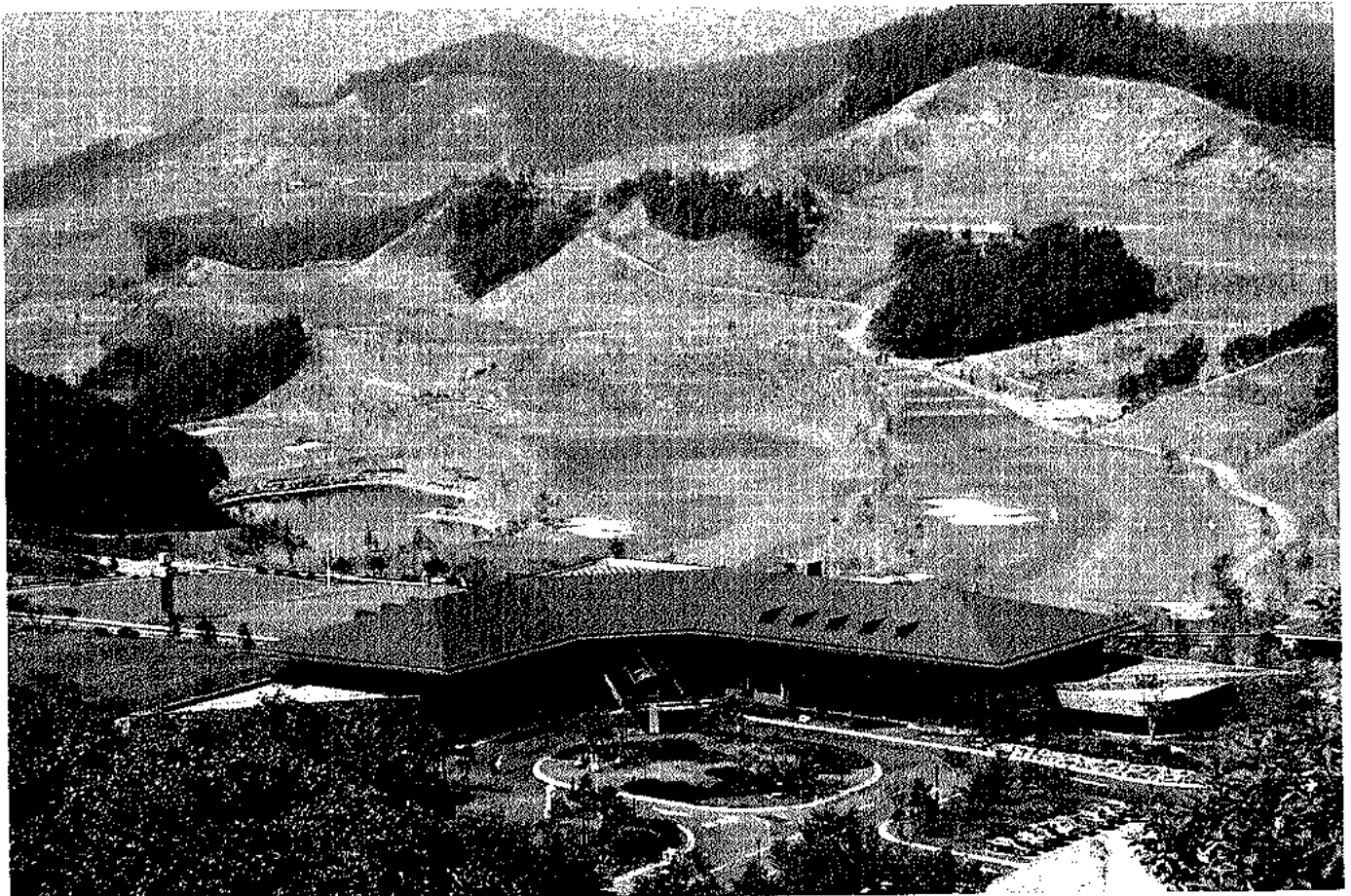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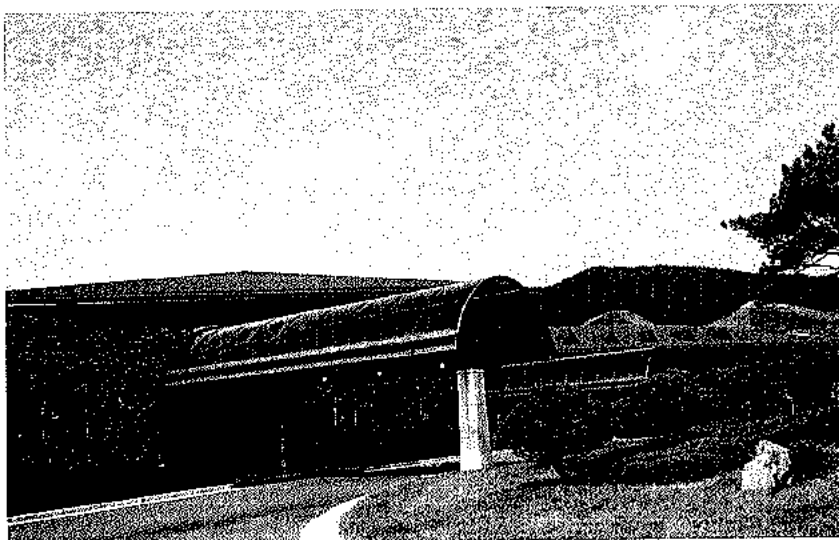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전경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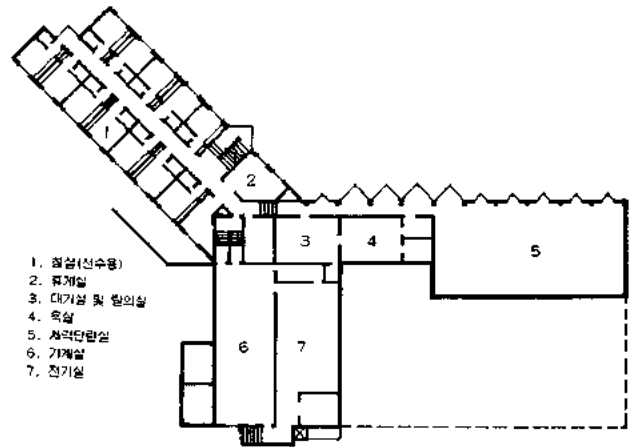
- ◆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청덕리
- 부지면적 / 2,814.545㎡
- 골프장 홀수 / 36홀
- 건축면적 / 5225.7㎡
- 연면적 / 8081㎡
- 구조 / 원근콘크리트 라멘조
- 주차대수 / 400대
- 외부미감 /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벽 : 벽돌타일, 자연석 치장쌓기
- 창 : 발색 AL BAR, 브론즈 복층유리

기아체육관

KIA Gymnasium

金相伯 · 金善洋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eon, Sahang-Beak & Kim, Seon-Yang



1층 평면도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대지면적 / 12,961m²

건축면적 / 1,79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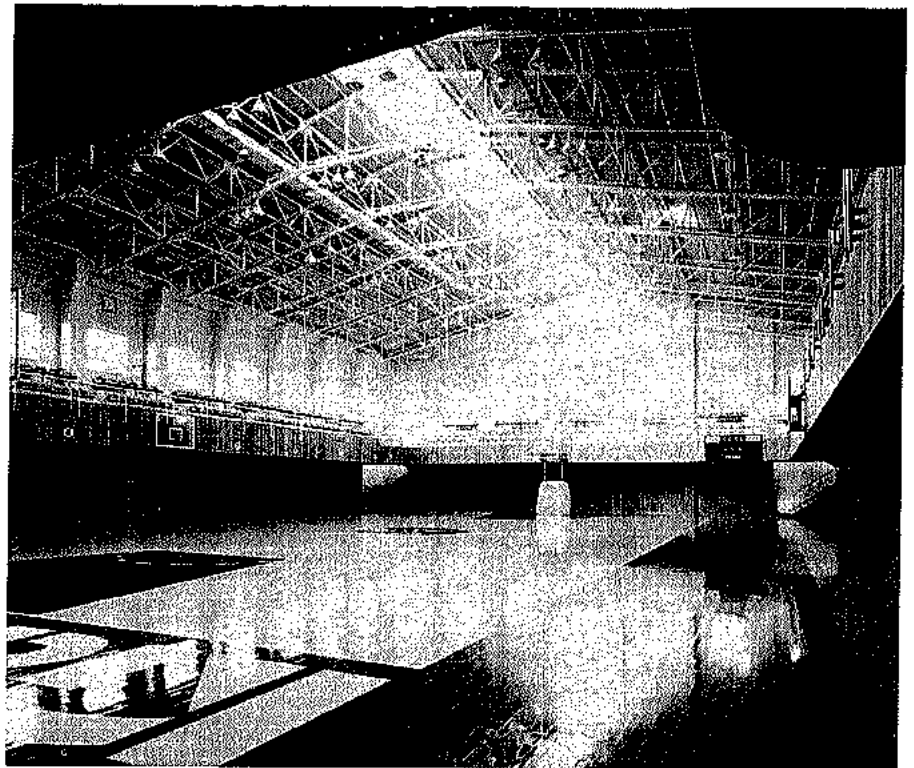
연면적 / 3,595m²

규모 / 체육관 : 지상 1층

기숙사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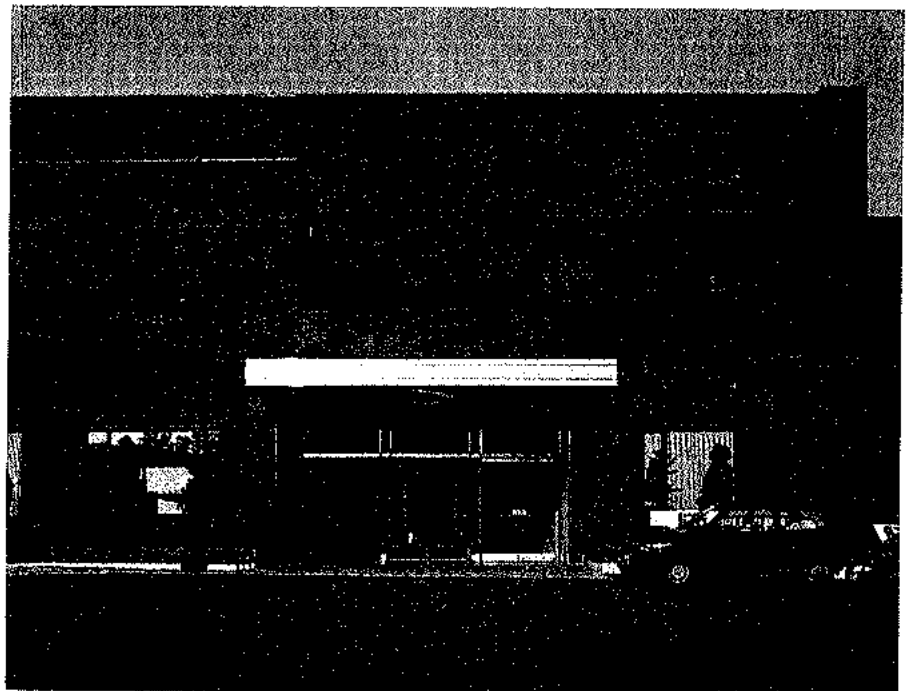
의무미감 / 적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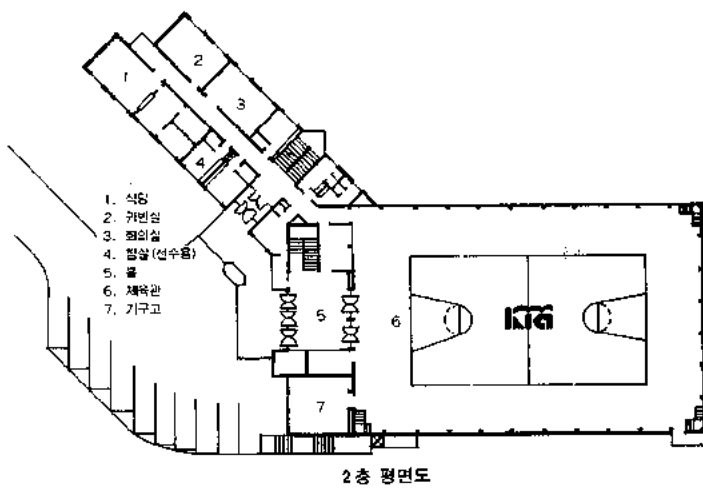


고속도로 변의 체육관은 기업PR의 Image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 신속한 이동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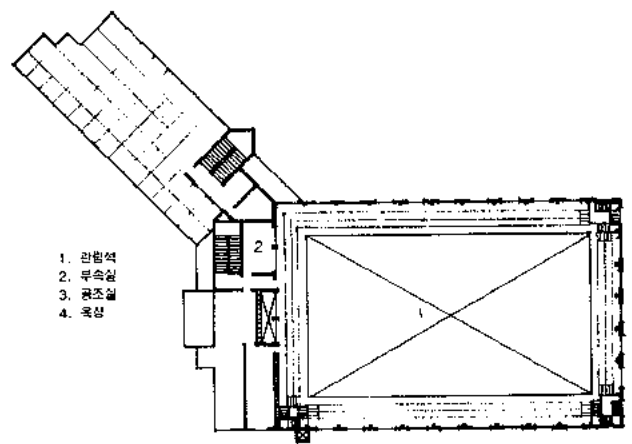
본 부지는 야산의 등성이를 경계로한 북측 지대로서 지형상 고속도로의 반대측에 진입하게 되어 있어 자연속의 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서향의 현관을 중심으로 고속도로와 직각으로 체육관, 좌측면은 기숙사동으로 하여 135°로 접합시킨 형태를 가지며 고속도로에서의 인시성,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재료의 선택, 지형에 맞는 적절한 배치, 농률적인 체육시설, 안락한 휴식처로서의 체육관과 숙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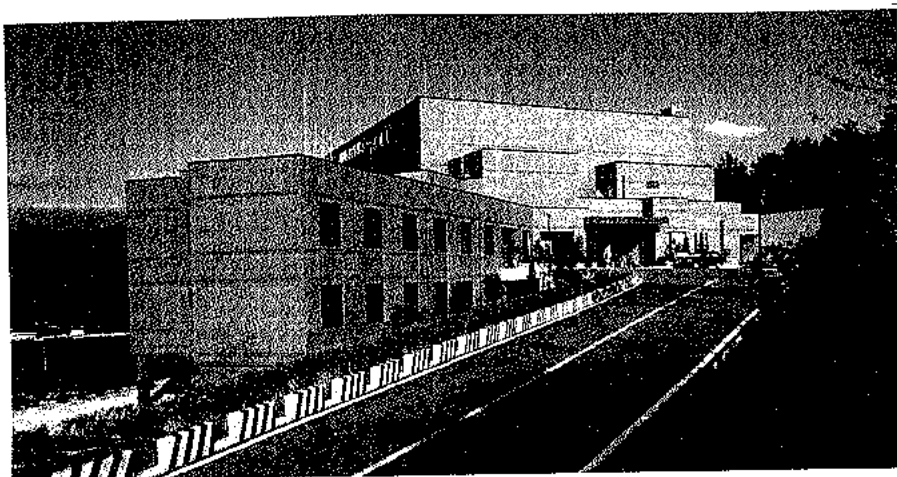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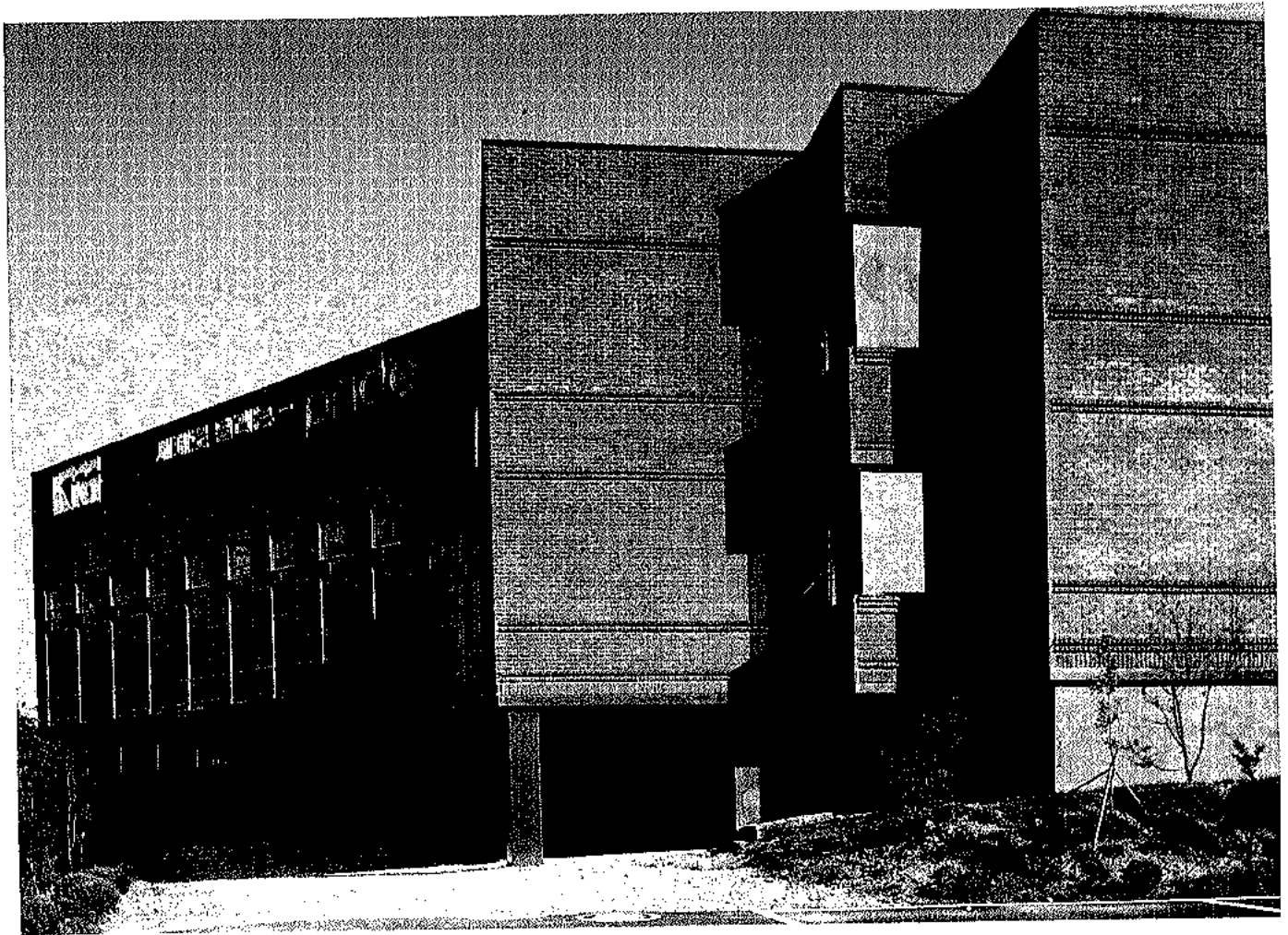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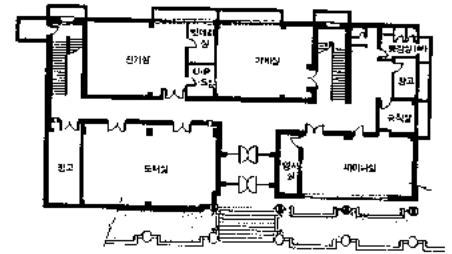


서울대 의과대학 부설 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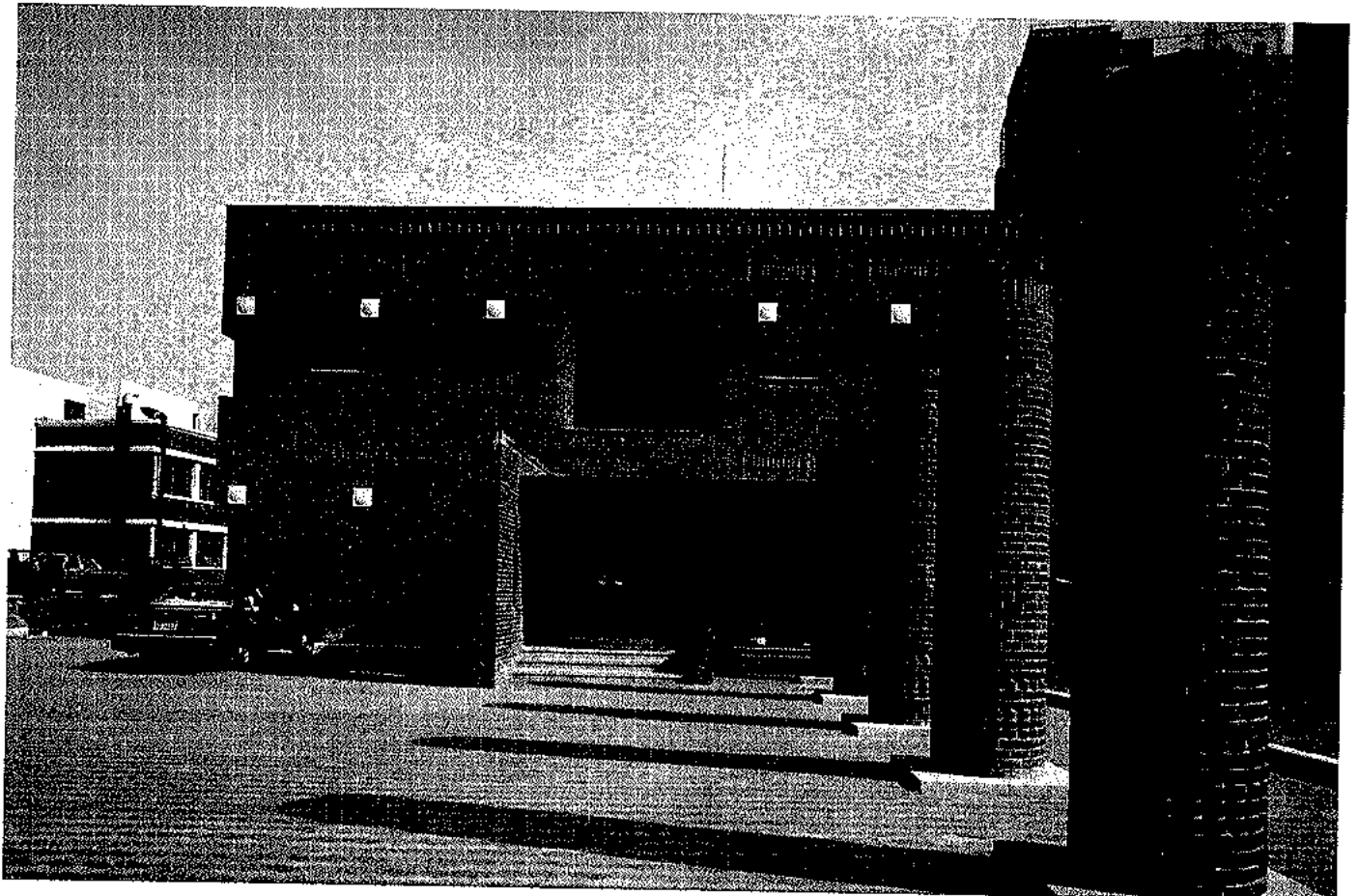
Liver Research Institute of Medicine Collage of S.N.U

金壽根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oo-Keun & Space Group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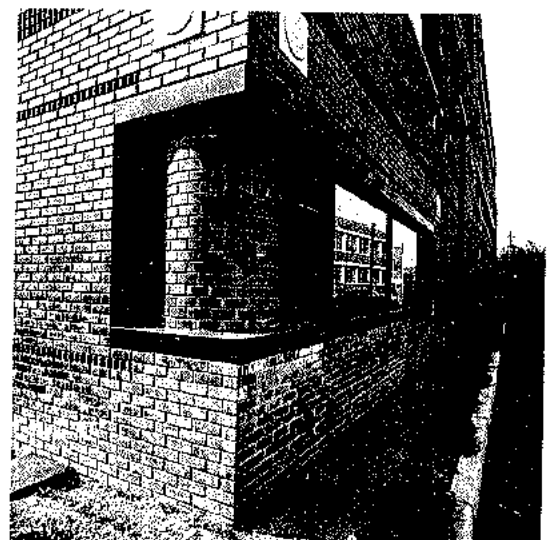
전경

◆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과대학내
대지면적 / 2, 108m²
건축면적 / 712m²
연면적 / 2, 136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 지상 3층
기계설비 / 일반 및 실험용 급탕 급수설비,
공조·크린룸, 설비, 드레프트 챔버
전기설비 / 수전 용량 6, 600V, 250KVA, 통신·
방재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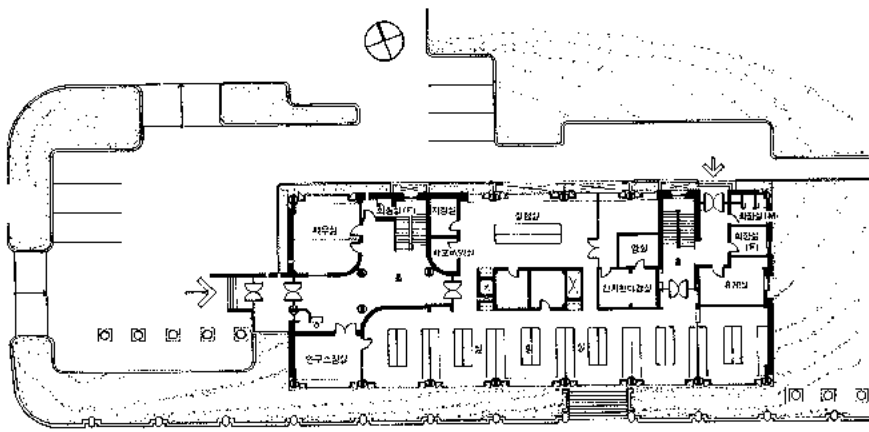
■
디자인의 개념설정에서 물리적 요인인 현대적 시설의 필요성과 더불어 내면적 요소로서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 연구에의 깊은 의지와 쌓아지는 실적등이 연구소의 중요한 요소로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내면적인 요소에 도움이 되도록 간연구소 설립의 현신적인 취지가 오래 기리어지도록 하는 기념성을 건축과 환경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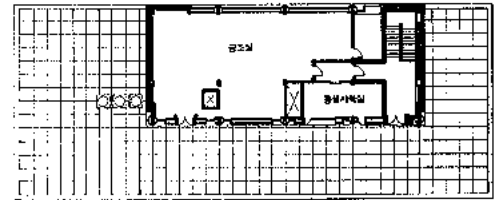
의과대학 캠퍼스에 오래 남겨져 있는 디자인 보케볼러리를 유지하며 지성을 이루기 위하여 붉은 벽돌과 맥색 화강석을 주요 재료로 조형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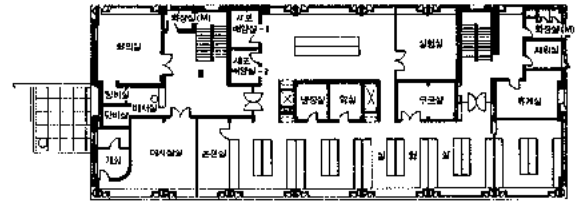
외벽상세



배치 및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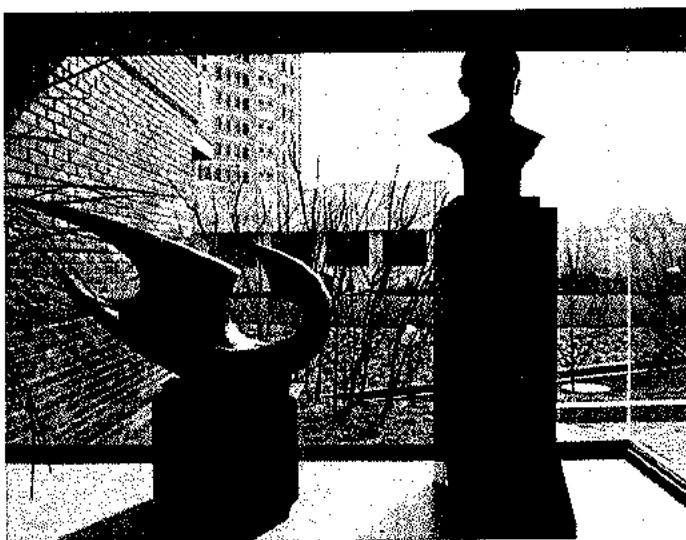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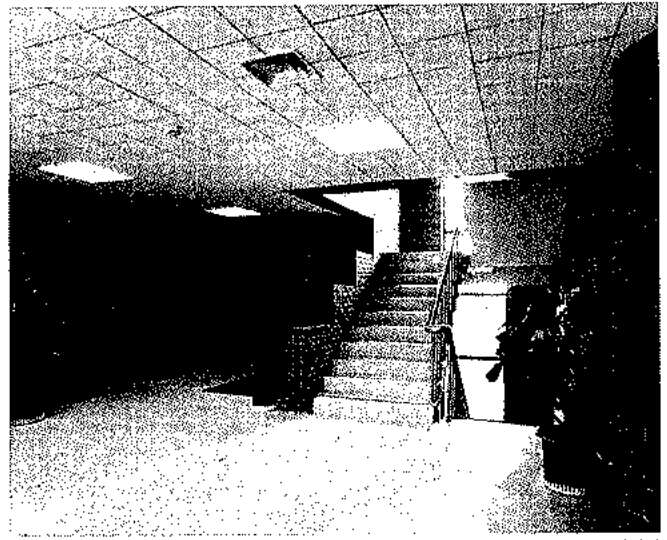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로비



현관 내부 조형물



계단실

학생잼보리대회

開 會 辭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대한건축학회 회장, ARCASIA 회장, 각국대표, 교수 그리고 남녀 학생 여러분!

제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의 일환으로 학생 잼보리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함에 따라 여러분을 뵈게된 것은 본 협회의 대단한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이 건축학생 잼보리는 1985년 인도 봄베이에서 개최된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건축교육위원회가 발기되어 1986년 제1회 말레이시아 대회에 이어 제2회 학생 잼보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잼보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이 대회의 발기인이며 아시아 건축교육 위원장이신 LOCHI GUNARATNA 씨가 1986년 10월 9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회 학생 잼보리대회시 기술한 기본정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정신은 첫째, 아시아 지역내의 우수한 건축학도들의 상호 왕래 및 연관된 환경의 이해를 돕는것과, 둘째, 아시아 지역내에서 각 국가의 당면한 조건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을 육성하고, 셋째, 아시아 지역내의 전문직업인으로서 끊임없는 개인 상호간의 교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며, 넷째, 각국의 건축학도들이 ARCASIA 와 ACAE 가 시도하는 방향과 미래를 위하여 이 기구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아시아 건축 학생들에게 주시시키는 역할과, 다섯째, 건축분야의 기성인들과 새로운 세대가 함께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성인들의 의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듯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모두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모임은 앞으로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건축분야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의 젊은 열기를 북돋우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세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통신망과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너무나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바쁜 일정이지만 이번 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주변환경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잼보리 대회는 크게 두가지 행사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4일 동안에 걸친 각국의 "주거양식의 경향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와 다른 하나는 각국에서 엄선하여 출품된 "문화회관"에 대한 설계작품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대한 건축사협회는 금번 제2회 학생 잼보리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대회도중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8. 11. 6

잼보리 위원장

조 재 원

MESSAGE FOR THE STUDENT JAMBOREE

Presidents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d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Chairman of ARCASIA, distinguished delegates, professors, ladies and gentlemen :

It is our great pleasure and honor to meet you all in Korea on behalf of the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e Thi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ACA-3). This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 is the second of its kind, the first Jamboree taking place in 1986 in Malaysia. It was adopted at the ARCASIA council meeting in Bombay in 1985 pursued by the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ACAE).

In order to enlighten the purpose of the Student Jamboree, in brief, it would be worth while to address ACAE chairman, Lochi Gunaratna, and his adoption of the objectives of the Student Jamboree when Malaysia agreed to host this event on October 9, 1986. The objectives of the Student Jamboree are

; First, to facilitate talented Asian students of architecture to travel in the region of Asia, and experience the architecture of different but related environments from their own ; Second, to foster among the up-and-coming generation of architects in our region, a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ountries and their contemporary conditions and problems ; Third, to encourage the building of lasting inter-personal contacts within the profession across the Asian region ; Fourth, to promote an awareness among the Asian architectural students what ARCASIA and the ACAE are trying

to do and enlist their support to these institutions for the future ; and Fifth, to enliven our own deliberations by the presence of the younger generations of our profession in our midst.

As mentioned on the objectives, we, being all from different parts of Asia, are gathering to mingle with different cultures. Therefore, this gathering would be an opportunity, a gear to stimulate all of your young spirit as a future leader of the architectural field to the region and to extend to the world, as well. Moreover, the world has become much narrower than ever in this decade through communication media and transportation means. I hope, particularly from the foreign students,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 and culture of Korea, even though we have a very tight schedule to allow you.

The main features of the Jamboree are composed of two parts : First, four sessions of day-long seminars on the topic "The Trend and Future of the Dwelling Unit". And the second, conducting a design competition exhibition for the "Cultural Center" from respective countries, for the students. KIRA is also honored and proud to be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organizing and hosting this Student Jamboree in Korea. Please don't hesitate to tell us if there is any inconvenience with the accomodations.

Thank you very much.

Cho, Jai Won

Chairman of Student Jamboree,
ACA 3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학생잼보리대회



학생 잼보리

歡 迎 辭

존경하는 KENNETH YEANG 아시아 건축사협회 회장님, LOCHI GUNARATNA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교수 여러분, 대한건축학회 박윤성 회장님, 그리고 만장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병행한 제2회 아시아 건축학생 잼보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에 협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이 아시아 건축학생 잼보리가 기필코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내방한 많은 학생 여러분,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3천여 회원과 더불어 여러분께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만족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며칠동안 회원국 학생 대표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지역 각국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미래를 짚어질 힘과 용기와 낭만을 펼쳐게 될 것입니다. 이 대회가 제2회로 비록 역사가 짧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착실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경험하고 생각하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회원국 학생 대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의 희망입니다. 아시아의 희망이며, 세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아시아와 세계가 미래에 넘치는 시선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 광대 무변한 세계의 공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고 새 시대 건축 문화에 참신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회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 11. 6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안 기 태

The honorable chairman of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Mr. Kenneth Yeang, chairman of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Mr. Lochi Gunaratna, President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Mr. Park Yoon Sung, Professors,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respect for much effort of you to held the 2nd ARCASIA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 in association with the Thi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 am sure that this event will be great succes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around 3,000 members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I warmly welcome all participants to Korea in respective country.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have the most valuable experience and great pleasure in Korea. Now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and discuss the theme of Student Jamboree "Trend and Future of Dwelling Unit" with all participants from home and abroad. You will make a great deal of contribution to promotion of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ir own power, courage, romanticism between Asian arch architectural students. In spite of a short history of Student Jamboree, this will provide you the opportunity to start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and to think and learn by experiences.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hope in Asia and the world as well as in your country. All eyes overflowing with expectation in your country, Asia and the world are being turned of you. Look at the magnificent world which is waiting for creation. Finally,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be happy and prosperous in your future and also be a new leader of architectural culture in the coming age.

Thank you very much.



大韓建築學會長

祝 辭

본인이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ARCASIA 건축 학생 캠프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격려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사회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생활을 하여 온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루하루 지나시면서 색다른 건축내용과 색다른 건축 표현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쏟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건축은 서구 문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 지내왔으며, 또한 오랜 세월 유지하여온 전통적인 건축 문화도 중요한 것이어서 이 두개의 조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하면서 건축 문화를 창달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건축계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각자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건축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학술적인 고찰을 통한 신념을 발표하고 공개적인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축에 대한 자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국의 건축설계 학생 작품전도 갖는다고 하니 학생들 간의 건축 설계의 정보 교류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체제 기간이 얼마 안되시겠으나 우리나라 건축물들을 많이 견학하시고, 줄거운 시간을 많이 마련하시어서, 귀국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마디 격려사를 올립니다.

1988. 11. 6.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 윤 성

I am very pleased and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of congratulating you here at the event of ARCASIA Architectural Students Jamboree in Seoul. I believe that you, all come from various backgrounds, would take a great interests in Korea day by day seeing many different structures and expressions of architecture of this country.

Our architecture has been passed through the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influence on Korea. However, we have our own traditional culture of architecture that has been come down from old days and it is an important thing of Korean identity that we do not want our unique and precious culture be faded away by the influence. Taking this point into account, it is a big mission and duties of contemporary architects in our country to combine old and new things and develop the culture of architecture harmonized. And I think you have the similar problems as we have.

In this stage, having a gathering of forum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through which you can exchange your ideas and present new researches, is meaningful and this will enrich your knowledge of architecture.

I also believed that the event of Exhibition of Architectural Students will provide students with wide information of architecture.

In conclusion, I wish you an enjoyable stay, even it is a brief time, in Korea. And please take a look around as many architecture as possible of this country and bring lots of presents with you to your home.

I expect that we should have stronger ties in architectural culture and more close relationship together.

Thank you, Yours sincerely,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학생잼보리대회



▲ 축하말 하는 케네스양 ARCASIA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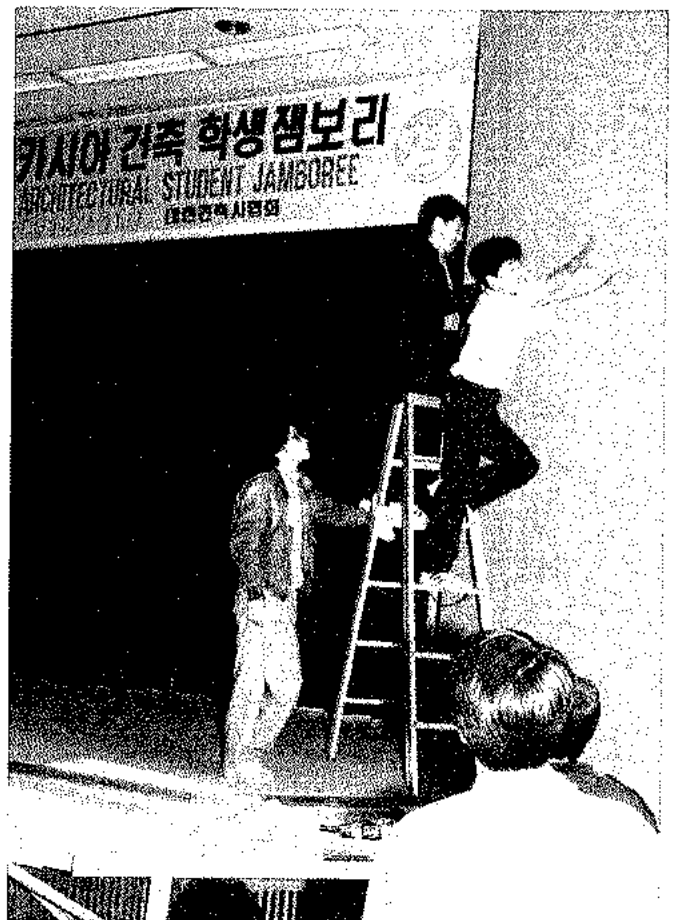
▲ 개회식 사회를 맡은 우리나라의 김영범, 이영경 학생



▲ 건축학생잼보리 개회식 축하공연



▲ 개회식에 참석한 내빈소개, 서 있는 사람이 로저 구나라트니 ACAE위원장



▲ 우리 손으로 준비물 /

제2회 건축학생잼보리를 마치고

조재원 / ACA-3 잼보리위원회 위원장



▲ 건축학생잼보리의 토론회



▲ 필자인 조재원 잼보리 위원장

제2회 건축 학생 잼보리는 “주거 양식의 경향과 전망 (Trend and Future of Dwelling Unit)”이라는 주제를 갖고 ARCASIA 회원국 13개국 중 10개국에서 건축 전공 대학생이 66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건축에 대한 관심사를 토론하고 내재의 자기 계발 내용을 공개했던 한 마당 잔치였다. 먼저 학생 잼보리 대회 장소가 경기도 신갈 소재의 흥국생명보험(주)연수원 임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일)에 개최된 학생 잼보리 개회식에는 각국 대표단과 국내외 내빈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의 성격과 참가 주체가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회 진행 전체 특히, 개회식행사의 사회를 학생들이 하도록 배려하여 국내 학생 중 남녀 학생을 선정, 진행토록한 개회식은 본인의 개회선언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 협회 안기대 회장의 환영사, 대한건축학회 박윤성 회장의 치사, ARCASIA KENNETH YEANG 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축하 공연이 있었다. 본 행사를 위해 특별출연해준 서울예술전문대학 재학생 50여명으로 구성된 축하공연단(지도교수 : 조운웅)은 고전에서 현대까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시간여동안 축하공연을 해주었으며, 공연중 간간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공연자가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학생 사회자의 설명에

참가 외국인들은 찬사를 금치 못했다. 축하 공연자들과 행사 참가 주체가 대학생이라는 등참의 뜻에서인지 아니면 멀리 타국에서 온 외국 학생들의 간절한 요청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축하공연이 끝나고 각국 대표단과 국내외 내빈이 서울로 떠나고 난뒤에도 학생들끼리 1시간여동안 당초 예정에도 없었던 식후 프로그램으로 노래 자랑과 게임등을 또 가질 정도로 학생 잼보리 개회식에서의 축하 공연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10개국에서 당일에 만난 초면의 학생들이었지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분위기 때문인지 숙소로 돌아와서도 백년지교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2시가 넘도록 서로 환담을 나누는 것을 볼때 역시 젊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느꼈다. 학생발표회는 5회기로 구분하여 1~4회기까지는 참가국별로 20분간의 주제발표와 3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주고 마지막 5회기에서는 그동안의 각국의 주제 발표에 대한 내용과 질의 응답 시간에 도출된 내용을 갖고 종합적인 토론과 결론을 갖도록 하고 회기별로, 발표 국가를 배정하여 순서를 정했었지만 미처 발표 준비를 하지 못한 국가와 미도착 국가가 있기에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다음 발표 국가대표의 양해를 얻어 순서를 바꾸어서 발표회를 진행하여야만 했다. 첫날(11월 7일)의 학생 발표회 1은

주남철(고려대), 심우갑(서울대)교수의 지도아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가 시작되자 자유 분방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그러지고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메모를 하는 등 자국과 타국과의 건축 문화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배우며 또한 질문하는 모습은 학생 본연의 좋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발표자와 질문자의 발표 및 토론이 너무나 진지하게 진행된 관계로 시간이 당초 예정했던 50분보다 초과되어 휴식 시간도 없이 발표회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고충도 있었다.

오후의 관광 계획은 경복궁, 남산 타워, 이태원 쇼핑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과 서울 시내의 발전상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복궁과 남산 타워에서 볼수 있었던 점은 각국 학생들이 우리 건축물들을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지붕의 신과 문양 등에 방달라데쉬 학생들은 현대 건축물들에 많은 호기심을 보였다. 우리의 전통 건축물들과 서울 시내의 발전상에 너무 심취해서인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에서인지 시간에 개의치 않고 지체하는 바람에 다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태원 쇼핑은 시간 관계상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참가 외국 학생들은 이태원 쇼핑 스케줄에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학생잼보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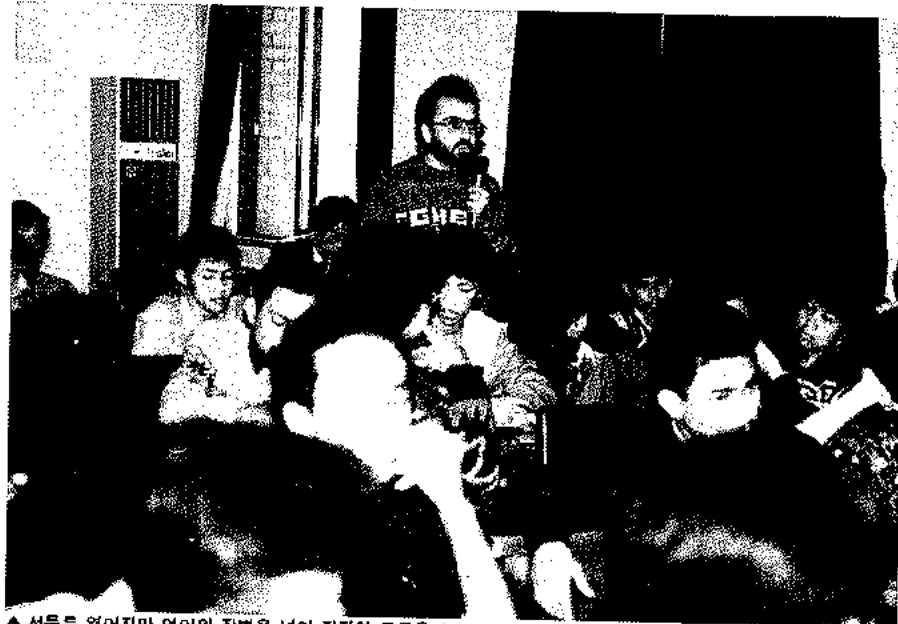
▲ 서울예전생들의 축하공연



▲ 언제나 즐거운 마음뿐...



▲ "건축에 있어서..." 항상 즐겁고 진지한 발표회



▲ 서투른 영어지만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지한 토론을!

커다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쇼팽 시간을 충분히 줄수 없다는 안내에 다소 실망을 하는 눈치들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행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행하여야만 했던 점 못내 아쉬울 뿐이다.

대회 2일째인 11월 8일(화)의 학생 발표회 2는 이리형(한양대), 김익(홍익대)교수의 지도 아래 전일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어 홍콩, 자유중국, 필리핀의 순서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갖고 오후에는 관광과 ACA-3개회식에 참석하였다. 특히 현대 건축물 견학 대상으로 선정된 럭키금성타워는 회사측에 사전 협조를 의뢰하였던 관계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요소 요소의 견학과 설명등 회사의 배려가 컸었으며 특히 외국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었다.

이어서 본 대회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ACA-3개회식에 참석하였다. 16개국 800여명이 모인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도 없었던 성대한 잔치였으며 이러한 커다란 행사를 개최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대회 3일째인 11월 9일(수)은 학생 주제발표의 마지막날로서 오전의 학생 발표회 3은 심우갑(서울대), 박영기(연세대)교수의 지도로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오후의 학생 발표회 4는 송성진(연세대), 김익(홍익대)교수의 지도로 방글라데쉬와 우리나라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제발표후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국가에서 질문이 있어 타국가보다는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다. 이와같이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 가진 자유시간에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축구와 배구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또 학생들의 젊음의 진면목을 또다시 볼수 있었다. 오전에 비가 온 관계로



진지함!! ▲



▲ 흥거움!!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때 젊음이란 과연 반국 공통적인데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갖은 ASAsia (아시아 건축 학생 협의회, Architectural Students Association of Asia)회의는 지난 말레이시아 대회에서 결성된 ASAsia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과 방법을 위한 토론회였으며, 여기에서 각국 학생 대표들은 자국의 실정과 현황등을 상호 의견 교환하며 앞으로 ASAsia의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ASAsia 규정에 있는대로 ASAsia 본부는 학생 캠퍼스 개척국에서 차기 대회 개최시까지 본부 업무를 2년간 맡아 주관 운영하다가 차기 대회 개최국에 인계하는 것으로하며, 각국의 ASAsia와의 연락 관계 등은 참가 대표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회 4일째인 11월 10일(목)은 그동안 4회기에 걸쳐 발표된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과 결론을 갖도록 되었다. 주제 발표에서도 시간이 초과 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시간이 초과하여 REPORT로 제출하고 요점만 설명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으며 충분한 시간 배정을 하지 못한 것이 착오였다고 하였다. 오후에는 본 협회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ARCASIA 학생 설계 작품 경연대회에 출품된 각국의 학생 건축 설계 작품과 본 협회에서 주관 개최하는 국내 회원 및 신인 설계 작품 전시회를 견학하여 자국의 건축 설계 작품과 우리나라의 작품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본 협회 회관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전시회에 출품한 학생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개요 설명과 상호의견 교환등 건축 실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갖고 현상에서도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 학생작품 전시회



▲ 숨겨놓은 장기 모두 내 놓고...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학생잼보리대회



▲ Hand in Hand. 영원한 우정을 위해



▲ 금방의 집(?) 즐거운 숙소



▲ 식사는 항상 즐거워



▲ 영간 실타레를 즐겼!

이어서 본 대회의 공식 행사를 마치는 ACA-3 폐회식에 참석하였다. 여기서도 초록은 동색이라 하듯이 참가 외국 학생들은 자국의 대표단들이 있음에도 국내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폐회식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 사진을 찍는 등 그간 며칠안되는 시간이었음에도 학생들끼리 함께 행동하는 우정을 보여주어 폐회식 행사에 참가했던 국내의 건축사들로부터 이목을 집중받기도 하는 것을 볼때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11월 11일(금)의 관광은 올림픽 시설물, 비원, 민속촌으로 계획되어 2개월여전에 160개국에서 모여 한마당 잔치를 벌였던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시작으로 건축 관광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학생들이 전 스케줄에 참가하지 못하고 오전 행사에만 참가하고 출국하게된 것이 못내 아쉬웠으며 서로 헤어지기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고도 배웅도 제대로 못해 주고 시간에 쫓겨 다음 코스로 이동하여야만 했던 점 못내 아쉽다. 민속촌 관광을 마치고 연수원에 돌아와서는 내일이면 서로 헤어진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촐한 파티로 학생 잼보리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상호 선물 교환으로 진행되던 숙연한 분위기가 종래에는 노래자랑 등 장기자랑과 디스코 타임으로 이어지는 젊은이들의 축제로 시간 가는줄 모르고 밤늦도록 여흥을 만끽하는 것을 볼때 그동안의 피로를 잊을 수 있는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이 5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2회 건축학생 잼보리를 돌이켜보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음에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것은 무엇보다도 모든것을 감내해 준 35명의 외국 학생들, 개성과 식성 특히 풍습이 다름에도 불평한마디 없었다는 점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학교 수업의 결손 등의 지장이 있었음에도 대회를 위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 31명 모두에게 감사한다. 또한 행사 장소가 경기도 신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강의 등에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본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대학교수님을 위시한 잼보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홍국생명보험(주)연수원 양성종과장의 직원 여러분, 럭키금성트윈타워의 회성산업(주) 임종우씨 등과 특히 개회식 사회자로 수고한 김영범(한양대), 이영경(연세대)학생, 학생회장으로 수고한 김일규(한양대), 이소진(연세대)학생, 특히 협회의 전담요원으로 행사전체의 기획과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주고 학생들과 대회기간동안 숙식을 같이한 金明顯 과장에게 또 참석한 각 대학의 대표 학생들 모두에게 이 공을 돌리고 싶다.



Sri 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ACA-3 大會 開催後 會員國 反應

Dec 1988

Mr. A.

in behalf of KIRA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made for the ARCASIA Meeting and the ACA-3 Congress.

The Congress was not only a success as far as the quality of the work of the people and the programme was concerned, but also a success in terms of the dynamic quality of the country's architecture.

I am sure to be proud of your achievements and we will

Dear Arch. Yeang,
My heartfelt
very successful
As the Congress
one bright feast
Congratulate
Deputy Chairman

25 November 1988

Mr. A.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41-55 Sencho-dong

Seongnam-Si

Seoul

Korea

Dear Mr. Kie-Tae,

We write to congratulate you on the excellent arrangements made

you and your team at KIRA, both for the ARCASIA Meeting and the ACA-3 Congress concluded recently in Seoul.

The President of the KIRA, Archt. Lakshman Alwis has briefed our Council

on these successful events and the Council has directed us to offer

our felicitations both to Mr. Song, Kie-Tae and yourself.

송기덕 귀하,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카시아를 대표하여 귀하와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모든 분들에게서 배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 덕분에 서울 방문이 편안하고 즐거웠으며 ACA-3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금번 대회는 아카시아 행사 가운데 가장 유익한 대회였으며 각
회원국 협회간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카시아 회장
Kenneth Yeang

송기덕 귀하,
본 협회의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서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ACA-3 대회 준비를 위한 귀하의 야심있는 노력으로 인해
학술 토론회 및 아카시아 이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귀 협회의 ACA-3 준비 및
진행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귀 협회에서 이미 정해 놓은
기준으로 인해 본 협회에서는 차기 대회를 위한 준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협회 및 아카시아를 대표하여 귀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카시아 신임 회장
Rusi Khambatta

Dear Mr Song,

I am writing to express my personal appreciation and that of Arcasia Council to thank you and KIRA for the gigantic effort, goodwill and hospitality that all of you have taken into making our stay in Seoul extremely comfortable and our Council Meeting and ACA-3 a tremendous success.

It is readily acknowledged that ACA-3 is the most congenial of our events and it has contributed enormously to bringing our member Institutes closer together.

I know that you have personally put in much effort into it and I trust you will accept our gratitude and thanks for all you have done.

Yours sincerely,

KEN YEANG
CHAIRMAN ARCASIA

Dear Song,

I have to thank you a great deal for making our stay at Seoul so very comfortable and pleasant.

You had a great role to play as a Convenor of ACA 3 in making this conference as well as ARCASIA council meeting a great success.

My heartiest congrtulations to you.

Everyone I had a talk with were greatly impressed by your arrangements and with the standards already set by you, we shall have to work quite hard for the forthcoming ACA 4 in India.

Thanking you once again on behalf of the Indian Institute of Architects, ARCASIA and myself,

Yours sincerely,
(R.S. KHAMBATTA)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성공적 행사 진행에 찬사를...” ”

송기덕 귀하,
금번 ACA-3 대회는 실로 이제까지의 아시아 건축사 대회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논문들이 대단히 우수했으며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귀하와 귀 집행 본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ACA-3 대회는 언제나 제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의 밤 개최시 한국의 막걸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은 귀하와 Dr. Oh, 그리고 Mr. Park 의 그 날 저녁 노래를 아직도 회상할 수 있으며 제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귀하와 귀 협회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카시아 고문
Ronald Poon

송기덕 귀하,
본인 내외는 귀 협회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본국에 도착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귀 협회에서 주최한 ACA-3 대회 및 제9회 아카시아 이사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협회에서 배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까지의 아시아 건축사 협회(ACA)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회로 이끌어 주신 귀하와 귀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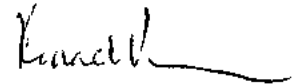
아카시아 고문
Dato Kington Loo

안기택 귀하,
본인은 귀하의 열려 덕분에 무사히 본국에 도착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지난 번 개최되었던 ACA-3 대회시 귀하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대회는 본인이 지금까지 참석하였던 대회중 가장 훌륭한 대회 가운데 하나이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훌륭한 대회 준비 및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방콕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UIA 회장
Rod Hack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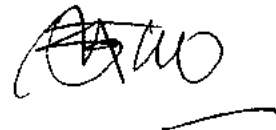
Dear Mr Song,
ACA-3 is truly the best attended and the best presented Congress Arcasia had so far. The quality of the papers was superb and the atmosphere of the Congress warm and friendly.
I would like to thank you and your steering committee for the unfailing hospitality. ACA-3 will always be a fond memory for me.
Particularly the evening sing-song session, the Korean rice wine and your ever present smile. Even now I can still recall the lovely songs you, Dr. Oh and Mr. Park sang that evening, it will always be in my memory. Thank you again for a most enjoyable sejour.
best regards,
Yours sincerely,

Ronald Poon
ARCASIA ADVISER



Dear Mr. Song,
Now that my wife and I have returned home we have had the chance of reflecting on the splendid success of ACA-3 as well as the 9th Arcasia Council Meeting hosted by KIRA.
All I would like to say once again is our grateful thanks for KIRA's hospitality and to congratulate you and your team for hosting what must be the best ACA so far.
With kind regards.

Yours sincerely
Dato Kington Loo
ARCASIA Adviser



Dear Mr. An
Now that I have returned to Engl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most warmly for the splendid conference last week, and for your marvellous hospitality. It was certainly one of the most enjoyable conferences I have attended, and I thought a great success. I was also very glad to have the opportunity of seeing your splendid city—and greatly admire the progress you are making.
I hope we shall meet next year in Bangkok.
Thank you again.
Yours sincerely

ROD HACKNEY
UIA President



송기덕 귀하,
ACA-3 대회 기간중 배풀어 주신 귀하의 친절과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ACA-3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와 귀 협회의 많은 동료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본인은 귀국 방문 기간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귀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금번 ACA-3 대회가 대단히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회를 준비하고 이끌어 주신 귀 집행
본부의 아끼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물론 모든
참가자들이 이와 같이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귀하께서 귀 집행 본부의 모든 분들께 본인의 감사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은 조만간 귀국이나 혹은 귀하께서 본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귀하를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청연사
C.B.Wilson

송기덕 귀하,
금번 ACA-3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귀하와 귀
집행 본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을 ACA-3 토론 연사로 초청하여 주신 것과 본인의 방문
기간중 배풀어 주신 귀하의 친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토론연사
Ejaz Ahed

안기태 귀하,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ACA-3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귀하와
귀집행 본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협회 회장인 Mr.Lashman Alwis 께서는 ACA-3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본 협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귀하와 송기덕씨께 축하 전문을 보내는 바입니다.

스리랑카 건축사 협회
Elmo de Silva

Dear Mr.Song

How can I thank you for all your many personal
kindnesses during the Congress?

You were extremely generous to me in so many
ways and at a time when you had such a lot of
different things to deal with.

I am very grateful indeed for everything you did to
make my visit to Korea so enjoyable—I feel proud to
have taken part in the congress and I am very glad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you and so many
of your colleagues. I met a number of remarkable
people in Korea and that helped me to appreciate
why it is such an outstanding country.

I thought at the time, and I still think so, that the
conference was a great success. Much of that was
due to the very skilful and thoughtful way it had been
organised—I'm sure all the participants would agree
that the arrangements were absolutely excellent. I
should be grateful if you would pass on my warmest
thanks to all the members of your steering committee.
I hope that one of these days I may meet you again,
whether in Korea or i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Britain.

With very best regards and again, many, many thanks
Yours sincerely

C.Barrie Wilson

My dear Song, Kee Duk

Im writing to congratulate you and your committee
on the very successful holding of ACA-3 in Seoul,
Korea which I had no doubt as to your ability to host
the event it went far beyond my expectation. My
congratulations to KIRA.

Once again thank you for inviting me as panelist and
the warm hospitality extended during our stay in
Seoul. May your country continue its path of
prosperity.

With kindest regards.
Ejaz Ahed(Panelist)

Dear Mr.An,

We write to congratulate you on the excellent
arrangements made by you and your team at KIRA,
both for the ARCASIA Meeting and the ACA-3
congress concluded recently in Seoul.

The President of the SLIA, Archt. Lakshman ALWIS
has briefed our council on these successful events
and the Council has directed me to offer our
felicitations both to Mr Song, KeeDuk and yourself.
Yours sincerely,

P Elmo J de Silva
Hon. Secretary, SLIA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송기덕 귀하,
 금번 ACA-3 대회가 끝났으니 귀하께서도 지금은 쉬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 역시 ACA-2 대회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ACA-3 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본 협회의 모든
 참가자들이 보람되고 즐거운 방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쿠알라 룸푸르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인에게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건축사 협회 회장
 David Teh

안기태 귀하,
 본 협회를 대표하여 ACA-3 대회시 귀하와 귀 집행 본부는 물론
 귀 협회의 모든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대회는 행사에서 뿐만 아니라 귀국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에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도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홍콩 건축사 협회 회장
 James Kinoshita

송기덕 귀하,
 ACAE 를 대표하여 금번 ACAE 회의 및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한 귀 집행본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11월
 개최된 ACA-3 대회 준비를 위해 귀 집행 본부를 이끌어 주신
 귀하의 지도 역량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대회는 가장 유익하고 즐거운 행사였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본인이 ACA-3 대회 토론 연사 및 결의문 채택 위원으로
 활약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CAE 회장
 Lochi Gunara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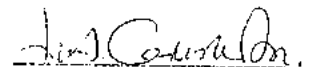
Dear Mr. Song,
 THI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1988-SEOUL, KOREA
 You must be taking a well deserved rest after the
 months of hard work for ACA-3.
 Having organised ACA-2, I know what you must
 have gone through. ACA-3 was a great success. All
 of us from PAM who were there found it meaningful
 and enjoyed ourselves in Seoul. I am sure you must
 be pleased with the results. I congratulate you and
 thank you once more.
 Should you be in Kuala Lumpur,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We should keep in touch.
 Best wishes.
 Yours sincerely

David Teh
 PAM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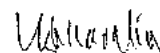
Dear Mr. An
 On behalf of HKIA, I would like to thank you, your
 committee and KIRA for giving us a very warm
 welcome and extending to us a most generous
 hospitality.
 The Congress was not only a success as an event,
 but also a success to show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dynamic quality of your country, the rich cultural
 heritage of your people and the tremendous progress
 you have made in the world of architecture.
 You deserve to be proud of your achievements and
 we congratulate you.
 Yours sincerely

James H Kinoshita
 HKIA President



Dear Mr. Song,
 I write on behalf of the ACAE to convey thanks to
 the ACA-3
 Steering committee under your Chairmanship for the
 very exceptional arrangements made to
 accommodate the ACAE Meeting and the Students
 Jamboree. May I congratulate you on the leadership
 you have provided to your Committee to host all the
 ARCASIA events earlier this month.
 The congress was a most valuable and enjoyable
 event. I was honoured to function as a panelist and a
 member of the resolutions committee.
 With best personal regards,

Lochi Gunaratna
 Chairman ACAE



송기덕 귀하,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ACA-3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ACA-3 대회장하신 귀하의 훌륭한, 지도 역량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공헌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음에
따라 귀하께서 아카시아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하와 귀 협회의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을 ACA-3 결의문 채택 위원 및 레포터로 초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대회는 본인에게 대단히 유익한
대회였음은 물론 무척 즐거웠던 대회였습니다. 귀하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레포터
Rebecca Tobia

김지덕 귀하

아직도 ACA-3 의 멋진 추억과 인상에 시달린 답니다. 귀하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ACA-4 도 한국에서 또 했으면 합니다.(아마
이렇게 된다면 ACA-3 때 고생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지겠지요)
ACA-3 를 멋지게 치른 이 행사에 대하여 다시한번 치하와 축하를
보냅니다. 모든 회의의 순서가 정말 그림같이 질서정연했고
사교모임은 우리를 영원한 동지로 만들어준듯 합니다.(우정의 밤
행사)
ACA-3 는 우리의 기억에서 오래 남을 것입니다. 자주 귀하의 멋진
설계자들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회의개최를 성공시킨 한국의 건축사 모두에게 우정의 뜻을
전하고저 이 글을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

김지덕 귀하

귀국의 ACA-3 회의에 참석했던 필리핀 대표들 모두가 귀국의
분에 넘친 환대에 감사합니다.
ACA-3 회의는 아주 만족할만큼 성공적이었으며, 아름다운
서울시의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보이란 홍

Dear Arch. Kee Duk Song.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for a very successful
and enjoyable ACA-3! As the Congress Chairman,
this is certainly one bright feather in your capacity.
Congratulations too for being elected Deputy
Chairman of Arcasia for it is a significant recognition
of your dedication to the profession from one's peers
in the Asian region. I am happy for you and KIRA for
you so greatly deserve the honor.
I wish to thank you too for inviting me as a member
of the ACA-3 Resolutions Committee and as a
Rapporteur. It has involved me in ACA-3 in some
meaningful way. I did enjoy the participation
tremendously.
Most of all, thank you for the hospitality and the
magazine "Olympics Architecture". Best regards and
Merry christmas.

Rebecca Tobia(Rapporteur).

DEAR JOSEPH!

We're still trying to recover from the hangover (ACA).
Despite your vehement objection we have decided that
ACA-4 should be in Korea again!! (I know you will try to
disappear if that ever became true.)
Chitok, congratulations for a job well done. And for seeing
to it that all our arrangements were in order.
It was our pleasure & honor to be your co-emcee for
those nights.
We remember ACA-3 with fond memories-of old
friendships and new ones and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soon. Please extend our thanks to the rest of
KIRA whom we may not have met but were part of this
truly successful affair. Merry Christmas!

CHUA CHIACO

Dear Joseph.

Thank you for the wonderful hospitality you have
accorded the UAP delegation and myself.
The ARCASIA-3 conference was very successful. I am very
impressed too of the beautiful city of SEOUL.
Merry christmas to you and your family.
Sincerely.

FRDILAN

Dear Joseph.

Thank you for the
wonderful hospitality
you have accorded the UAP
delegation and myself.
The ARCASIA-3 conference was very
successful! I am very impressed
by the beautiful city of SEOUL.
Merry Christmas to you and
your family.

Dear Joseph,

I am writing to congratulate you and your commit-
tee for a very successful holding of ACA-3 in Seoul,
which I had no doubt as to your ability to be-
cause it went far beyond my expectation
congratulation to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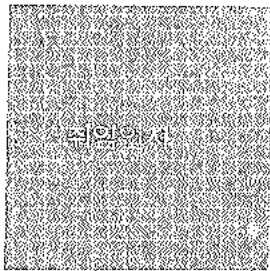
I hope you will be documenting the proceedings
Congress and hope to receive a copy. I hope you like

DEAR JOSEPH.

We're still trying to recover from the hangover (ACA).
Despite your vehement objection we have decided that ACA-4
should be in Korea again!! (I know you will try to disappear
if that ever became true.)
Chitok, congratulations for a job well done. And for seeing
to it that all our arrangements were in order. It was
our pleasure & honor to be your co-emcee for those nights.
We remember ACA-3 with fond memories.

DEAR JOSEPH.

We're still trying to recover from the hangover (ACA).
Despite your vehement objection we have decided that ACA-4
should be in Korea again!! (I know you will try to disappear
if that ever became true.)
Chitok, congratulations for a job well done. And for seeing
to it that all our arrangements were in order. It was
our pleasure & honor to be your co-emcee for those nights.
We remember ACA-3 with fond memories.



新任 本部任員과 支部長에게 듣는다

신임이사 취임인사

理事
李種完



- 1937년생.
- 홍익대학교 건축미술과 졸업.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
- 1, 2, 3 대 서부분소장 역임.
- 서울지부 은평분소장 역임.
- 서울건축사사무소 대표.

본인은 신임 회장님을 보필하는 이사로서 취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국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협회 회원으로 20여년간의 경력과 그간의 한정된 업무 범위내에서 전전공공하던 시절을 거울삼아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뚝 각오로 이사직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취임하고 보니 협회 살림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 회원을 위하고, 협회를 위하는 이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물어가는 1988년도는 국가적으로 민주화의 길을 가속으로 질주하고 있으며 地自制 등 큰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정에 우리 건축사 협회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정부의 간섭에 앞서가는 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사상의 정립을 통감하면서, 그간의 어려운 여건으로 상당한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던 업무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길과 전국 시도지부의 격차 없는 업무와 균형을 원활히 이루는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외무는 다하면서도 업무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는 완전히 일원화되어야 하며, 우리 협회내의 전회원이 한몸이 되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이사로서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 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협회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 드립니다.

理事
朴永憲



- 1939년 전남생.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광주직할시 건축위원
-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직할시 지부장 역임.
- 무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저를 대한건축사협회 理事로 선임하여 주신 宋基德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년의 역사와 2천9백여 회원의 대협회의 運營에 참여하는 理事라는 莫重한 책임을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 선배 이사님들께서 남기신 업적을 음미 하면서 제가 어떻게 협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지 공부하는 가운데 방향을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명예를 빛내고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권익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이나마 아끼지 않고 바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宋基德 회장께서 所見發表時 강조하셨던 몇가지 重点施策이 빠른 시일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제가 소속하여 있는 지방적 여건이나 업무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본부에 충분한 의사가 전달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대도시와 지방이 형평을 유지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지방화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헌신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한 두 사람이 아무리 의욕을 앞세워 기운차게 뛰다 할지라도 회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뜻을 통하고 마음을 묶어 단결력을 과시해 주시고 앞서 뛰는 사람을 열심히 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理事
趙相鎬



- 1943년 1월 20일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경기도 지부장 역임
- (현) 건축사 사무소 삼성건축 대표

또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무거웠던 짐을 벗고 좀 쉬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미진한 일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내일을 토론하자면 일은 끝난 것이 아닌건가 봅니다.

지난날 경험을 토대로 신임 송기덕 회장님을 보필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보니다마는 산적한, 일들은 언제쯤 끝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첫째 화합하는 일입니다. 2천8백여 회원이 각자의 주장과 이해만 따진다면, 그것은 서로의 뼈를 깎는 「아픔」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갈길은 화합을 위한 자숙이며 집행부의 가장 큰 임무는 회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과 공동체로서의 「멤버쉽 membership」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연합체화 하는 일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상술할 기회가 있겠으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회가 결성되어 상호이해와 연결과 체재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공동 관심사는 구체적으로 대정부 또는 법률상의 모순점에 대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과제가 많으나 중단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원 각위께서 배전의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 하시는 사업과 덕내 안녕하심을 삼가 기원합니다.

理事
鄭煥鎭



- 1938년 경남출생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건축사사무소 미래 개설
- 건설부 표준주택설계위원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지부장 역임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여겨지는 이때에 본 협회의 이사의 직을 맡아 그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할까 싶어 큰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지금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날 평회원으로서, 또 몇번은 대의원으로, 지난번까지는 부산직할시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직해 오는 동안 본회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여 온 바있는 장본인인 본인이 집행부의 일원으로 이사의 자리에 취임하면서 더욱 두려움이 커져만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마 종전까지는 집행부를 비판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은 현실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하고 과거의 경험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결함없는 지표를 도출해 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시킬 수 있고 우리는 항상 보다 발전적인 사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관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집단의 계층에 속해 있을 때, 피해집단의 계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집단의 계층에 속해 있을 때에도 이익으로부터 소외된 감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기달성에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회원이나 집행부의 요원이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기 이전에, 자기와 상대가 되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먼저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협회속에서 하나라고 하는 동질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유발되는 최초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요원이 각기 여러가지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점을 발견하고 생기는 意識, 바로 異質體 의식인 것입니다.

나는 협회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행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이질체 의식을 불식시키는 데에 나의 경험과 슬기를 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하여 건축사협회라고 하는 우리 집단의 공동목표를 찾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하여 일하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적응할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하고 탄력이 넘치는 협회로의 기구개편을 하고자 하는 신임 송기덕 회장의 뜻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적극 도울 것입니다.

둘째, 建築法과 建築士法은 우리의 활동영역과 이익이나 손실을 정하게 됨은 물론, 국민의 주기생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골격을 세워 고도산업사회의 세분화되어 가는 다른 전문분야와 함께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는 지나친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그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사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우리의 이익이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는 질이 좋은 전문인의 기술적인 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변천하는 사회행태에 걸맞게 개선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셋째, 협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전적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지불될 때에는 지불목적이 뚜렷해야 지불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면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 효과가 세입재원을 조달하는 전 회원에게 고루 돌아가야 예산집행의 행위가 끝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즉 사업성과를 우리의 예산으로 사들여 지출된 금액만큼의 사업효과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일들을 수행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회원·임직원 모두가 대단히 강한 同質體 의식을 발휘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監事

吳雲東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대한 건축학회 이사 역임
- 한국주택은행본점 및 전산실건축 본부장
- 상기은행 명동 지점장 역임.
- 한국주택은행 정년퇴직
- 오 건축사사무소개설
- 서대문구 규정자문의원



부덕한 이 사람이 감사의 중책을 맡고보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본 협회는 그동안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하여 온 것은 여러 선배회원님의 부단한 노력과 열의로써 이루어져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가 우리회원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회활동에 뒷받침하여 주었으며,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을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 민주정부가 출범하고 올림픽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도 여러 여건에 힘입어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도 창와성을 발휘하여 법개정 및 제반 제도등을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이와같은 사항을 뒷받침하는 업무개선과 활성화에 감사로서의 직언을 집행부에 건의하겠으며 벌을 주고 괴롭히기 보다는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모순이 없는지, 경비의 절감등에 보완개선하는 지도감사로 목표를 두고 임기 2년간, 협회발전과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결심입니다.

이같은 제문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본 협회가 보다 나은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監事

金一榮

- 1939년 서울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에너지분과위원장 역임



不肖 이 사람을 제23회 정기 총회에서 監事로 선임하여 막중한 업무를 맡기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회원께서 직접적으로 협회나 지부의 업무집행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는 실정을 대신하여 잘 살펴보아 달라는 뜻으로 알고 監事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협회임원의 일원이지만 감사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회의 의결기관과 사무집행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모든 업무의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여 事後의이 아닌 豫防的 조치를 取하도록 하여 協會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코자 합니다.

다시말하면 協會가 주어진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서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총회를 봉하여 결의된 사항을 명심하여 그바라는 뜻이 加減 되거나 굴절되어 시행되지 않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저의 능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어느정도의 충족을 드릴 수 있을지 본인으로서도 무척 두려운 맘 금할 수가 없으며 협회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신 여러 회원님들과 前任 감사님들의 지도편달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서울特別市支部長

李永熙



- 1938년 경북생.
-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역임.
- 서울지부 부지부장 역임

미려한 제가 1천3백여 회원의 대변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지, 스스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회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저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백마디의 웅변보다 진실된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보람과 모두의 성취를 도출해보고 싶은 욕구가 저를 또한 이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는 과거의 혼돈과 안일의 늪에서 벗어나, 민주적 질서와 합리적 사고를 정착키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23년간의 연륜을 거둬들여 그 양적으로는 여타 단체가 부러워할 만큼 성숙하였으나, 아직도 전문직능단체로서 사회적 요구를 현명하게 수용하고, 전체구성원의 간절한 바람을 능동적으로 대변하여 왔다고 말하기에는 -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내 건축사가 자기의 의사를 대변하는 가장 근원적인 길은 건축활동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품에 담긴 의지이거니와 건축과 관련한 연구, 혹은 사회활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인이 자유분방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기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그 길을 통해 국가발전의 일익을 분담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서울지부는 전문성이 침해받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시대에 부응치 못하는 법령개정을 위하여 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룩할 것이며, 건축사를 보는 그릇된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내실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사람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전문단체의 의견이 정책입안에 밑거름이 되도록 전력을 투구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회원상호간의 분파적 사고와 세대간의 단절을 일소하고 평생동지로서의 한목음이 되어야 함이 시급하며,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앞에서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말없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협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수년전부터 연합회 제도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합회제도는 중앙 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법논리로부터 재정립이 전제된 건축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재정 및 정책의 독립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협회 창립 이래 회비징수 수단으로 지속되어온 실적회비 징수제도가 존속하고 건축 발생지 신고제도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연합회 제도 추구는 공염불이라 생각합니다. 현행의 도서신고 제도가 존속하는 한 협회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모성 예산채당은 막을 길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후배 회원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건축사는 이 나라 건축문화 생산주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을 걸고 우리 다같이 하나로 뭉쳐야 되겠습니다.

光州直轄市支部長

宋良浙



- 1938년 전남생.
-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한미건축사사무소 대표
- 광주 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역임

본지부 제2회 정기총회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본인을 지부장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보니 여러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받아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인이 하여야 할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임기동안 몇가지 지표로 가지고 지부를 운영할 계획임을 다짐하면서 취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협회가 해를 거듭하며 회원 스스로가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사명감을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에 따라 건축사의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물이해한 요구나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건축사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재임기간 동안 건축사가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활동함으로써 존경받는 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광주 건축사회원 실계작품전과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회원의 자질향상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재임기간동안 어렵고 복잡한 일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당면한 현안 문제점은 물론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회원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쟁점사항을 원로회원 및 여러 회원과의 상호의견 교환으로 지혜를 모으겠으며 대외 쟁점사항은 대판청 방문과 간담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내실있는 지부운영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업의 발달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업무상은 매년 증가하는 좋은 여건이나 회원 사무소의 운영 실태는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물욕을 증시하는 일부 회원의 덤핑에서 비롯되어 많은 동료회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재임기간동안 보수규정을 엄수토록하여 설계도서의 질적 향상은 물론 회원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사무소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넷째, 본 지부가 창립원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어서 어려운 점이 산적되어 있으나 독립 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미려하나마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본인은 본지부 1백10여명의 회원과 대동단결하여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회원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지도는 물론이요 기탄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회원여러분이 갈망하시는 소원 성취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京畿道支部長

李一潤

- 1940년 경기생
- 한림 건축사사무소 대표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수원시청 근무
- 경기도지부 10, 11, 12대 간사
- 경기도청 자문위원
- 수원시 건축심의 위원



지난 10월 28일 경기도지부 제23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지부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박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회 창립 23년의 성년으로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감회가 새로울뿐 아니라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역대 임원님과 회원님들이 오로지 회생과 봉사의 일념으로 사심없이 협회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신 결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 본인은 선배 회원님들께서 이룩하여 놓으신 터전위에서 그동안 지부 간사직으로서 몸 담았던 체험과 2백60여 회원님의 지도편달을 수렴하여 임직원과 더불어 겸허한 마음으로 지부발전은 물론, 회원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본인은 임기동안 본부와 각지부간의 유대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당지부의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것이며,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하게 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지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팽활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11개 분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지부 분소간의 업무연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소사무소에 필수밀리 도입을 실현함으로써 업무의 신속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협회는 회원을 위하여 구심체적 역할과 그 기능을 다하고 회원은 주인으로서의 협회육성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올바른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江原道支部長

趙貞鎬

- 1930년생
- 현대건축사사무소 대표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제 4,14대 지부장 역임



지난 2년동안 지부장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나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못미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지난 제23회 정기총회에서 다시 지부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지부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각오입니다.

시대의 변화로 민주화에 힘입어 지방 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는 1989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건축사업무 수행에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서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되어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 공간을 보다 정서적이며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전문 건축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도 선진국 대열에 서서 우수한 건축문화 발전과 회원 복지향상에 보다 알찬 성장을 위하여 품위 보존 및 자질향상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수입된 업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기여하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도 이제는 개인적인 생업 관념에서 벗어나 공생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의식구조를 전환하여 단합된 분위기로 무분별한 업무수탁을 삼가, 전문지식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건전한 건축풍토를 조성하는데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위회원을 단속하고 성실한 회원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사무소 운영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 업체질서를 확립하고 대내외 유대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건축사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여된 본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고가 있으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全羅北道支部長

俞鐵鉞

- 1947년 전북생.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전북지부 총무간사 역임.
- 전북지부 감사 역임.
- 전주청년회의소 회장
- 현 건축사사무소 모아이 대표



민주화, 자율화라는 일련의 시대적 조류속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스스로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한껏 기상을 펴치고, 한없는 발전의 가능성을 회고하고 있는 세대하에서 우리 건축사들도 겸허한 자부심으로 시세를 잘 판단하고 활용하여 생업으로서의 건축사업의 본질 및 직업적인 양심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지부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변혁 속에서 전국 최초로 건축사사무소 보조사 노동조합이라는 생소한 법적단체의 결성에 따른 노·사분규 과정을 겪는 동안, 본지부회원들은 새로운 자기성찰 및 동기부여의 충분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찰해 볼때 우리 건축사들도 과거의 틀이나 전형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다 신축성있고 탄력성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양식을 키워나가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회원들의 총화와 단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 보다는 '우리'라는 한가족의식의 함양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부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통감하면서 회원의 복리증진 및 회원총화를 위하여 본지부의 신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본인의 임기동안 집행부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회원과 협회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제도나 전통을 적극 개발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불합리한 제도나 전통은 다소의 진통이 따를지라도 과감히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부장으로서는 임기 첫해는 우선적으로 설계도서 검토업무강화 및 대행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또한 대행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제분제점을 수시로 파악 점검하여 사전에 문제발생 소지를 제거하여 근본적으로 회원업무의 질적향상 유도 및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더불어 시·도복지회의 적극적인 활성화로 내실있는 회원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췌록 지금과 같은 변혁시국하에서 우리 건축사들도 시대상황에 새로운 인식으로, 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굳건한 반석의 토대위에서 전회원 및 협회발전의 새로운 장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慶尙北道支部長

崔種培

- 1934년생 경북
- 최종배건축사사무소 대표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경북지부 간사 및 포항분소장 역임
- 포항시 건축위원회 위원



지난 10월 27일 제23회 지부 정기총회에서 본인을 제15대 지부장에 당선시켜 주신데 대하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지부는 대구직할시 지부가 분리되면서 적은 회원으로서 출발하여 이제는 어언 중진 지부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역대 지부장 및 지부인원과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희생적인 봉사의 결과로서 성장하여 왔다고 볼때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협회에서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금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며 회원이 원하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을 개정시키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때에 본인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여 주심에 본인에게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그 뜻을 받들어 각지부와 협조하여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 회원 스스로가 건설화 운동에 참여 함으로써 권익 보호 및 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지부 자체에 복지연금제도 및 퇴직금 적립 제도를 신설하여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간담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여 지부 운영전반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성취시키는 일은 지부장 혼자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회원 상호간 단결할 수 있는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거듭합니다.

慶尚南道支部長
金東準

- 1934년 부산생
- 건축사 사무소 대흥
- 부산대학교
- 민주산악회 진주지부장
-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
- 통일민주당 진주시지구당 상임고문



우리는 오늘 사회의 구조적 격변기를 맞이하여 역사의 한 장이 고비를 잘 넘기느냐, 아니면 새로운 불씨를 잉태하여 예측할 수 없는 민족의 오욕된 유산을 후세에 남기느냐 하는 실로 막중한 책무를 안은채 그속에서나마 창작과 조형예술인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고 보람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대우를 보장 받지 못하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때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자책이 앞서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품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점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내부의 결속을 굳건히 다진 연후에 우리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 상호간의 권익을 우리들 스스로 보호해주는 풍토를 조성하고 업무수주를 위한 비열한 저자세를 지양 하는 등 지부회원이라고 하는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되새겨보고 땃땃한 전문인으로서의 품위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믿고 선임해 주셨고 지부조직체속에 잔존하고 있는 미세한 잔금이나 먼지를 손질하고 잘 정리해 보라고 하는 하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충실하게 소화시켜 나가느냐, 마음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부담으로 전주, 이리, 대구, 부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원들의 노동쟁의를 앞으로 우리들 지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가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우리 경남지부에서도 노조가 결성 되었다고 하는데 노동쟁의 그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도 없으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하더라도 영세한 회원들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개개인의 사무실마다 1백 20여개 사무실을 누구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며 협상에 누가 임할 것이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할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이 무거운짐에 대해서 아무런 묘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무능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사 우리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 등 잡다한 행정규정의 개폐문제 연구에 있어서 일선의 소리, 우리들의 아픔의 목소리를 본회에 전달하는 가교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때 우리들의 바라는 바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힘차게 두드릴 것입니다. 또한 유능한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많은 평범한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지방화시대를 앞둔 민주사회의 조직운영의 요제라고 볼때 대소사를 막론하고 부지부장님, 간사님 그리고 전임 지부장님과 임원님들을 위시해서 많은 회원님들과 더불어 지부를 꾸려 나간다는 자세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자주 뵈옵자 못하는 지부 회원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濟州道支部長
李世暉

- 1938년 제주출생
-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이세환 건축사 사무소 대표
- 서귀포분소 4~8대 분소장
- 서귀포시 건축위원회 위원
- 남제주군 건축위원회 위원
- 제주도지부 제12대 지부장



이번 제주도지부 제23회 정기총회에서 부덕한 본인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역대지부장님께서 쌓아 올린 업적을 거울삼아 회원의 권익신장에 미력하나마 노력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회원간에 형성된 친목과 신뢰를 계속 유지 및 정착시킴으로써 서로가 믿는 가운데 경쟁없이 업무를 수입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 기울여 회원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복지회 조직도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는 지부회원으로 하여금 전진 외국의 건축계 및 문화유적지를 직접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추진하여 창작 활동에 자료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본인 재임기간 중에는 회원전립 추진을 활발하게 하여 우선 부지만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회원업무 관련 부서와는 꾸준한 대화를 확대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리로부터 회원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건축설계의 질적향상과 감리업무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므로서 건축사 사회에 신뢰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회원의 권익도 신장되리라 믿어집니다. 지부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격의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全羅南道支部長

金仁模



- 1916년 전남 출생
- 전남 송정공업학교 졸업
- 순천시 민회의회 외장 역임
- 김인모 건축사사무소 개설
- 대한건설협회 전남지부장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장 (14대) 역임.

다사다난했던 戊辰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이제 희망의 새해 己巳年을 맞이하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이 맞는 가사년에는 회원여러분의 뜻하시느바, 소망이 기필코 성취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은 지난 11월 28개회한 시·도지부 제23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지부장으로 추대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난 임기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고 회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협회를 운영할 각오입니다. 이에 본인은 앞으로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갖고 지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분소운영을 보다 강화하는데 최대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분소는 협회의 최말단 조직체로서 협회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회의 건전한 발전은 곧 최말단조직체인 분소의 건전한 운영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공회 분소운영실태를 볼때에 분소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물론이요, 분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그가 맡고 있는 업무는 금전관계는 물론이요 행정적인 업무등 막대한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신분보장과 보수 등에 있어서 아무런 보장책이 없는 임시직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실정은 각시도지부가 다같이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하겠읍니다. 특히 시도지부에 있어서는 도청소재지와 관련하여(전남도청이 광주직할시 지역내에 있음)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지부의 형성자체가 타 지부와는 달리 지부직할지역회원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각 분소(목포·순천·여천)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소의 운영강화방안은 곧 도지부의 원활한 운영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분소운영강화 등의 일환으로서 분소에 재직하는 사무직원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분소사무직 정원을 도지부의 자체 정원화함과 동시에 직원임용 요건 및 신분보장과 보수등 제급여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분소사무직 양성화방안을 강구하여 1989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소장으로 하여금 책임성있는 분소운영을 도모케하기 위하여 분소운영비를 증대하여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케하여 관내회원의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지부산하 각분소상호간의 유대를 보다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시로 분소상호간의 단합대회, 친목행사, 신년회 및 송년회 등을 개최하여 각 분소 및 지부직할지역 상호간의 단합을 촉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회원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회원과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이며 지역 순회 간담회를

수시로 가져서 회원이 바라는 문제점 해결은 물론 각종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책 강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셋째로,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협회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사회의 일각에서는 건축사인 우리들에 대하여 보는 눈이 건축장작활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업종인 設計業者視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읍니다. 이와같은 사회적 인식을 달리하기 위하여 본인은 물론 각 분소장으로 하여금 각종 지역사회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의 홍보활동 전개로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에 힘을 기울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네째로, 회원의 자질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회원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면에서 건축사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주민으로 하여금 신뢰와 대접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축에 관한 세미나와 특별교양강좌 등을 개최함은 물론이요 해외선진국시찰을 통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서 회원의 자질향상으로 수준높은 건축사가 되도록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참여하여 봉사정신함양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협회의 사회적 인식제고와 시대적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는 지식인단체로서의 긍지를 갖고 사회봉사활동에 솔선참여케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을 당한 불우 이계민주택에 대한 무료봉사와 불우도민과 소년소녀가장등기 사업에 참여하여 명량한 사회기풍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모시 건전한 협회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새시대의 건축사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건축이 문화라는 길게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파루로 느끼고 있다.
아마도 일정에 나서 우리를 돌아볼 때
잊어만들이나 그것에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심각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送年三題”

—올림픽—

올해 우리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루었다.
그 어마어마함이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넘어
과연 그럴만 하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세계적이라는 스케일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우리에게는 그 실재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단순한 물리적인 크기의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한 영역의 확대는
우리를 정신차리지 못하게 하는 과도처럼
보였다.
그 엄청난 힘으로 출렁이는 축제의 터를
이루기 위해 쏟아 넣었던 에너지에는 우리의
역할도 채 못을 했다.
올림픽의 시설을 직접 다루었거나 관여한것
뿐만아니라 지금의 모양을 갖추 수 있게 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편 뿌듯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듯
정신없이 되주어 내어진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에 소홀했음으로 해서 우리의
건축을 집약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지나쳐버린 듯한 아쉬움이 그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축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건축가 두분을 그 오프닝에 앞서서
잃게 되었다. 축제의 연출에서 포커스가 될
수 있었던 주인공이 빠짐으로 해서
어긋나게된 앵글은 그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축제가 끝나도록 걸들기만 되풀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스케일이 현재의
차원을 한단계 뛰어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어찌되었든 지나쳐 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아쉬움으로, 아마도 상당한 시간을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RCASIA—

축제의 뒤끝을 마무리하듯 이런저런 건축적
행사가 뒤를 이었다.
올림픽의 시설물에 관한 심포지움, 세미나
등이 치루어지고 앞으로 치루게될
나라들에게 선배의 입장으로 역할을
하게되는 행사들이 당연스럽게 뒤따르게
됐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들을 지켜보는
마음속에 호뭇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공허한
안쓰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올림픽 경기장과 주변을 둘러보고, 고궁을
살피고 경주를 둘러 민속촌을 구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낼지도 궁금하고 호텔의
휘황한 조명속에서 벌어지는 토론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도 궁금하다. 한국의
건축이 왜 한국의 건축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그들이 갖고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애쓴 흔적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담겨져있지 않은 형태는 단순한
기술의 표현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건축에 문화라는
명제를 붙이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피루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우리를

돌아볼때 얼마큼이나 그것에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혹시 주어진고 있는 기회를 습관적인
타성으로 넘기고 있다면 우리모두 그로인한
책임에 대해 직부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되고
만다.

—작품전시회—

올해에도 예년처럼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는
작품전이 열렸다.
때를 맞추어 대학들마다 졸업작품전이
열리고 건축대전이 공개되었다. 협회지나
건축잡지에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고 글이
발표되었다. 사무소나 작가들의 작품집도
꽤나 만들어졌다.
이러한 작업들의 양을 모두 모아 본다면 아마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의 투자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효과를 이루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자위행위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투자한 모든 것이 아까울 뿐이다. 늘
그랬듯이 사진으로만 채워진 최소한의
의미조차 부여되지 못한 기성작품의 판넬들,
감각의 처리에 매달려 애만 쓰고 있는 학생의
판넬들, 마치 의무인 것처럼 이런 저런 곳을
기웃거리다 보면 결국 낙엽진 가로수의
양상한 가지만 눈에 들어온다.
어찌서 같은 일들이 매년 되풀이만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눈코뜰새 없이 일에 쫓겨서 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목적의식조차 잊어버리고 기능의
충족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의식구조
때문일까?
이렇게 공동인 일들이 집안찬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다 저렇다해서 심드렁해 보아도 결국은
우리일이나 좋아지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마음 먹어야겠지만 어떤 모임예선이 있었던
높은 분의 말씀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가라사대—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湜/ (주)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戊辰年의 建築界를 뒤돌아 보며

다사 다난했던 戊辰年이 며칠 남기지 않고 저물어 간다. 정치의 민주화가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발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與小野大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정치계(여권)에 民主主義敎育 (Training) 을 시키며 야권과 타협의 방법과 기술을 익히게 하며 진정 민의가 무엇인지를 또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民意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도록 진전되고 있고,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이 알고 싶어하던 것들이 파헤쳐지며 집권당시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앞에서 쫓쫓매는 증인들, 또 말도 되지 않는 우문을 던져 자기 스스로의 정치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의원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청문회의 질문내용이나 對答하는 방식등이 모두 질서를 잡아가고 나아지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국민의 批判力이 강해지며 결국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해의 88 Seoul Olympic 은 우리 역사상 처음 갖는 귀한 행사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誘致하고 싶어하는 Event 를 우리가 서울에서 해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세계속에서 낙후된 나라로 日本植民地下에서 해방된지 40여년, 6·25의 同族相殘의 어려움을 겪은지 30여년, 좀 잘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허리띠를 동여매며 분발하던 우리가 그것도 지금껏 南北韓이 양분되어 군사적 긴장속에서 兄弟姊妹가 오가지도 못하는 여건에서, 또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끈질긴 반대와 아우성 속에서도 올림픽을 훌륭히 치루어 과거의 어두움을 말끔히 씻어 버렸고 모두의 가슴에 마음 뿌듯함을 느끼게 했으며 특히 해외교포들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 주었고 동남아를 위시하여 우리와 유사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나라 국민들에게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꿈을 보여주었다는 것도 이번 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를 보는 그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88년도의 또다른 특징은 우리의 經濟成長이겠다. 6·25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독재와 정치의 혼란속에서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무역량이 1천억불을 넘게 되었고 세계 10교역국의 하나로 부상하여 자동차를 만들어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세계선진국에 수출하고 가난한 나라 중국 및 Africa 등에 우리 한국차를 선물로 주게되었고 가장 High Tech 에 속하는 Computer Chip 에서부터 각종 전자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로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몇년전만 하더라도 외채 5백억불이라고 하던 우리가 원화절상, 노동쟁의, 각 선진국의 수입규제 속에서

금년에도 1백억불 이상의 흑자를 내어 동구권에, 아니 많은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게 되었으니 이 '88년도야말로 신통한 한해라 아니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제 우리를 돌아보니 건축계에도 많은 변화와 진진이 있었던 것 같다. 우선 건축계의 거장 金重業先生이 자기의 마지막 작품인 올림픽상징조형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타계한 것이 못내 애석한 반면 2대 國際行사가 거행되어 우리나라 건축도 세계속의 식구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시켜 나아가는 것이 었보인다. 첫째, U.I.A Branch 의 하나로 Sports, Leisure & Tourism WorkShop 을 한국건축가협회와 일본건축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올림픽시설을 관람시키고 사후이용 또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외국에서 12나라 50여명이 참가하여 세계건축가들과의 교류는 물론, 세계속에 우리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동구권 국가의 적극적인 참가와 교환은 자못 뜻깊은 일이었다. 다만 우리 올림픽시설이 별문제는 없었지만 세계적 명작에 미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둘째로, 아시아지역 ACARCIA 대회가 17개국 300여명이 참가하여 건축사협회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대히 치러졌고 아시아의 많은 건축가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고 의견을 교환했다. 나는 이 대회에서 우연히 和蘭 Rotterdam 의 Bouwecentrum 에서 같이 공부하던 Philippine 의 Froilan Hong (현 Union Philippine Architect 의 회장)이 Pannelist 로 온것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당시 우리에게 새로운 Low Cost Housing 을 계획하는 방법을 SAR Module 로 강의하던 Proffessor Habraken (현, M.I.T 교수)이 초청강사로 내한하여 무려 17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 저녁을 같이하며 옛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들중 Philippine 친구에게 서울의 건물을 안내하면서 금년 9월에 완성된 무역센터의 Office Tower 와 전자동울(일본 Nikken Sekkei, 원도시, 정림설계) 설명하였더니

3단계가 각각 좋은 시공을 하는 것이 호모티카인
것이지 그 공법을 남기면 어떤 5년후의 현상지
면 본격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아마도 이번 두서넛 국제대회를 주최하면서
서로가 느꼈을 아쉬움이 아니었을까?

우선 방대한 Scale 에 입을 딱벌리고 또
Fast Track 방법으로 3년 6개월의
공사기간(설계포함)에 완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만하면 꽤 많은 Workmanship 등에 허를
차며 어떻게 한국사람은
자기네 (Philippe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독재정치, 비슷한 경제여건에서
올림픽을 훌륭히 치루고 또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완성에 내는지 이해가
않되며, 자기네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을
부러워 하면서 자기네들이 계획할때
여러가지 면에서 도와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Project 는 대지 약 6만여평에
무역 Center KOEX 가 8만여평, Hotel
Intercontinental 현대백화점 City Air
Terminal (공항 Bus 터미널로 비행수속과
짐을 공항까지 운송대)이 7만여평으로
모든 바이어들을 비행장에서 호텔무역상담
전시장관람 수속 등을 이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한 One Stop System 임). 내가
다른 건물(연대
100주년기념관 : 정립설계)을 견학시켰더니
그들은 우리들의 마감 및 Workmanship 도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자기네는
언제 우리를 따라올까를 걱정하였다. 최근,
우리건축업계에 기능 및 기술자들의 무성의
질저하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 모든
것을 알미울정도로 깔끔하게 해나가는 것을
옆에서 보는 우리들이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잡자는 목표가 있어 경제도
그렇지만 건축에도 많은 의욕과 자극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36년의 침략과 남북분단의
책임 등으로 화가날때도 있지만 세종지마라
할까 발전의 전기가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시된
건축가협회주최 건축대전에는 무려 281점이
접수되어 그중 70개의 작품이 입선되었고
7개의 특상 3개의 우수상과 대상 1점이
선정되어 현작가 작품중 '87년도 완성한
건물 가운데 Best 7(강석원씨의 장안빌딩,
김석철씨의 예술의 전당-음악당,
김정철씨의 연대100주년기념관, 고

김수근씨의 청주박물관, 이승우씨의
국회도서관, 조성렬씨의 연경빌딩)과 함께
성대히 전시되었고 많은 건축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람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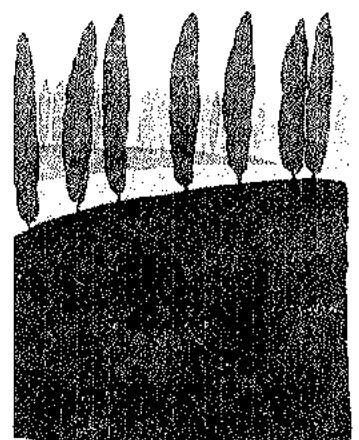
88년도의 작품은 작년보다 더 많이 또 훨씬
수준높은 작품이 들어왔으며 그 Idea 나
표현방식이 날로 향상되는 것 같고 훌륭한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띄어 호뭇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접수 마감날 18일에는
문예진흥원앞 광장이 완전히 작업장이 되어
불을 밝히고 땅에 엎드려 도면을 완성하고
Frame 을 끼고 유리를 맞추며 애인을
노와주는 호뭇한 광경은 완전히
축제분위기랄까 장터같은 분위기랄까?
또는, 과거보는 마당이랄까? 하여튼 건축에
대한 애정과 열정의 도가니었다. 작품중
더러는 Title 만 요란하고 너무 시사성이
강하고 자기주장과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없는(Design 이 없는)것들이 많아 탈락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특히 너무 큰 주제를
택하여 소화할 수 없어서 낙선하는
애석함도 많았던 것 같다. 여하튼 젊은
후배들의 좋은 경연장이며 자기를 표시하는
훌륭한 계기인것 만은 틀림없이 좀더 많은
Fresh Man (대학졸업한 신진의 실무자)의
용모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금년은 경전도 교체되었지만 우리건축계의
3단계도 회장단들이 속속 교체된 해였다.
건축사협회 회장에 宋基德씨, 서울지부장에
李永熙씨 부지부장 金榮洙씨가 선출되어
앞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건축사협회의
면모를 일신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건축사
전체의 권익은 물론, 우리 스스로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라며, 학회 역시
회장에 朴胤成씨가 부회장에 辛鉉植,
宋鍾奭, 鄭日榮씨가 선출되어 확고하게
기반을 다져가며 특히 학회건물이 준공되어
숙원을 푼 셈이고 이 건물의 건립에는 많은
건축인들이 헌납을 하였지만
李光魯전회장의 공노가 컸음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李光魯전회장이 서울시 문화상을
받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건축가들이 축하하는 바이다.

家協 또한 금년초에 金正澈(필자의 兄)씨가

회장으로 尹直根씨와 張錫雄씨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전술한바와 같이
U.I.A 의 Sports, Leisure &
Tourism 회의 건축대전 등을 성공리에 마쳐
家協도 제자리를 잡고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3단계가 각각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호뭇하지만 한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이들 3단계의 협동이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는
아마도 이번 두서넛 국제대회를 주최하면서
서로가 느꼈을 아쉬움이 아니었을까?
아울러 正林의 금년도성과 또한 적절한
작업으로 비교적 바쁜 한해를 보낸 셈이고
목표로 설정하였던 새로운 Computer SUN
Micro 3가 5대 추가로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89년 새해부터는 도면의 약
50%를 CAD 화 하려고 하며 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3명의 해외견학을 3주간에
걸쳐 실현시킨것도 성과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이해는 두루 축복받은 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다
저물어간다. 그러나 이 88년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과 기능성 및
삼재력등을 세계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귀중한 한해였으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탄생되어 세계속의
문화의 중심이 유럽에서 이 나라로 끌어오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朴舒弘/ (주) 희산건축사사무소

不失其所者久

어언 일년이란 세월이 흘렀던가.
변혁에서 시작되어서 변화로
마감되어버린 300여일이란 시간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했고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자성의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야만 하는걸까? 금년에도 말이다.
환상과 허구의 미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는 혜절의 명구는 왜 징글벨 소리가
들려야만 떠오르는 것일까.

여기 Rhodes 의 섬이 있다.
여기에서 춤을 추어라
여기 장미꽃이 피어 있다.
여기에서 춤을 추어라(혜절의 법철학
서문에서)

오늘의 시대는 忠·孝·義가 의식이 망각의
높으로 빠져버린 단절의 시대이다. 의식이
소멸되어가는 이 불만의 시대에 의식이 담긴
진정한 의식을 심고 싶은 소박한 충동 그것은
나만의 바람일까.

지식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작품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전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또한 형태속에
잃어버린 정신은 어디에 있으며 환경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자연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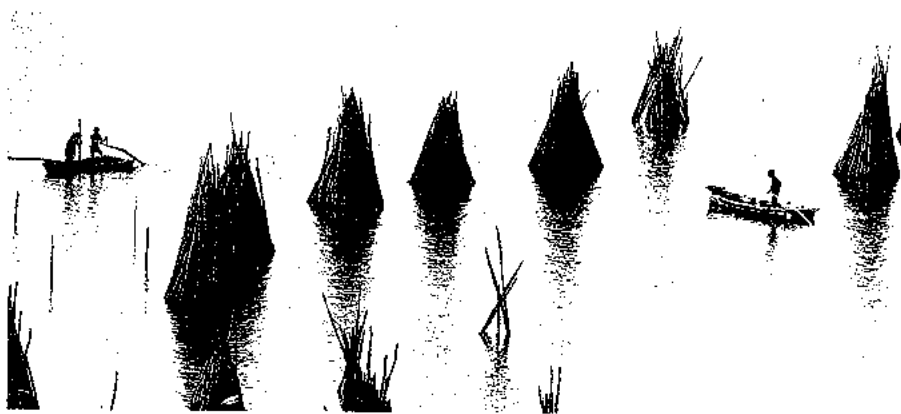
고구려, 발해의 언저리를 서성거리다 보니
어느새 발길에 차이는 우리식 절충주의에

당혹을 느끼면서도 개념과 형태, 시대정신과
로컬소스 사이를 허둥거리며 보낸 세월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는 요즈음,
필립존슨(Philip Johnson) 의 위대한
년신이 존경스럽게 느껴짐은 老子가 말하는
冲氣가 부족함이라.

옛글에, 스스로 만족할줄 아는 사람이
부자이며(知足者富) 자기의 근원을 잊지
않으면 영원할 수 있다(不失其所者久)고
하였는데 이 역시 나같은 愚者를 일깨워
주는 경구 아니겠는가.
동지의 긴 밤을 보내는 이시간, 건축의
본질중의 하나인 공간에 대한 우리 선인의
느낌을 음미하면서 다음에 올 시간을
준비해야겠다.

꽃망울이 트이듯
한동안의 그 바람의 몸부림 만큼의
내 곁의 빈 공간.
순간순간 죽어가는
나의 존재 만큼의
여백이 눈을 뜨듯 뿜리는,
끝내 내가 묻힐
한동안의, 56년 봉황의 몸부림 만큼의
그냥 남아 있는 빈 공간.

〈문턱수, 공간에서 (현대문학'64·4)〉



시간의 가속화는 루카치의 말대로
 「영원한 그 무엇까지도 제쳐버릴」지도 모른다.
 또 그토록 우리는 비판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기에는 허전한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인간이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영악스러움이 있다.

朴研心/ 건축사사무소 정원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는 12마리의 고양이

88년 을 특징지우는 것은 아마 「민주화의 진통」일 것이다. 사치만의 배달민족이 만들어 가는 역사. 암흑과 좌절의 시기에는 물론 느낄 수 없는 지금의 유리한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간의 수차례 시행착오를 비롯한 모든 일련의 시련들이 마치 그렇게, 그런 순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진다.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로 어지럽고 복잡하기만 하던 선택과 가능성들 속에서 분명히 보이지도 인식되지도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마치 어떤 필연성을 띤 나름대로의 시간의 윤리가 보인다. 예를들면 제5공화국의 출현자체가 민주화에 주는 필연성의 교훈같은 것이다. 제5공화국이 없었다면 이토록 강한 민주화의 열망은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의 변증법은 필요악도 존재해야만 하나보다. 이런 것을 한국식 운명론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꼭 그만큼의 시간의 소모를 견디어 내야만 했던 것일까. 누구는 새로운 삶은 고통속에서 잉태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의 지름길은 없는 것일까. 때늦은 지혜만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시간이 갖고 있는 논리라고만 할 것인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아돌프노가 「그러고도 시가 가능한가?」라고 말한 이후로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독재와 학살이 자행되어

왔다. 이런 일은 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의 제3세계에서 일부 지식인이나 권력자들이 민중을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이나 역사의식의 결여사이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언제나 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진영의 영역싸움의 결과였다. 인간의 상존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쟁의 경험이 있는 선진국에서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든가 모르는 척 해왔다. 하나 뿐인 지구상에도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성인병 운운하면서 채식을 주장하는 곳도 있다. 이런것의 더하기 나누기 2는 오직 신만이 가능한 일일까? 神만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과연 희망적인 조짐일까? 절망적인 조짐일까? 하이데거는 「영원함은 단순함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영원히 풀 수 없을 것같은 수수께끼 일수록 그 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에서 구한다는 것일게다. 그리스신화에서 나오는 스펅크스의 수수께끼의 답은 「인간」이었다. 물음: 처음에는 네발, 다음에는 두발 늙어서는 세발로 다니는 것은? 포스트 산업사회의 특징은 다원화, 복합화, 전문화, 정보화 등으로써 구별짓는다. 그럼으로 이같은 상황의 반영으로써 마루쿠제는 「분열된 인간」이라고 하였고 스노우경은 「두 문화(Two Culture)」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의 불가능을, 막스웨버는 합리화과정에서의 아이러니와 패러독스의 양면성을 논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고의 단순함을 추구하고 싶다. 우리의 전통사상에서도 우주나 자연의 법칙을 태극사상이나, 천사상, 음양사상으로 풀어서 대응시켜 보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치에서다. 괴테는 그의 저서인 「생물의 자연친화」에서 식물의 나선적 경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생명의 본질은 나선형의 있다」라고 하였다. 복잡한 식물의 종류나 구조를 꿰뚫어 낼 수 있는 논리는 생명의 본질에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인류의 고대문명에서 지역적,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이 나선형이다. 잉카의 53조계단에 새겨진 무늬나 영국켄트족의 문장에서도 일본의 금줄의 파진 형태 등등에서, 건축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밋의 형태는 아이 엠 페이의 프랑스 국립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인 형태로 차용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형태는 아마 오래도록 생명을 갖을 것이다. 더욱 더 단순함을 마련한다면 영원히 살아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의 가속화는 루카치의 말대로 「영원한 그 무엇까지도 제쳐버릴」지도 모른다. 또 그토록 우리는 비판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기에는 허전한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인간이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영악스러움이 있다. 88년을 보내면서 다짐해 보고자 하는 점은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혹은 모순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래서 오래도록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누구는 빛의 핵심은 靜寂에 있다고 하였는데 빛의 詩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정신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료의 탐구 등등. 그리하여 神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지름길을 우리 모두는 더듬거리며 찾아가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는 「12마리의 고양이」—프랑스 32대동화에서 나오는—처럼 넘어지고 다투고 끌고 끌이당기고 하면서.

명주군 김남명氏 가옥 研究

A Study on the Kim's Traditional Residence in Myŏng ju-gun

張順鏞 / 三成건축사사무소
by Chang, Sun-Young

1. 가옥의 배치 및 연혁

江原道 溟州郡 江東面 下詩洞 二里 36번지에 金南明가옥이 있으며, 이 건물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1985년 1월에 강원도유형문화재 92호로 지정되었으며 그후 건물의 터가 한국전력공사의 영동화력발전소 저탄장 부지로 편입되고 건물의 철거가 확정됨에 따라 1987년 4월에 본 건물의 문화재지정이 해제되었다. 예산을 마련치 못하여 이전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대신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실측조사하여 기록을 남긴다는 대안이 채택되어 동년 7월에 실측조사를 본사무소에서 시행하였다. 현재로는 이 건물이 철거되었는지는 확인치 못하였으나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없어질 건물이므로 기왕에 조사된 자료를 소개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대지는 영동화력발전소 북방 약 300m에 위치하며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평활한 분지이고 건물터로는 앞으막한 언덕이 있어 구릉의 남동기슭에 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집앞 남쪽으로는 평탄한 농경지가 남으로 뻗어 발전소에 연결되고, 동편으로는 下詩洞古墳郡지역과 연결되는 해안 농촌에 터를 잡은 농가이다.

가옥의 건립시기는 약 250년 정도로서 김남명씨의 8대조가 건립한 가옥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李朝 英祖代의 건물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다. 아마도 250년 전에 이 부근에 터를 잡았을 것이며 대를 이어가며 증축과 보수를 하면서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옥의 서측으로 이웃집 한채가 있으며 북동측으로 30m 거리에 1칸의 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동쪽으로 40여m 떨어진 곳에는 북에서 남류하는 개울이 있으며 건물의 중심축과는 오른쪽으로 45°가량 비껴서 흐르도록 건물의 터를 잡았다. 주변의 풍경은 한적한 시골의 정취가 물씬나는 전형적인 전원풍경으로서 앞에 들어선 발전소 시설만 없더라면 몇백년 거슬러 올라간 시대라 하더라도 무방할 그런 터전이다.

아직도 이런 경관을 지닌 농가가 남아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현대도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이런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애석함도 금할 수 없다. 본건물의 조사당시에도 이미 집주인은 떠나버리고 건물만이 퇴락된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살림집에 사람이 기거하지 않으면 쉬이 집이 훼손되는 현상을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2. 建物の構造 및 樣式

1. 건물의 개요

건물의 뒤쪽에서 앞으로 5% 정도 경사진 대지에, 건물의 기반을 대지의 구배에 따라 경사지게 막들로 쌓고 안채의 지붕이 팔작지붕으로 가장높고, 다음이 사랑채의 팔작지붕이고 연결부속채는 낮으막한 지붕으로 구성된 ㅍ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건물이다.

안채의 동측지붕 일부와 사랑채, 서측 부속채의 일부는 기와대신에 시멘트 골슬레이트로 덮인 곳도 있으며 곳곳에는 습기로 부식되거나 손상된 곳이 많이 있다. 바닥면적 127.14m² (38.5평)인 가옥은 별도의 담장이 없어 문만 나서면 전원이 펼쳐지는 곳에 건물의 중심축을 동남향으로 자리잡았다.

2. 平面形式

외견상으로는 ㅍ자집(뜰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이며, 이런 형은 평면구성상 외부에 대하여 폐쇄적인 형태로서 치안력이 잘 미치지 않는 중부지방과 안동문화권에 주로 분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ㅍ자집에 비해 본 가옥은 그 형태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ㅍ자집은 외부의 기둥배열이 일직선상에 고르게 배열되어 있음에 비해서 이 건물은 안채의 뒷면만 가지런 할 뿐 여타의 면은 모두 불규칙한 기둥배열을 갖고 있으며 또한 ㅍ자집에서의 방의 배치방법과도 전혀다르다.

본 가옥이 이와같은 평면을 갖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집이 당초부터 ㅍ자집의 구성이

◆
張順鏞

47년 서울생.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71) 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 을 거쳐 73년부터 삼성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으며, 본협회 전통건축분과위원회 (간사) 위원.

아니고 안채는 정면 4칸반에 측면 2칸의 양통집으로 구성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통집이란 방들이 전후 2줄로 배열된 집을 말하며 이들은 관북지방에서 주류를 이루어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서 중부내륙의 산간지대와 이 산맥의 동쪽인 관동 영동지방 및 安東의 산간에 분포되는 형태이다. 전형적인 6칸양통집의 嶺東形에서 정면을 1칸반을 늘려 변형한 집으로 볼 수 있다. 6칸양통집이 분포하는 지역의 특색도 ㅍ자집과 마찬가지로 치안행정이 강력히 미치지 못하는 변방지대이고 땅이 비교적 척박한 지대라는 점도 ㅍ자집과 양통집이 겹쳐질 수 있는 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지방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면 지역의 특성도 살리면서 주인의 취향을 살리기 위한 변형된 안이 주락의 신축시에 꼼꼼히 반영하게 마련일 것이다. 서측면의 2칸은 부엌이 되고 북측의 3칸은 방으로 구성하고 전면의 1칸반에 큰방을 두고 그 옆으로 1칸반에 대청을 둔 형태이다. 전형적인 6칸양통집에서는 큰방과 대청방의 위치가 본 건물과는 반대로 바뀌지만 평면간살이 증가되면서 부엌에서의 난방을 위해 큰방을 부엌과 대청사이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안채에서 동남쪽에 배치된 사랑채는 정면 3칸의 집 앞뒤로 퇴간을 둔 겹집의 형태이다. 사랑채이기 때문에 살림집으로서의 겹집의 평면분할은 아니고 좌측의 2칸을 사랑방으로, 우측의 1칸을 사랑대청으로 구성한 집이다.

남해안 지방의 중농이상의 집에서 볼 수 있는 겹집평면을 이 지방에서 사랑채로 구사했다는 것은, 폐쇄적인 이 지방의 건축형태에서 개방적인 평면형이 도입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고 건축당시의 건축주의 식견이 수월치 않았으며 또한 그것을 구현할 재정적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안채는 영동지방의 특성대로 양통집에 팔각지붕으로 구성하고 사랑채는 外地의 형식인 겹집이 도입되어 팔각지붕으로



▲ 정면전경 (운간채와 사랑채가 연이어 있고 뒤로 안채 지붕이 보인다.)



▲ 동측면 (우측에 보이는 안채의 지붕은 슬레이트로 대체되어 있다.)



▲ 사랑채 정면 (파손된 기와를 보충치 못하여 임시번들로 비가 새는 곳을 손보았기 때문에 지붕이 엉겨주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성하되 다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폐쇄적인 평면형태로 구성하기 위한 건축주의 구상이 도입되기에 이르른다. 다시 말하면 단간의 부속채로 주변을 연결하여 □자형태의 평면으로 마무리를 한 것이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3칸을 연결하되 그중 한칸은 대문을 달아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위쪽 한칸은 곡간으로 하여 안채에서 가까운 곳에 두어 관리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사랑채 서측으로는 2칸반을 내달아 그중 1칸에 문을 설치하고 문간좌측으로는 외양간을 두고 그 북쪽으로 헛간 1칸과 다시 그 북쪽으로 마루광 2칸을 마련하여 살림집의 수장고 역할을 담당케 하였다. 광의 북동측 기둥열은 부엌의 기둥열보다 바깥으로 배치시킴으로서 안채의 부엌출입에 편리하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자집이 완성된다.

이와같이 형성되어 통상적인 □자집의 구성과는 다른 이질적인 □자집이 완성되었고 그 형태는 건축당시의 지역특성과 건축주의 취향이 복합된 창의성 있는 평면의 예를 이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교통이 활발해지고 문물의 교류가 심하며 또한 재래식의 건축비용이 현대식 건축비용에 비해 몇배로 비싸진 현실하에서는 예전형식의 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적 욕구도 희박하여 지고, 지으려 한다 해도 시골집보다는 사대부의 주택으로 만들려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이와 같은 류의 건물이 가지는 가치는 시간이 흐름수록 커지리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3. 構造 및 樣式

가. 안채

정면 4칸반 측면 2칸의 겹집으로 20cm 각 내외의 각기둥을 사용하고 양통집의 특성대로 중앙의 기둥도 평주와 같은 높이로 사용하여 그 위에서 보가 앞뒤로 걸쳐지게 하였으며 보중앙에 동지주를 세워 중보를 걸쳐 그 위로 동자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게 한 평주 5량구조이며 도리는 모두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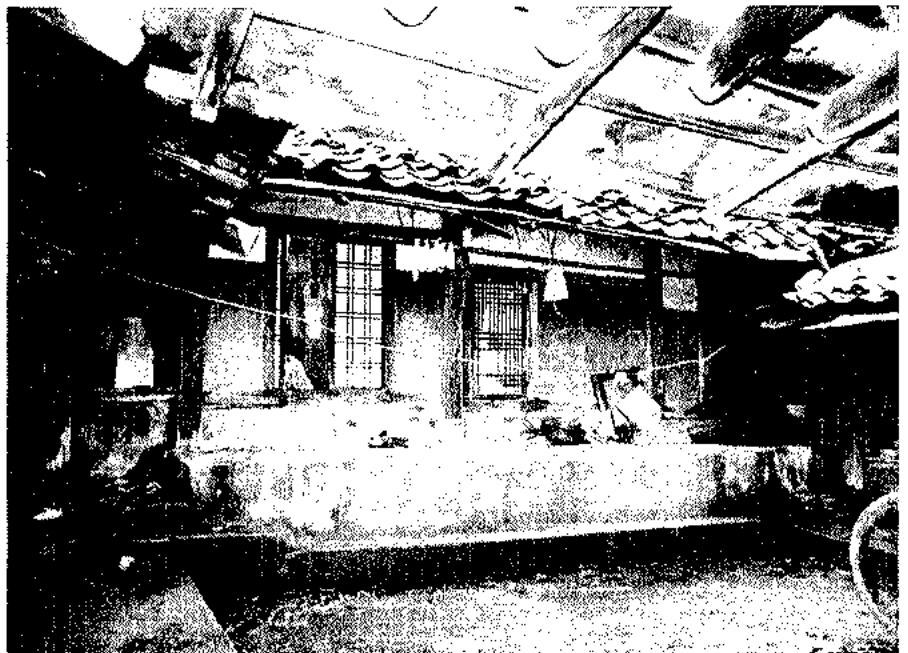
처마깊이는 1.2m로 서까래는 직경 135mm를 사용하였으며 지붕의 기와는 아귀토로 마감한 흘치마 팔작지붕이다. 대청의 외부에도 외벽을 세우고 띠살문을 설치하여 지역기후의 특성에 적응할 수 있는 폐쇄적인 평면구성이 실감난다. 추녀부분의 서까래는 엷선자로 깔았고 추녀의 양쪽과 안허리는 기와집에 비해서는 미약한 편이다.

나.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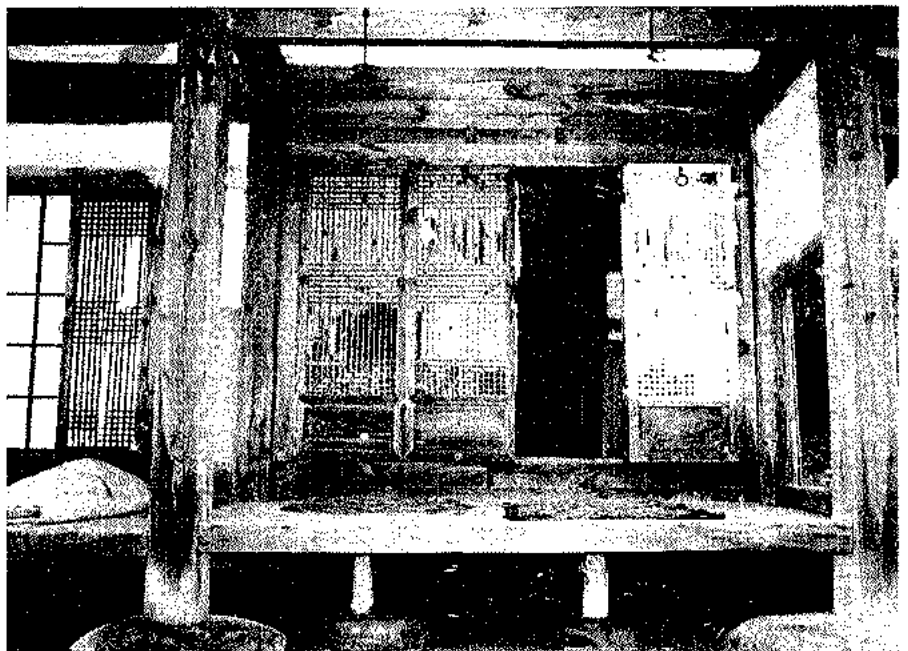
정면 3칸의 겹집으로서 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도 모두 같은 높이로 사용하였고 동지주를 세워 중보와 종마루를 구성한 평주 5량구조로서 내진주의 위치보다 중도리의 위치를 건물의 중심쪽에 배치하였다. 이것은 건물의 처마를 깊게 (1.2m)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까래의 안쪽깊이를 1.45m로 잡아 지붕의 구조적인



▲ 사랑채 구조부분(약간의 보수로도 건물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기품이 엿보인다.)



▲ 시멘트로 빌라진 곳을 자연석과 전흙으로 바꾸면 농가의 정취를 흡수한 풍기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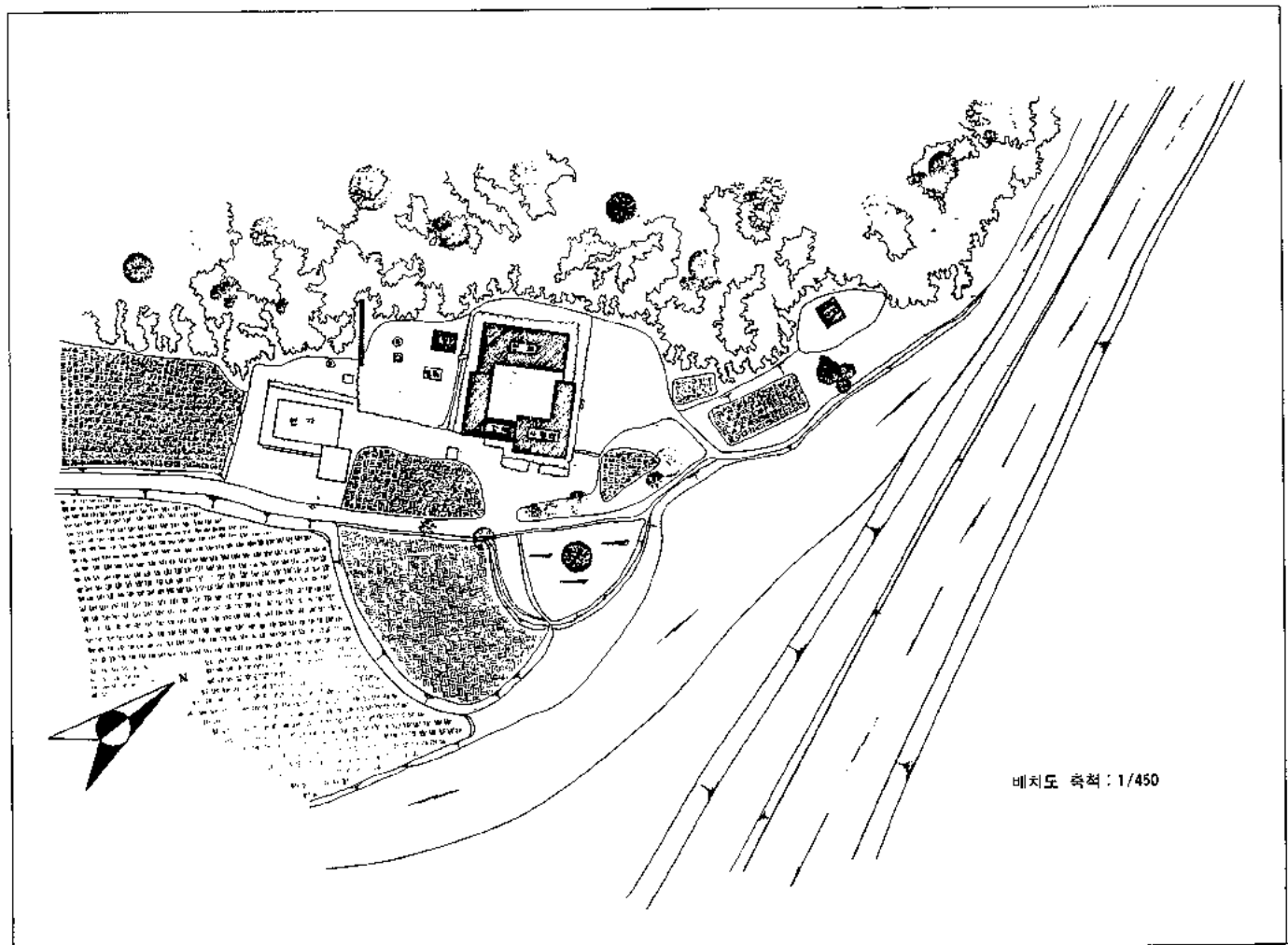
▲ 사랑채 마루방 문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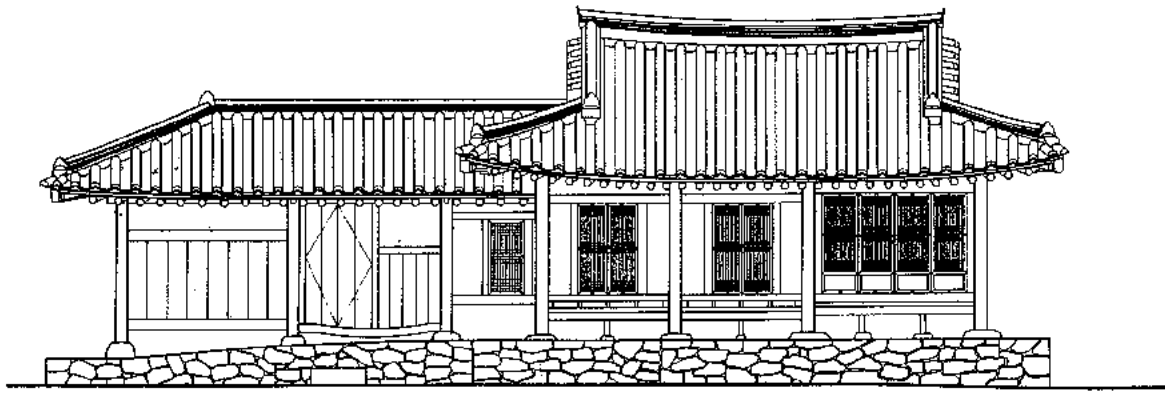


▲ 사람채 전면 빗마루(굴도리에 가까운 남도리를 사용하여 긴결하면서도 숨씨를 보인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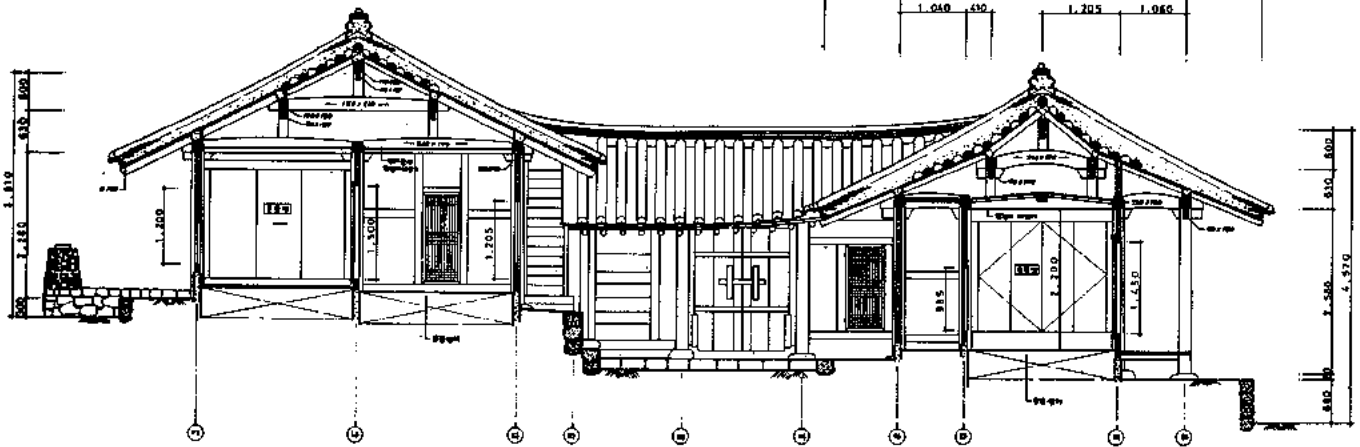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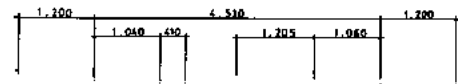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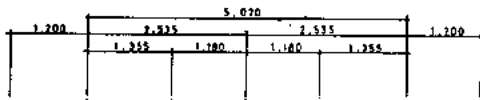


▲ 곡간(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3칸중 한 칸을 곡간으로 만들고 널판을 가로질러 막았으며 곡식의 재고량에 따라 위에서부터 널판을 제거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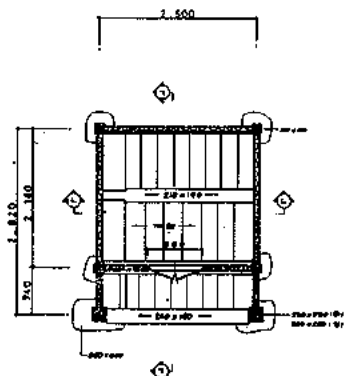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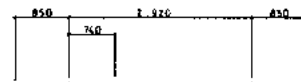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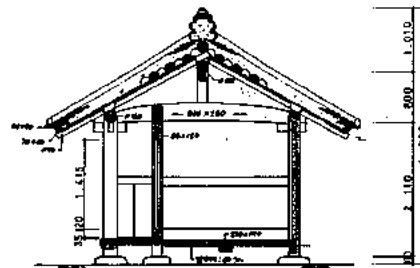
정면도 축척 : 1/60



㉔-㉕ 단면도 축척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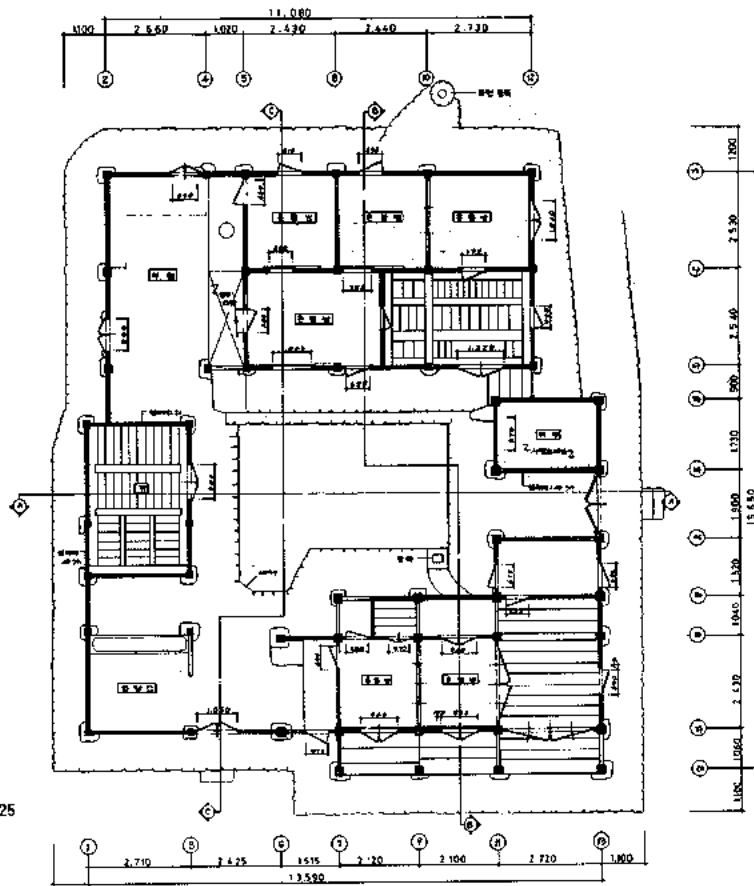


사당벽면도 축척 : 1/60



사당단면도 (㉔-㉕) 축척 : 1/60

평면도 축척: 1/25



안정을 위해 퇴간길이보다 중도리 위치를 더 깊게 잠음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도리는 모두 모서리를 둥글게 굴린 납도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사랑마루와 퇴마루 부분은 연등천정이고 기타는 고미반자로 처리하였다. 또한 중도리와 내진주의 기둥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퇴마루 부분의 내측기둥위로는 중도리와 무관한 회벽으로 처리하였다. 사랑마루 정면에는 4짝의 공창판을 덴 띠살분합문을 설치하였고 사랑방의 정면에는 단순한 형태의 머슴창고를 두고 그 위로 2짝씩의 띠살문을 설치하였다. 다. 연결부속재 부속재는 모두 3량구조로서 각기둥에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몸채보다는 처마길이를 짧게 (1.1m 또는 1.02m) 하였고 서까래도 직경 90~120mm 정도로 약하게 사용하였다. 특히 풍우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속재의 외벽 하부벽은 판벽으로 구성하여 들이치는 빗물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였고, 사랑채와 안채의 지붕마루에는 부고와 창고를 사용하였음에 비해 연결부속재는 작고만을 사용하는 등으로 건축적인 위계질서도 전래대로 답습하였다. 동편의 대문간 북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안채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였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공간만은 4면을 모두 두께 45mm의 널판벽으로 안마당쪽으로 문선을 세우고 흙을 파서 널판을 들어올려 빼내고 끼워넣는 방법으로 곡식의 분량에 따라 문높이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서 원시적이기는 하나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三國誌 魏志 高句麗傳에 “無大倉庫 家有小倉 名之爲浮京”이라 기록된 바 그 뜻을 번역하면 “마을에는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어 이름하여 浮京이라 하였다”는 뜻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어 고려 이조를 계속하면서 살림집에서 생활상의 기본적인 요소는 변함없이 연속되어 왔을 것이므로 이런 형태를 上代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면 三國誌에 기록된 고구려의 浮京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집의 서편에는 별도로 작은 공간이 판벽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개구부는 널판문으로 설치하여 집안의 공간보다는 양식상 후대에 속하는 것이다. 면면히 흘러내리는 역사의 회전속에서도 원초적인 형상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살림집의 구조에서도 새삼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와같은 건물이 철해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라. 사당 몸채의 동면에 위치한 사당은 정면 2.5m에 측면 2.18m의 1칸 앞에 퇴간을 내달아 측면을 2.92m로 구성한 7.3m² (2.21평) 규모의 간단한 건물이다. 전면퇴간의 기둥은 230mm 각 기둥을 사용하여 여타의 기둥 150mm 각 기둥과는 대조적인 바, 이는 정면의 빈약한 모습을 탈피하려고 고심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대략은 후면에서 전면의 퇴기둥까지 뻗어있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를 구성한 3량구조의 홀처마 박공지붕이

연등천정이다. 사당은 전체를 우물마루로 깔고 직경 180mm의 굴도리를 사용하였으나 정면 벽체위만은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벽체에서 하부벽은 모두 없애지고 문짝도 철거되어 있으며 우물마루도 절반 가량은 청판이 없어진 상태이다. 서까래도 일부는 부식으로 휘어내리고 연안도 다 떨어져 나가고 기와골도 흐트러지기 시작한 상태이며 판리의 손질이 없는 판계로 잡초들이 기둥옆에 까지 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사당의 보는 휘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소규모 건물에서 흔히 생기는 단조로움을 깨뜨리고 있다. 마. 庫間 몸채의 서편에 배치된 고간은 정면 2.425m에 측면 2.88m의 3량 홀처마맞배지붕으로 구성되고 4면을 모두 두께 24mm 판벽으로 구성하고 외부면에는 중간에 띠장을 두줄로 돌려 장식적인 효과를 살리고 있다. 정면에는 문선을 세우고 통판으로 된 널판문을 두짝 달았으며 별도의 기단은 없이 경사지게 지반을 처리하여 자연배수처리되도록 하였다. 기둥은 150mm 각을 사용하고 납도리는 138×150mm각에 보는 137×210mm각. 중도리는 직경 135mm의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서까래는 직경 90mm를 사용하였고 풍판은 없고 지붕의 용마루는 창고에 부고까지 사용하였다. 박공판에는 꺾쇠를 2개박아 장식을 겸하였으며 면적은 6.98m² (2.11평)이다.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3)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金基哲 / 工學博士,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

by Kim, Kcc · Chul

Ⅲ.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計劃

1. 傳統劇 室內公演場

우리의 演劇遺産은 대부분 野外劇形式이며 必然性과 특수한 상황아래 공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室內公演場으로 옮겨질 때에는 목적과 조건에 맞게 수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原形의 보존만을 유지할 때에는 공연장은 아와이어야 하며, 곳이나 놀이가 이루어지는 演劇적인 계기와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

이점은 연극유산의 발굴, 원형보존, 계승의 관점에서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되나 전통극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 하겠다.

傳統劇은 大衆속에서 傳承發展되는 대중의 것이다. 대중과 같이 호흡하고 자라며 성숙되는 것이 傳統劇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傳統劇은 大衆과 함께 있어야 하고, 傳統劇公演場은 관중이 편안한 상태로 전통극과 함께 있는 공간으로서, 都市에서는 屋外公演場보다는 屋內公演場이 한층 더 유리하다.

육내공연장은 시기적으로, 기후등의 제약을 받지 않게되며 이상적인 공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도시에서 演劇場所를 확보시키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접근시킬 수 있고, 이로써 大衆과 함께 傳統劇을 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大衆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전통극 유산의 本質과 고유형태를 검출한 다음, 이에 기초한 전통극의 전승발전은 우리 劇藝術의 위치를 확고하게 定立할 수 있게 한다.

2. 傳統劇 公演場의 規模限定

가. 適正規模算定의 基本前提

傳統劇 公演場의 適正規模算定을 위한 기본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公演場의 平面形을 결정하는

건축제약요소는 무대와 객석의 관계로써,

공연장의 특성에 따라 공연장내의 배치가 정해진다. 公演場의 특성은 공연되는 연극의 특성에 따르며 연극의 특성에 맞는 무대와 객석의 관계는 무대의 형태로써 파악된다.

舞台形態의 이론에서 演技의 場에는 두가지의 대립되는 美學的 태도 즉 立方體와 球體의 原理가 있는데, 입방체의 원리는 이탈리아형 舞台극

액자형무대(Proscenium stage)를, 구체의 원리는 圓型競技場에서의 圓型舞台를 각각 그 理想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액자형무대는 具象的이며 事實的인 연극에, 원형무대는 非具象的이며 幻想的인 연극에 알맞다.

전통극 공연장 구성을 위한 기본요건은 첫째, 무대와 객석의 분리문제이다. 演劇美學的 原則의 문제에서 “劇의 宇宙”의 분리를 위하여 “演技의 場”의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극예술은 있을 수 없다. 즉 연극의 장이 확립되고 분리되어 가기 전에는 진정한 연극도 극예술도 없었던 것이다.

둘째 舞台와 客席의 접촉과 거리, 그 연극자와 관객의 “共感과 參加”의 문제이다. 무대주위에 관객이 삼면 또는 사면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원형경기장이나 돌출무대(Thrust stage)의 경우와 같다. 이런 開放型舞台(Open stage)의 특징으로서는

① 원형경기장무대(Arena stage)의 경우 연극공간에 벽이 없어 무대는 완전돌출된 상태로서 무대에 대규모 장치는 없으며 소규모의 배경이나 장치를 사용한다. 돌출무대에서 한면에 벽을 설치하면, 연극자들의 登退場에 벽쪽을 이용할 수 있고 벽면을 이용한 대규모 장치도 가능하게 된다.

② 무대위 연극자들의 平面의배치는 다른 연극자들을 서로 가리게 되어 연극의 범위가 제한되며, 이 경우의 해결방법으로는 무대에 段을 주거나 객석의 구배를 크게 한다.

③ 연극자가 관객의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관객에게는 옆이나 뒤를 보이게 되므로 대사전달이 불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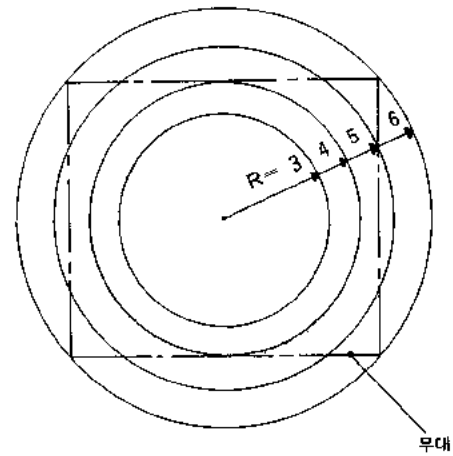
④ 음향효과상 음원이 공연장의 중심부근에

◆ 金基哲

1944년 서울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후 87년 博士學位 取得, 현재 弘益大, 建大에 출강하며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을 자영하고 있다.

〈그림 1〉 전통극 무대 규모

구분 범위	규 모 (반지름 : M)	종 목	최 대 출연인원	특 징
최 대 범 위	8	농악	24~21	춤, 음악
	6	북부 가면극 중부 가면극	13 8	춤, 대사 노래, 재담
	5	굿 남부 가면극	11 8	춤, 재담 노래, 대사
	3	판소리	2	춤, 창
일 반 범 위	7	농악	24~21	
	5	굿	5	
	4	가면극	4~8	
	3	판소리	2	



〈그림 2〉 Acoustical Image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음의 집중현상들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평면 및 단면형에서 내부계획, 재료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⑤ 무대장치를 할 경우 장치의 일부가 무대 가운데로 크게 돌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장면전환이 곤란하므로 소도구를 사용하거나 暗轉方式을 이용하게 된다.

⑥ 객석에서 연기자를 내려다 보는 경우가 많아, 무대바닥이 배경의 역할을 할 때가 많으므로 무대바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⑦ 돌출무대에서는 배경장치 등에 의한 공간변화를 어느정도 나타낼 수 있으나, 側面視線制限 (Side line) 의 한계를 초과하는 객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무대조명은 3,4방향에서 조명이 필요하며 액자형무대와 같이 一方向集中配光方式은 곤란하다. 또한 연기자가 무대끝에 있을때, 반대편 객석에 조명이 비추지는 경우등이 있어 연기자에 대한 조명보다는 배경에 비추는 효과조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公演場에서 무대와 객석의 규모산정을 위한 건축계획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무대의 규모는 출연자들의 동시출연인원수와 출연자들의 동선에 따라 설정되는 연기부분과 연기부분을 뒷받침하는 부속부분으로 형성된다. 부속부분은 연극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되며 아울러 규모도 산정된다. 전통극의 동시출연자수와 동선을 고려한 무대의 규모는 〈그림1〉과 같은 범위내에서 산정되기도 하나, 과거의 무대 크기등과 비교할때 다소 크게 산정되어 있으며 연극의 연출기법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할 사항이다.

음환경을 고려한 객석의 범위는 音象 (Acoustical Image) 방법에 의해서 대략 산정된다. 音象은 音節明瞭度로써 표시되며 V.O.Knudsen의 실험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음절명료도는 실내에서 음의 세기, 잔향시간에 의한 저하율, 소음에 의한 저하율, 실험에 의한 저하율로 표시된다. 音象에서 명료도별 음성도달 거리는 대략 〈그림2〉의 표와 같다.

客席규모산정의 요사인 시선거리는 공연장에서 다음의 범위가 그 限界로 통용되고 있다. 관객이 연기자의 표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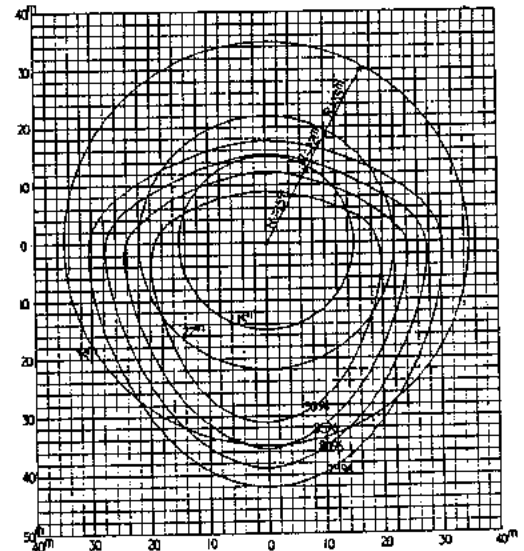
音의 明瞭度	90%	85%	80%	75%
話者의 前方	30.3 m	35.7 m	49.8 m	42.4 m
話者의 側面	18.2 m	23.5 m	27.0 m	30.3 m
話者의 後面	9.1 m	12.8 m	15.4 m	18.2 m

읽을 수 있는 거리는 15m까지로서 순수 연극공연장의 범위가 되며, 대사가 있는 劇의歌舞, 소규모 國樂, 고전무용등은 一次許容限度인 22m까지 범위가 擴大되며, 二次許容限度는 35m까지로 대규모 국악, 그랜드오페라의 공연장에 적용시킬 수 있다.

실내공연장의 경우 室의 용적은 객석당 6~10m³범위에서 잔향시간 (Reverbration time) 을 고려하여 정해지, 언어의 명료도를 고려할 때에는 잔향시간을 짧게 한다. 통상적인 자료에 의거 좌석당 면적을 통로포함하여 산정하면
○ 운동장 스탠드 : 0.45m²/席
○ 개별의자 : 0.62m²/席
○ 바닥의자 : 0.64m²/席

나. 판소리 공연장의 규모

1) 평면형
판소리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공연장의 평면형은 舞台原理中 球體의 原理에 의한 무대형태로서, 正方形의 돌출무대 (Thrust stage)의 3면에 객석을 배치한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관객의 호응도나 추임새등을 고려하여 일부 관객들을 무대 주위에 별도로 두어 분위기를 돋우어 줄 필요가 있다. 소수의 관객 앞에서 唱을 할때 唱者도 안정감을 얻는다고 한다. 따라서 무대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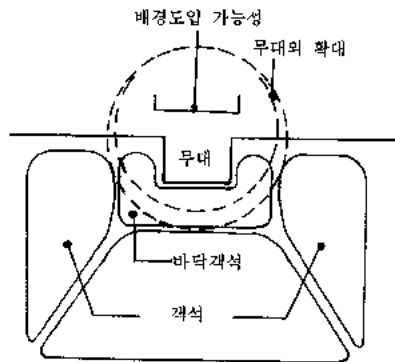


270°범위의 3면에, 5열이내의 바닥에 앉는 좌석을 배치하고 바닥좌석 옆 뒷편에 일반 기존극장식 개별의자의 좌석들을 배치한다. 무대의 나머지 한면은 출연자들의 등·퇴장과 분장실, 소도구실등의 무대관계실을 배치한다. 출연자들의 등·퇴장은 출입구를 무대관계실 좌우 양측에 각각 1개씩을 두어 이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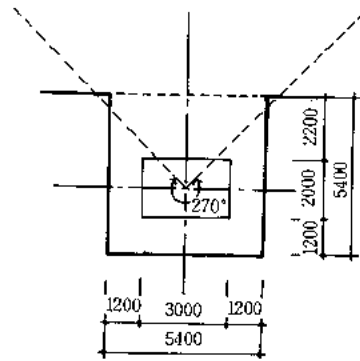
2) 무대의 규모

판소리의 무대는 판에 唱者 1人是 서고 鼓手 1人是 앉아서 演戲한다. 화문석이나 명석 한남 정도를 깔고 演戲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석 한남 크기면 판은 形成된다고 볼수 있다. 명석의 크기는 수공예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6尺×9尺(약 1.8m×2.7m)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서서 演戲하는 唱者는 행동반경이 크지 않고, 鼓手는 앉은 상태에서 판소리가 진행되므로 판소리 공연시 실제 이용되는 무대의 크기는 약2m×3m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무대주위에 여유공간을 주고, 공연시 뒤에 둘러치는 병풍과 이에 대치될 수도 있는 간단한 배경막을 고려하고, 안쪽에 안무대를 설치하면 판소리무대의 크기는 약5.4m×5.4m 정도가 된다. 안무대는 다수의 唱者에 의한 竝唱에 이용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 판소리 공연장 개념도



(그림 4) 판소리 무대 규모

무대바닥은 과거 대청마루에서 연희되던 예에서와 같이 우물마루로 하며, 唱者가 서고 樂土가 앉는 부분에는 화문석을 깔다. 객석과의 분리 및 음과 시선을 고려하여 객석바닥보다 30cm 정도 높이므로써 唱者가 唱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아래쪽을 내려다 보며 唱을 할 수 있으며 전좌석에서의 시선을 양호하게 하는데 한층 유리하게 된다.

3) 객석의 규모

판소리는 청각적예술로서 음환경요소가 객석규모 산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음의 명료도가 높은 범위는 객석의 적정범위가 되며 唱者는 표정보다는 연기적 행동이 크므로 시선의 一次許容限度인 22m 이내를 객석의 범위로 할 수 있다. 무대주위의 바닥좌석 객석은 시선을 고려하여 5열정도로 하며 바닥좌석 뒤쪽에 높이 90cm 정도의 낮은 칸막이를 설치하여 限定된 분위기를 만들고, 칸막이 밖을 개별의자식 좌석으로 한다.

이러한 바닥좌석식 구획은 사랑방에서 연희되던 판소리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의자객석에서 관람할 때 무대와 바닥좌석 부분은 무대부분의 擴大感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판소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범위는 시선거리 22m 이내, 명료도 90% 이상인 범위로 면적은 약 450㎡, 수용인원 약 720명 이내가 적정범위라 할 수 있다.

4) 부속실, 其他

판소리무대를 구성하는 唱者와 樂土는 不可分の 관계에 있으므로 판소리 고유의 演戲方式에 따라 무대위 唱者 옆에 唱者를 보며 앉아있는 樂土席을 설치하여 고유성을 살리도록 한다.

판소리는 청각적 예술로서 특히 음환경을 양호하게 조성시켜야 하므로 실내허용소음도는 NC-20 이하의 음악당에 준한다.

아울러 뒷객석의 음보강을 위한 음향반사판은 연기자 위에 白布帳 형태를 도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공연장의 형태에서 무대가 가운데 있게 되므로 실내의 마감재료등은 흡음, 확산재리로 하여 음의 집중이나 反響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명은 보조적 설명이 가능하므로, 사랑방형태의 제한된 곳을 밝게 비추는 방식으로 하여 바닥좌석 부분까지 무대의 擴大感을 일으키도록 무대효과조명방식을 택하고, 무대 위에는 배경이나 장치의 도입가능성을 勘案하여 무대에 면한 벽쪽에 영상식 배경이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치등을 위한 무대관계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 唱劇公演場의 규모

창극은 들려주면서 또한 보여주는 형식의 연극으로 판소리를 母胎로 하여 출발하였으므로 창극의 특성은 그 근원을 판소리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판소리와 다른점은 좀더 본격적인 연극형식을 갖추고 있는점 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에서 唱者 1인과 鼓手 1인이, 창극에서는 각역에 맞는 배우들과 음악을 위한 악사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극적내용과 형식이 연극화되었다.

창극은 원래 고유의 무대가 없었다.

개화기에 주로 서구식극장의 액자형무대에서 공연되었지만 이점은 우리 전통극형식과 맞지 않음으로 해서 창극발전을 저해한 한 요인이 되었다.

1) 평면형

창극공연장의 평면형은 판소리의 특성과 무대규모의 확장에서 정해질 수 있다. 관객과의 접근을 위해 개방형 무대 (Open stage) 중에서 돌출무대 (Thrust stage) 에 무대중심 270°범위에 객석을 배치하고 무대가 벽에 닿는 쪽은 안무대를 두어 악사석으로 한다. 이는 창극의 특성과 무대배경도입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형태가 된다.

2) 무대의 규모

창극은 원래 판소리 극본을 배역에 따라 分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등장인원 및 演戲행동범위에 따라 무대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초창기 창극이 공연되었던 무대의 규모는 원각사의 경우 폭24尺, 길이12尺(약 7.3m × 3.6m) 정도의 소형무대였다.

판소리 대본에 나타나는 동시등장인원은 춘향전의 경우 한사람부터 수백명의 배역들(과부들, 어사, 출도시 삼행수들, 여러관원, 각읍수령등)이 등장하고 있다. 연극에서 대사가 없는 배역의 등장인원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연출기법상 어느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역들의 동시등장인원 4~5명 이외에는 주무대의 無限定한 擴大보다는 연극형식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극중 장소변화가 빈번하여 이에 따른 장소전환에 사용할 수 있고, 단역들의 등장과 악사들을 위한 안무대의 설치에 창극의 특성을 살리는데 유리하다. 이 안무대는 대규모장치를 가능하게 하고 주무대 보다 30cm 정도 단을 주어 보조무대로 사용하여 악사석을 들때 객석에서 시선조건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을 위한 唱의 보조적인 설명과 일본 歌舞伎의 예에서와 같이 창극에 배경, 장치등의 사용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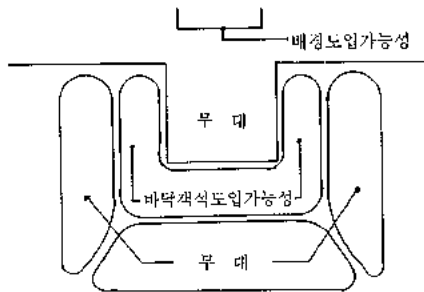
주무대의 규모는 동시출연자수의 추정과 과거 연희되었던 무대의 규모, 주역들의 연기범위에서 설정하면 <그림6>과 같이 할 수 있다. 무대는 전좌석에서의 시선조건을 양호하게 하고 객석의 구배를 너무 크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석바닥보다 45cm 정도 높이도록 한다.

3) 객석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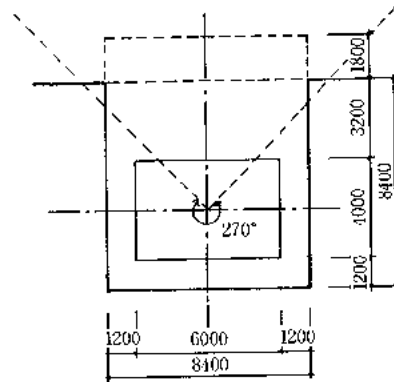
창극은 판소리를 모태로 한 특성에서 청각적인 분위기와 연기자의 표정에 의한 연기를 보여주어야 하므로 객석의 범위는 音節明瞭度 90% 이상과 시선거리 15m 이내가 적절한 범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무대면적을 제외한 객석의 면적은 약 356㎡로서 좌석수 약 570석 정도가 창극공연장의 적정객석범위가 된다. 음절명료도 85%인 경우 면적 약 480㎡, 좌석수 약 770석까지는 허용한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뒷편 좌석에 대한 음의 보강장치로서 음반사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4) 부속실 및 환경요소

판소리에서와 같이 악사는 창극에서도 필수요소이므로 안무대에 악사석을 두고



〈그림 5〉 창극 공연장 개념도



〈그림 6〉 창극 무대 규모

배경에 대한 무대관리실을 함께 고려한다. 공연장 허용소음도는 연극기준 500석 이하 규모에서 NC-20 이하, 500석 이상에서 NC-25 이하를 유지한다. 공연장내는 음보강과 장식요소로써 백포장형태의 음향반사판을 설치하고 조명은 연극을 위한 무대효과조명으로 하며 配光方式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라. 假面劇公演장의 규모

대표적 가면극의 놀이마당은 野外에서 임의로 설치되어 연희되었으나 이 놀이마당에는 몇가지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들은 첫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인데 무대가 따로 설치되어 平面의 차이가 있거나 평지라도 명석을 깔거나 새끼줄을 쳐서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였다. 둘째, 무대가 가운데 있고 무대주위를 둘러싸고 객석이 있었다. 강변백사장 등의 넓은장소가 아닌 경우, 한면은 건물등에 의지하여 3면에 객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무대형태는 원형이 많으며 그 크기는 명석 5,6넝 정도이다. 넷째, 아사석이 무대위에 있었다. 다섯째 많이 연희되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 가면극은 연극의 분류상, 挿畫의인 장면 장면을 앞뒤 연관성 없이 엮어 가면서 그 장면의 파장된 상황에 인물을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笑劇(Farce)에 속한다고 한다. 과거 무대에서는 객석과의 사이에 간단한 경계선뿐인데 탈꾼이 분장한채 관중의 한사람으로서 관중속에서 대기하다가 등장하기도 하고 관중속으로 퇴장하기도 하는 演戲특성에 기초를 둔 그러한 공연장이었는데, 관중과의 접촉이 너무 밀접하여 관중의 열렬한 공감과 參加를 불러 일으키는 효과를 가진다.

1) 평면형

假面劇은 관중을 모으고(길놀이), 관중이 모인 곳이면 演戲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限定된 공간에서도 연희장소의 任意性과 轉移를 나타낼 수 있는 공연장의 시도는 固有의 劇形式에 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면극공연장은 定方形的 主舞台 中心

270° 범위내에 무대주변 3면에 객석을 배치한 형태로 하며 나머지 무대 1면은 안무대를 설치하여 연결하고, 안무대에는 三鉉廳(樂土席)을 두도록 한다. 무대주위의 객석5열 정도는 바닥좌석으로 하여 이 바닥좌석중에는 연희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演戲者待機席을 두는 것이 가면극의 연희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무대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객석규모가 작은 경우는 객석측면과 후면통로를 폭 2.1m 정도로 하여 演戲에 이용될 수 있게 하여 통로와 통로가 교차되는 부분은 2군데 정도 소규모演戲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幅4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간이무대를 만든다. 이형식은 空間式무대(Space stage)의 변형과 같은 것으로 제한된 공연장내에서 演技의 범위를 擴大하게 되고 과거 가면극연희시 공연되던 길놀이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대공간을 만들어 주는 方法이 된다. 객석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객석중간의 橫通路와 縱通路의 폭을 넓혀 길놀이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도 통로의 교차점은 간이무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연희에 사용되는 모든 통로는 주무대에 연결되도록 하며, 또한 공연장 밖에 까지 연결시켜 주위환경이 공연조건에 맞을때 屋外內庭등을 이용한 연희장소의 擴張을 시도할 수 있다.

2) 무대의 규모

가면극의 무대는 獨舞와 群舞의 춤사위에서의 행동범위와 同時登退場時의 출연 인원수에 따라 규모가 산정될 수 있다. 과거 가면극무대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것은 명석 대어섯넝정도일 뿐이다. 일반 명석크기를 기준으로 산정해 본다면 명석 5넝의 경우 15尺×18尺(약 4.5m×5.5m) 6넝의 경우 18尺×18尺(약 5.5m×5.5m)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규모는 楊州訪仙폭포앞 공지(13.5m×9.6m)나 駕山石長丞앞 공지(10m×6.6m)의 규모와 비교할때 演戲가능한 무대규모로 생각할 수 있다. 主舞台 안쪽은 段을 두고 높은 안무대를 두어 三鉉廳(樂土席)을 설치하도록 한다. 길놀이에 이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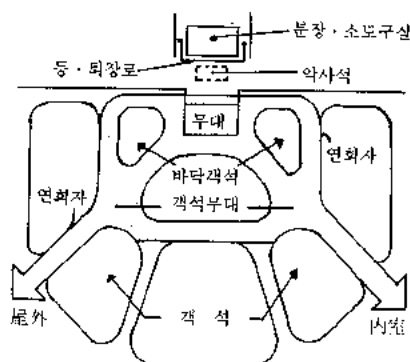
객석통로는 연희자 2명이 같이 갈수있는 최소폭 2.1m 정도로 하고 通路交叉點의 객석중의 무대공간은 폭4m정도 이상으로 5,6명이 群舞時 이용토록 하므로써 연희공간의 轉移와 任意性을 表出하는 方法으로 시도한다.

무대바닥의 재료는 탄력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일반연극무대의 共鳴現象은 발의 사용이 많은 가면극의 연희특성 때문에 연희자들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거 많이 연희되었던 장소의 바닥재료인 흙이나 잔디정도의 탄력성에 共鳴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하는것이 타당하다. 무대바닥의 높이는 연희자들이 객석에서 登退場하는 것을 고려하여 객석바닥에서 무릎높이(약45cm정도)를 넘지 않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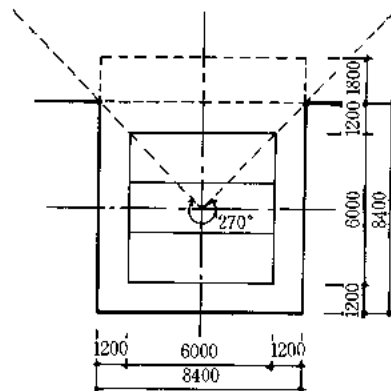
3) 객석의 규모

가면극은 연희시 假面때문에 대사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음성만의 공연시 음절명료도는 90% 이상으로 하고, 얼굴의 표정등 세밀한 演技를 보여주기 보다는 가면에 의한 큰 몸짓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특징때문에 시선거리라는 一次許容範圍인 22m까지 객석의 범위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객석의 적정규모는 면적 415㎡, 좌석 약1,640석 정도가 된다. 음압의 저하를 보강시킬 필요가 있으며 音擴聲장치를 도입할 때 시선거리 35m까지 허용2차범위로 하며 객석의 면적 약 1,250㎡, 좌석수 약2,000석까지를 공연장규모로 할 수 있다. 무대주위에는 바닥좌석을 5열정도 설치하여 출연자대객석을 겸한다.

객석에서의 시선거리는 일부분헌에 아래쪽에서 10°정도 위쪽으로 무대를 올려다 보았다고 했으나, 양주사직골의 주변 山勢나 訪仙폭포주변과 놀이마당이 형성되었다는 統營龍華寺계곡등의 地勢나, 鳳山탈춤이나 殷栗탈춤의 다락석등에서의 주관점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다는 위쪽에서 내려다 보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춤은 上體(손, 팔, 어깨)중심의 춤이다. 西歐舞踊이 주로 下體(다리, 발)중심의 부용으로 강약의 표현에 있어서도 動的인 활발한 움직임으로



〈그림 7〉 가연극 공연장 개념도



(그림 8) 가면극 무대 규모

해결한데 반하여 한국舞踊은 육체보다
靈의인 면을 강조하여 정신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祈禱하고 渴求하는 禪의 자세로
內向의 발전을 이루었다. 영적표현은
완만한 곡선위에 流動의인 동작들이 억제된
움직임 - 靜中動으로 나타내고 있다. 춤의
특성으로 보아도 주관점은 올라다 보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내려다 보는 방식이
맞다고 볼 수 있다.

4) 부속실 및 환경요소

가면극의 三鉉廳(악사석)은 무대 위에 두되 객석에서 출연자들을 보는 시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무대 안쪽에 두고, 안무대는 段을 객석의 규모에 따라 45cm~60cm 정도 높여 전 객석에서 보이게 한다.

改服廳은 山台假面劇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대장치와 일부분으로서 무대옆 객석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분장실은 소도구실등 무대관계실과 함께 안무대 뒷편에 따로 둔다. 무대와의 출입구는 무대양측에 두어 사용토록 한다. 음환경을 위한 허용소음도는 NC-25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면극의 조명은 가면의 형태와 색채를 고려한 舞台效果照明方式을 주로 한다. 실내공연장에서는 무대 앞부분 양측에 햇불이나 장작불의 상징적 요소로 도입하여 人工的效果照明으로 고유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야외의 경우 직접 장작불이나 햇불을 이용한다. 그러나 모닥불의 조도는 측정결과 2.5m 거리에서 400~600 lux, 5m 거리에서 100~150 lux 정도로 主照明으로는 照도가 낮은 편이므로 補助效果照明으로 이용하며 主舞台效果照明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조명방식 등은 돌출무대의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가면극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마. 기면극 野外公演場의 건축계획요소

오늘날에 公演場의 立地選擇은 경제적, 社會的 因子間的 상호작용에 앞서 公共의 이익 즉 도시계획적 측면이 앞선다. 그러므로 傳通劇 公演場의 立地는 과거

任意性과 轉移에 따라 場所化되던
 상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基地는 버섯한테 유용하지는 못해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대지를 수정할 수 있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屋內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설비시설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 傳統劇이 공연되던 것과 유사한 野外公演場을 만들 경우 그 지역의 微氣候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대책만을 세울 수 있다. 공연장에서 소음의 문제는 연기자의 대사전달에 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暗騒音 (Back ground noise) 보다 5dB 이상 높게 이야기 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공연장에서 허용소음도곡선은 NC-25 이하 또는 소음도 40 dB 이하가 500席정도의 규모에서 요구된다. 근래에는 음악당이나 극장에서 소음한계치를 20 dB(A) 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시의 야외공연장에서 이 정도의 허용소음 이내를 조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野外公演場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은 공연장배치의 調定과 遮音壁, 樹木의 密植 등으로 어느 정도의 차음만이 가능하게 된다. 공연장 주위에 차음벽 설치시에는 공연장 내부에서의 反響 등 제반음향상태를 충분히 예상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그 지역의 미기후에 대하여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가 고작이겠으나 바람의 경우 음환경에 지장을 주는 4 M/sec 이상의 바람은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며 야외공연장의 배치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정하며, 무대쪽에서 관객쪽으로 주풍향이 되도록 배치하면 한층 유리한 배치가 될 수 있다.

假面劇 野外公演場은 正方形의
主舞台中心 270°범위, 무대중심 3면에
객석을 배치하며, 원형이나 둥근형태에서
음의 결합발생요인을 피하고 무대의 나머지
한쪽면에 무대관계실을 둔 건물을 세워
배경으로 하는 형태가 유리하다.
野外舞台는 무대와 객석 모두 인위적인

기후조절이 불가능하나 배경으로 사용되는 건물에는 분장실등을 넣고 기후조절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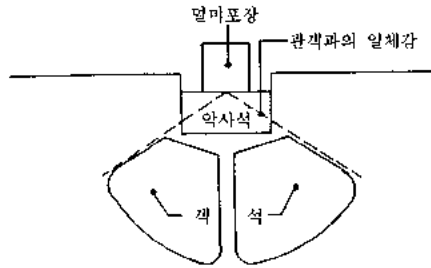
主舞台의 네모서리부분에는 보조조명을 위한 장치물이나 램프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 운동장스탠드형 좌석은 시선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대와 스탠드좌석 앞열간에는 스탠드좌석과 같거나, 무대바닥재질과 다른 재질로써 바닥을 깔아 바닥좌석을 만들어 많은 관객의 수용과 다른 종류의 演戲時 무대바닥면의擴大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음향성장지는 확성기로부터의 하우링(howling) 등에 의한 음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산배치보다는 집중배치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야외공연장 주위에 차음을 위해 樹林帶를 만들 경우 차음보다는 시각차단효과가 더크다. 수림대는 30m 폭 이상은 되어야 어느정도 차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통 수림대는 7~10 dB 정도 감소시킨다. 차음벽을 설치할때 길이가 충분해야 하므로 높이가 6m를 넘는 경우 종합적인 경제성 검토를 한다. 보통 이 정도의 차음벽은 10~15 dB(A) 정도 차음효과가 있으며 높이가 2배가 될때 6 dB(A) 정도 추가 감쇄가 되므로, 예측되는 소음의 양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屋內公演場으로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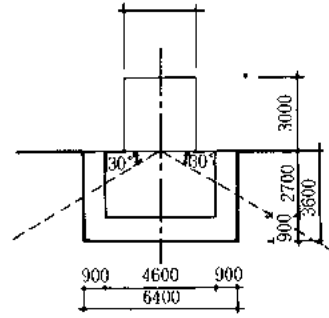
바. 人形劇公演場의 규모

傳統人形劇은 궁중과 또는 佛寺堂이라 불리던 직업적인 유랑연예인들이 朝鮮朝후기 이래로 농어촌을 돌아다니며 민중오락으로 제공하여 왔던 광대의 歌舞百戲의 하나였다. 人形劇의 공통된 내용은 巫俗文化 요소의 殘存, 破戒僧에 대한 諷刺, 一夫妻妾의 삼각관계와 서민층의 생활상, 양반계급의 횡포와 그 形式道德에 대한 暴露와 嘲弄, 來世의 冥福을 기원하여 불교에의 귀의 등 7내지 8막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일관된 연결성은 없으나 전체로서 당시의 사회상과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人形劇의 공연장은 하나뿐인 現存하는



(그림 9) 人形劇 공연장 개념도



(그림 10) 人形劇 무대 규모

박첨지인형극의 덜미포장규모를 적용시킬 수 있다.

1) 平面形

덜미포장과 덜미포장앞 악사석이 人形劇의 무대가 되며 덜미포장앞 120°범위에서 악사석 주위로 객석을 배치한다. 樂士席주위의 객석은 바닥좌석식으로 덜미포장을 향하여 방사상으로 배치하여, 樂士席과 객석을 접근시켜 친밀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함으로써 과거 人形劇놀이의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2) 무대의 규모

人形劇은 원래 “덜미포장”이란 고유무대가 있었으며 이 덜미포장을 기준하여 무대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덜미포장은 놀이관을 둘러친 포장안에 다시 포장으로 세운 일종의 액자식무대이며 덜미포장앞 무대면은 객석보다 30cm 정도 높여 樂士들이 관객들에게 보일수 있게 한다.

3) 객석의 규모

人形劇의 덜미포장은 일종의 액자형무대이므로 측면시선을 고려하여 덜미포장 앞에서 120°범위내에 악사석 주위에 좌석이 배치된다. 人形劇은 人形의 동작과 대사로써 이루어지므로 人形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각적 조건과 人形劇대사중에 산재가 人形들과 주고 받는 대사형식을 취하고 있어, 산재이는 관객에게 동을 보이고 앉게 되어 관객에게 대사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박첨지人形劇은 人形의 크기가 큰인형 (35cm×80cm)에서

작은인형(5cm×10cm) 정도까지 되므로 視知覺上 인식을 위해서는 연기자의 세밀한 표정을 볼 수 있는 거리 15m 이내를 객석의 범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절명료도 90% 이상의 범위가 적정범위라 할 수 있으며 면적은 약156㎡ 정도로 좌석수 약250석이 되며, 음절명료도 85% 까지 허용범위로 할때 면적은 약220㎡, 좌석수 350席정도가 人形劇 최대수용좌석이 될 수 있다.

4) 부속실 및 환경요소

樂士席은 固有方式에 따라 덜미포장앞에 두고, 공연장의 허용소음도는 연극을 기준하여 NC -25정도로 하는 것이

당당하다. 조명방식은 액자형무대에서의 방식과 樂士席을 밝히는 舞台效果照明方式이 人形劇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사. 傳通劇公演場의 建築計劃 규모종합 전통극공연장의 규모산정 결과, 건축계획규모를 종합하면 다음(표1)과 같다.

(표-1) 전통극 공연장 건축계획 규모

구분	공연물	관 소 리	창	극 가 면	극 인 형
부	모 양	정방형돌출무대	정방형돌출무대	정방형돌출무대	덜미포장(악사석, 돌출무대)
면	수	1	2 (주무대+안무대)	3 (주무대+ 안무대+객석무대)	2 (주무대+ 앞무대)
대	면적(M ²)	34	87	120	32
바	높이(cm)	30	45	45	30
무	단	우물마루(화문석)	우 물 마 루	홀, 잔디(탄력성 재료)	우 물 마 루
대	무 대 위 시 설	음 양 반 사 판	음 향 반 사 판	햇불조명설비	덜 미 포 장 막
출	입 구	좌, 우 2개	좌, 우 2개	좌, 우 2개	1개
객	모 양	무대의 3면 (270°)	무대의 3면 (270°)	무대의 3면 (270°)	무대의 1면 (120°)
적	시선거리, 명료도	22M, 90%	15M, 90%	22M, 90%	15M, 90%
정	면적(M ²)	449	356	415	156
수	용인원 (人)	720	570	670	250
허	시선거리, 명료도	.	15M, 80%	22M, 75%	15M, 80%
용	면적(M ²)	.	486	1,019	218
수	용인원 (人)	.	770	1,640	350
용적	(M ³ / 1 석)	6~10	6~10	6~10	6~10
허	용 소 음 도	NC-20이하	NC-20이하	NC~25이하	NC-20이하
무	대 와 객 석 구 분	무 대 높 이	무 대 높 이	무 대 높 이	무대높이, 덜미포장
배	경	적 용 가 능	적 용 가 능	개 복 청	덜 미 포 장
악	사 석	창 者 옆 (고정)	무대후면안무대	무 대 후 면 (안 무 대)	덜 미 포 장 (앞 무 대)
소	도 구	악 간	도 입 가 능	악 간	악 간
분	장 실	무 대 뒷 편	무 대 뒷 편	무 대 뒷 편	무 대 뒷 편
조	명	효 과 조 명	효 과 조 명	효 과 조 명	효 과 조 명

三國時代の 建築文化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新羅의 建築

1. 時代의 概觀

新羅는 당초 辰韓 12개의 城邑國家중의 하나인 斯盧를 모체로 연맹체를 형성하면서 발흥하기 시작하다가 4세기말 奈勿麻立干때에 이르러 낙동강 동쪽 慶北일대를 지배하는 상당히 큰 연맹체의 왕국을 형성한다.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85)

干(Khan)이란 몽고에서 중국의 皇帝에 대응하여 불리웠던 君主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신라는 이때부터는 이미 王權이 確立됐다고 본다. 특히 奈勿王은 당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伽耶와 倭를 동원해서 신라를 괴롭히는 百濟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구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가 드디어는 고구려의 廣開土王은 신라를 돕기 위하여 出兵을 하여 倭를 물리치게 되었다. 그후 伽耶는 신라의 압력을 계속 받다가 法興王19年(532년) 本伽耶가 眞興王23年(562년)에 大伽耶가 신라에 병합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智證王代(500~514년)에는 국호를 新羅라고 하고 十대신 정식의 王號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하여 倭를 물리치고 백제를 견제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였지만 한편 그 세력에 대한 압력으로 신라는 힘을 뺏어 나갈 수 없게 되어 고심하다가 고구려 長壽王이 백제의 漢城을 함락시켰을때 백제에 1만명의 원군을 보내어 동맹관계를 갖기 시작하는데 백제가 서울을 熊津(공주)으로 옮긴 후 東城王代에는 특히 왕가에 婚姻을 통하였음은 주목되는 바이다.

法興王14年(527년)이후에는 佛教가 공인되어 국가의 통일을 위한 사상적 뒷받침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 皇龍寺와 같은 巨刹을 세워 신라의 정신적 支柱를 세움으로서 결국 三國統一을 이룩하는 큰 업적을 세우게 된다. 신라의 眞興王은 먼저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쳐서 한강 상류까지 점령하고 다시 백제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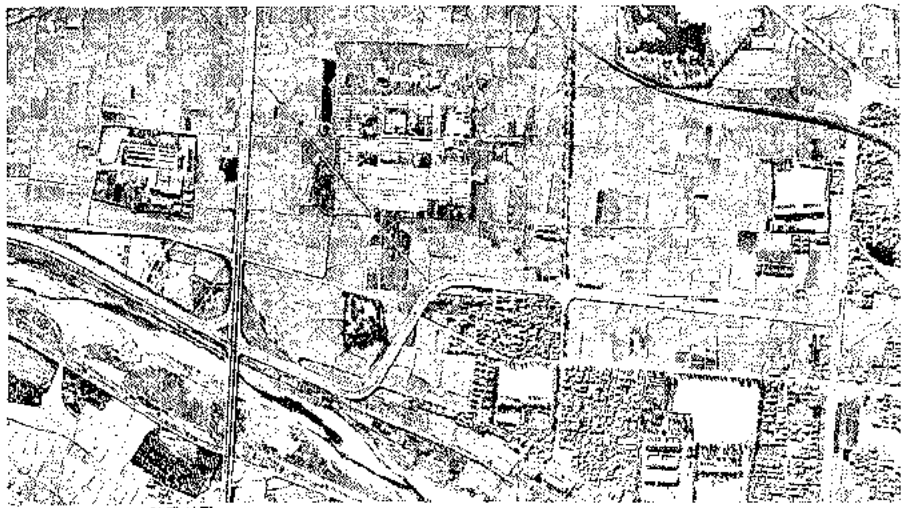
축출하여 한강지역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정복사업은 실제로 남아있는 昌寧, 北韓山, 黃草嶺 및 磨雲嶺의 진흥왕 巡狩碑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신라는 중국 唐과 합세하여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668년에는 고구려를 망하게 하였으며 671년에는 唐軍逐出을 위한 전투에서 泗水城을 함락시킴으로서 三國을 통일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신라는 건국 이래 통일신라가 망할 때까지 千餘年間을 慶州에만 도읍을 두었기 때문에 이곳에 중요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신라의 문화특성은 고구려나 백제에서와 같이 외국과의 빈번한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구려나 백제의 국내의 문화 특성을 골고루 접할 수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양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신라시대의 조형문화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전통의 문화를 영위하였던 것이다.

2. 都城

신라가 千餘年間을 경주에 계속하여 도읍을 정한 데는 그곳이 先祖의 發祥地 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要壘의 분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주는 중앙부에 시가지인 평지를 중심으로 농쪽에는 明活山이 있고 북쪽에는 金剛山(北岳), 西에는 玉女峰, 仙桃峰(西岳)이 있으며 남쪽에는 金敎山(南山)이 놓여 주위를 둘러보고 이들 산 사이로 흘러 내리는 물은 북에는 북악 남쪽 普門池에서 흘러 東에서 西로 가로 질러 도시의 북쪽을 차단한 北川(闊川)이 있고 남측은 月城 남변을 끼고 흘러 北川과 같이 도시 서측을 가로지른 西川에 合流하는 南川(蛟川)으로 막혀 있다. 그러므로 경주의 도심지는 동측을 제외하고는 西, 南, 北 3方이 하천으로 다 막혀 있는 셈이다. 신라가 최초로 宮室을 만들었다는 남산 서쪽 기슭 지금의 昌林寺址 부근을 중심으로 도성이 발달되었다고 생각되나 그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三國史記』에 보면 赫居世 21年(B.C 37年)에 築京城

◆ 張慶浩

36年生으로 한양공대 건축과를 졸업(61)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을 거쳐 87년 3월 제2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재직중이다. 1988년 홍익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皇龍寺址부근 항공사진

號曰金城)이라 하여 金城을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정식 명칭을 갖는 신라 최초의 宮城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궁성에 대하여는 『東京雜記』에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 <당시 府東쪽 3리에 金城이 있었는데 赫居世 21년에 쌓은 것이며 土築 주위가 2,407尺이다>라고 했다.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그 후 婆娑王 22年(101년)에 <金城 東南에 月城을 築城하고 혹은 在城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주위가 1,023步이고 新月城 북쪽에는 滿月城이 있는데 그 주위가 1,838步다>라고 했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金城은 현 瞻星臺 부근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三國史記』慈悲麻立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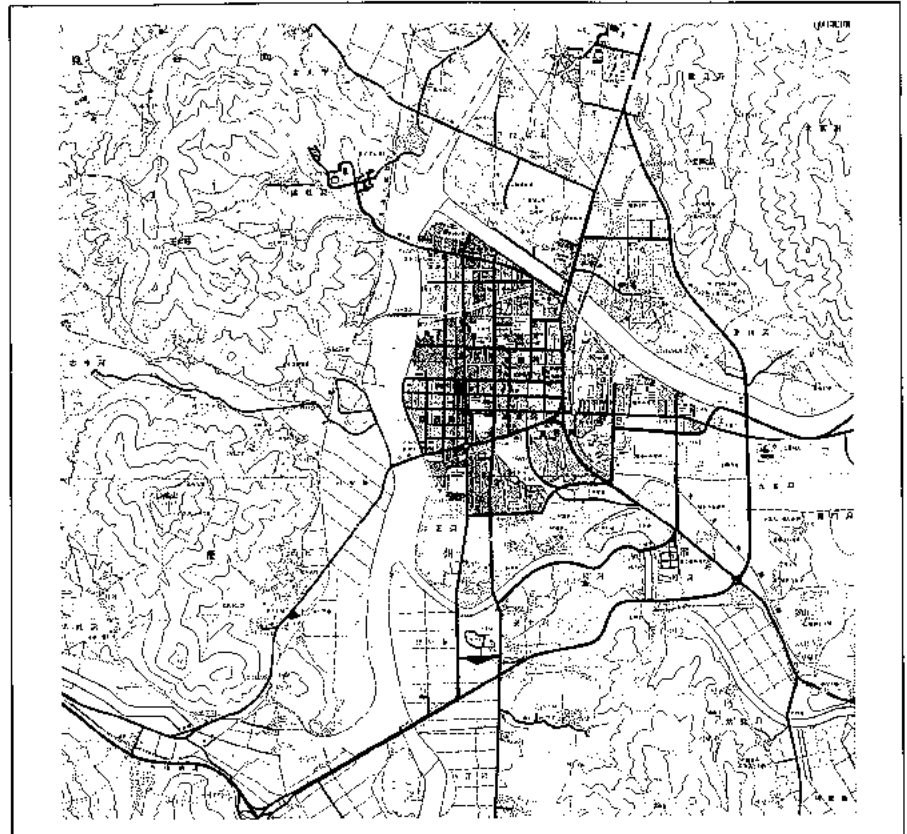
12년(469년)에는 <定京都坊里名>이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둑판과 같은 도시계획에 의한 坊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智證王 12年(509년)에는

<置京都東市>라고 하여 市街를 차츰 동쪽으로 확장시켜감을 알 수 있고 法興王代부터 佛教를 받아들여 皇龍寺를 宮 동쪽에 세우고 이것이 동쪽 市街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황룡사 부근에 弘公窟像이나 지도상에 나타나는 坊里의 구획은 140~160 m로 나타나고 있어 東魏尺으로 400~460尺의 방형으로 나타난다. 실제 황룡사지 주변 발굴조사에서는 동서 약 140 m, 남북 약 160 m의 坊담장지가 확인되었다.

3. 宮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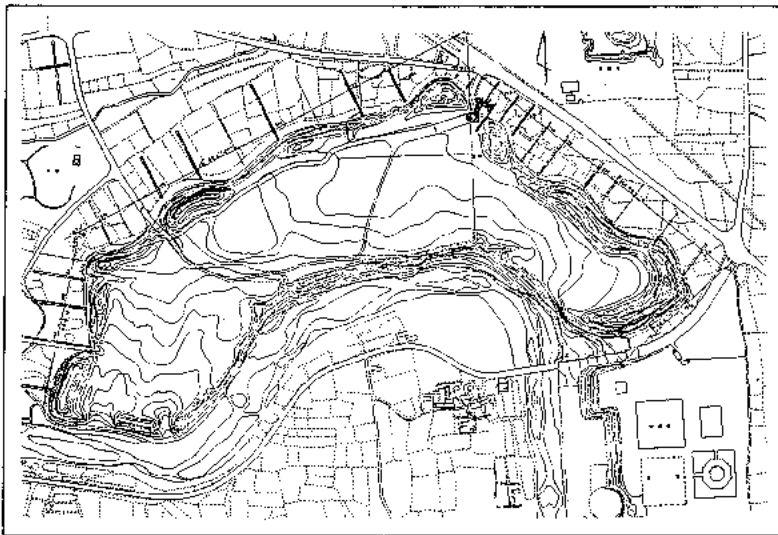
궁궐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君主가 지배계급으로서 民을 다스리기 위한 活動空間으로 王이나 帝侯 및 그의 가족이 거처하거나 政務를 보던 建築群을 말한다. 그러므로 宮闕은 고대神殿 및 종교건축과 더불어 權威를 상징하며 나타냈고 規範과 制度를 갖는 당시 모든 건축의 理想型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왕조 사회에서 왕족과 官僚계통에 의하여 형성된 上層文化의



▲慶州市街地圖



▲皇龍寺址 南東便 坊(담장)址



▲ 半月城 平面圖



▲ 月城 東門址 礎石

발생중심지로서 그 시대 그 나라 最高의 화려한 건축문화를 이루어 高貴性과 傳統性, 藝術性을 나타내는 건축을 조영했다고 할 수 있다.

東洋 궁궐건축의 발생은 기원전 數世紀 중국 奴隸制사회를 이룬 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周禮考工記』에 기술한 殷의 重屋之制라던가 周代 明堂說 등도 당시의 궁궐건축을 의미하여 초기적인 궁궐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宮都에 대하여서도 『周禮考工記』 匠人條 (左朝右社 面朝後市)와 (匠人營國方九里) 및 (國中九經九緯經塗九軌)라 되어있어 당시 宮室건축제도가 이미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궁실의 配置 원리로서 漢代 『史記』 天官書에 나오는 天文사상에 입각한 배치를 기본으로 한다는 說이 있어 앞서 기술한 고구려의 淸岩里사지의 배치형식을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한 고구려의 安國宮은 이러한 기본 배치를 정연히 나타내기 보다는 非對稱의인 배치였음을 알 수 있다.

宮闕建築은 시대와 지형에 따라 건물 배치 및 空間構成에 있어 변화 발전되어 왔다. 신라시대의 궁궐은 그 기록과 遺址가 있으나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적으로論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다만 기록에 의한 궁궐자료와 일부나마 확인된 유적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려 한다. 신라 최초의 궁궐이 세워진 기록으로서는 『三國遺事』 二聖降誕說에 (營宮室於南山西麓(今昌林寺))라고 현재 남산 서쪽의 창림사지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앞에서 이미 기술한 『三國史記』에 기술된 金城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고려시대부터 발견되어 이어온 『東京雜記』에도 기록되어 (府의 東三里되는 곳에 赫居世 21年 甲申(B.C 37)에 京城을 축성하였는데 金城이라 불렀다. 흙으로 쌓은 주위가 2,407尺이고 27年 己丑에 궁실로서 金城을 세웠다)라고 하여 이것은 신라 궁궐로서 처음 이름이 알려진 궁궐이었다. 그후 나타나는 것이

『三國史記』 婆娑王 22年條에 나타나는 月城 또는 在城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金城은 月城의 西北쪽에 있었던 것을, 또 滿月城은 월성의 북쪽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金城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瞻星臺가 있는 부근이라고 추측되는데 최근에 제작된 航空攝影圖를 보면 다른 곳 보다도 이 부근에 坊里구획이 나타나있지 않은 점도 그 심증을 굳힌 뿐 아니라 근래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중인 瞻星臺 남쪽 월성과의 사이에서 직경이 1m가 넘는 圓形초석이 세를 지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궁궐건축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가히 짐작이 된다. 문헌에 의하면 첨성대는 궁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즉 圃隱 鄭夢周의 詩에 (월성안에 첨성대 우뚝한데 玉笛소리에 만고의 바람도 머금고 문물은 이미 신라대에 따라서 다하고 아아! 산천만은 고금이 같고나)라고 하여 월성안에 첨성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秋琴 姜堦의 시에는 (半月城이 푸르고 거칠게 퍼지는데 하늘에 우뚝 솟은 玉臺만 외롭고 양반과 궁녀는 다 사라진 자리에 는 따갑게 비치는 기운 별에 옛서를 알아보네) 또 『三國史記』에 의하면 그 후에도 沾解 尼師今 3年(249년)에 南堂을 짓고 眞平王 때(585년) 大宮 梁宮 沙梁宮 등 삼궁을 조영하였음을 알 수 있고 『三國遺事』에는 진평왕이 內帝釋宮(天柱寺터라함)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眞聖王 때는 百宮의 賀禮를 받던 朝元殿이 있었음을 三國史記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들 초기의 신라궁실은 비교적 검소하게 조영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남아 있는 유구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半月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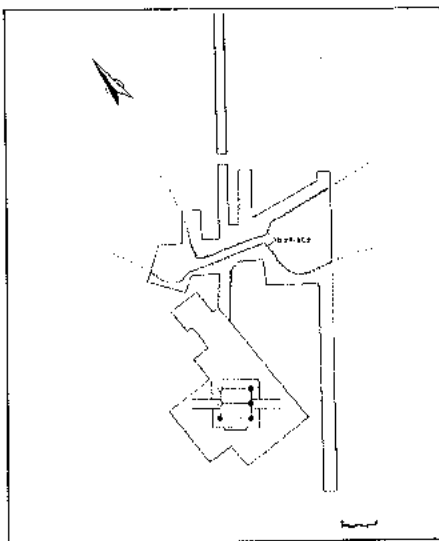
월성은 婆娑尼師今 22年(101년) 봄에 쌓았는데 그 주위가 1,023步라 하였다. 그러나 『東京雜記』에서는 월성은 동남5리에 婆娑王 12年 辛卯(91년)에 쌓았다. 형상이 반월같아서 붙인 이름이다. 후

在城이라고도 한다. 흙으로 쌓아 둘레가 2,023보인데 『東國輿地勝覽』에는 3,023보라 하였다.

儒禮王 7年(290년)경에 큰 홍수가나서 월성이 무너지자 8年 辛亥에 보수하여 세웠다. 炤智王 9年(487년) 丁卯에 지붕을 하고 10年 戊辰에 이곳에 이사와서 살았다고 하여 창건연대도 서로 다르고 또 둘레의 길이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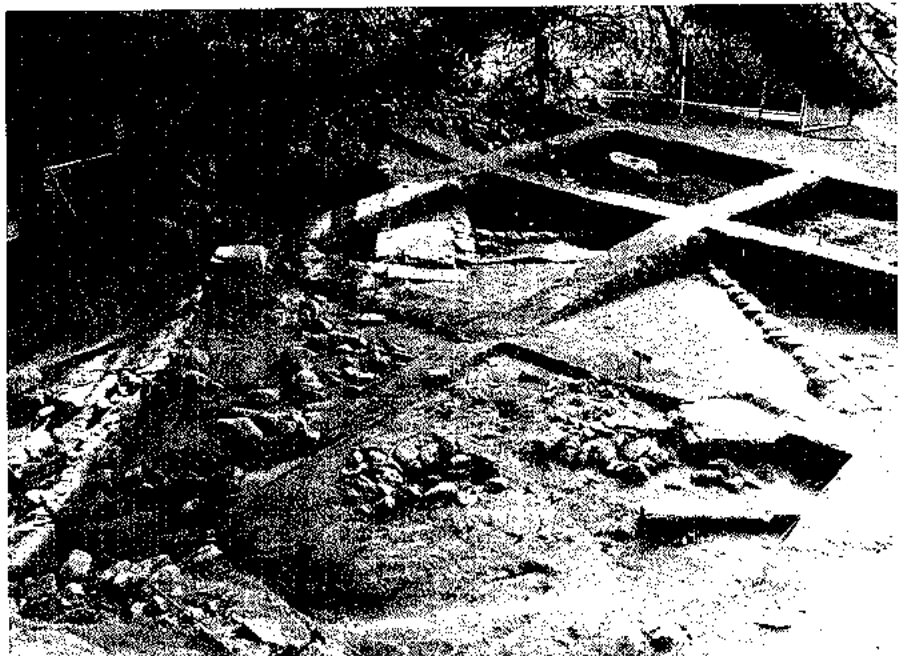
이것은 『三國史記』(1075年刊), 『東京雜記』(1669年再刊), 『東國輿地勝覽』 등의 기술시대가 다르기 때문이거나 誤記일 수도 있다. 현재 月城址는 경주시 仁旺洞에 있어 남산 동쪽에서부터 北流하는 蛟川이 굽이쳐 半月狀을 이룬 곳이다. 그 주위를 살펴보면 동북측에는 안압지가 놓이고 서북측에는 첨성대와 奈勿王陵, 鷄林 또 서편에 鄉校가 있고 남쪽 문전에는 서쪽으로부터 현 司馬所앞에 月精橋址 그 옆에 日精橋址 그리고 다시 동쪽에 孝不孝橋址가 놓이고 그 남쪽 문전을 건너 좀 떨어져서 남산 西麓에 창림사지와 鮑石亭址가 있다. 성의 규모는 東西 길이 약 860m이며 성은 흙으로 덮혀있어 잠목이 무성한데 성높이는 약 10~18m 정도로 불규칙적이며 몇 군데 봉우리같이 높은 곳도 있다. 城內에는 평평한 평지가 있어 초석이 일부 노출되어 있고 북쪽에 석벽고가 있는데 화강석으로 쌓여져있고 그 入口 媚石에는

『崇禎紀元後再辛酉秋八月移』라 하여 조선시대에 옮겨진 것이다. 城의 西方에는 사방문이 있어 성을 드나들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정문은 西端에 歸正門으로 추측되고 그외에 南門 仁化門 등 많은 문이 있었다. 성내는 넓은 평탄지이고 일부 잔디가 덮여있다. 여기는 왕궁과 政務廳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처음 南堂이라던가 朝元殿등의 중요한 건물명이 나오는데 眞德女王 5年(651년)에 왕이 조원전에 남시어 백관에 正賀를 베풀어 賀正의 禮를 처음 시작하였다. 통일적후에 文武王은 19年(679년)에 궁궐을 중수하여 장려함



▲ 月城 東門址 發掘 現況圖

극에 달하였다 하여 통일신라때에도 왕궁으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월성의 넓이는 약 183,600평방미터(55,600坪)이다. 1976년 3월부터 1977년 5월까지 雁鳴池 발굴조사에 이어 臨海殿과 월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1979년과 1980년의 2년에 걸쳐 월성 동북쪽에 있는 東門址를 발굴한 바 있는데 문은 성위 높은 곳에 위치하여 외부에서부터 동쪽으로 기울어진 북향으로 되어 정면1칸 측면2칸인 평면임을 알 수 있었다. 남아있는 초석으로 보아 주칸은 정면이 4.7m(16唐尺)이고 측면도 같은 4.7m를 2칸으로 나누어 당칙으로 8尺 2칸으로 되어 있었다. 또 기단은 전면이 길이 6.7m 측면 6.7m인 정4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기초로는 동측면에 초석 3개와 서남귀에 초석 1개 그리고 積心石이 남아있고 서북측에는 깎여져 없어졌다. 초석은 하반이 70cm되는 角石上面에 圓形柱座를 하고 있는데 각 곳기둥 초석에는 고매이가 동서편을 따라 내향하여 있고 동편의 중앙초석만은 4각형 주좌를 갖고 고매이 놓일 자리를 뿔 흔적이 문쪽으로 나 있다. 이 초석 내측으로는 信枋石과 같이 생긴 길이 1m 폭45cm되는 평평한 가공석을 붙여 놓았으며 그 반대편에도 흔적이 있다. 또 문의 좌우 양면에는 고매이 벽을 올려 쌓은 흔적을 모퉁이의 초석과 중앙초석 사이에 놓인 塼의 유구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기단의 변은 장대석과 막돌이 혼용되어 있고 서북쪽 귀에는 隅石의 지대석도 잘 남아 있는데 내부측 기단변 중앙에는 폭 0.3m 길이 3.35m되는 디딤돌을 無紋塼으로 정연히 깔았다. 기단의 내부 上面은 자연석이 흐트러져 있어 基壇築土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단석열 높이와 비슷한 지반에서 동측 중앙초석 外邊에 붙어 동으로 뻗은 담장지가 노출되었는데 폭이 1.4m이었다. 이 담장지 양면에는 자연석으로 外面이 바르게 정열되어 있다. 그 반대편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은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문은 초석의 주좌형태로 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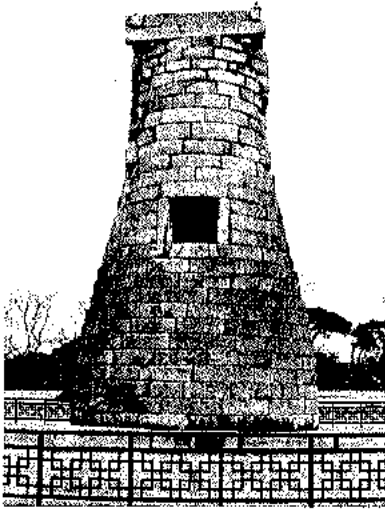
▲ 月城 東門址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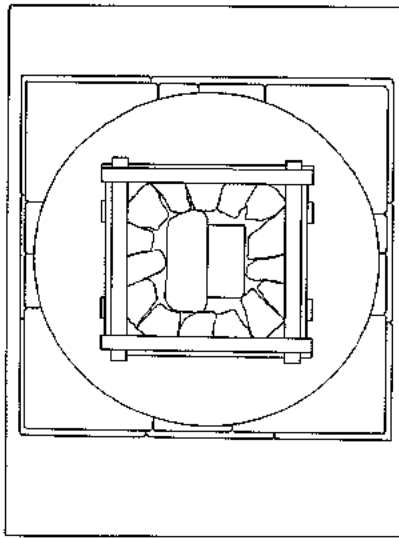
▲ 月城 東門址 石礎 孩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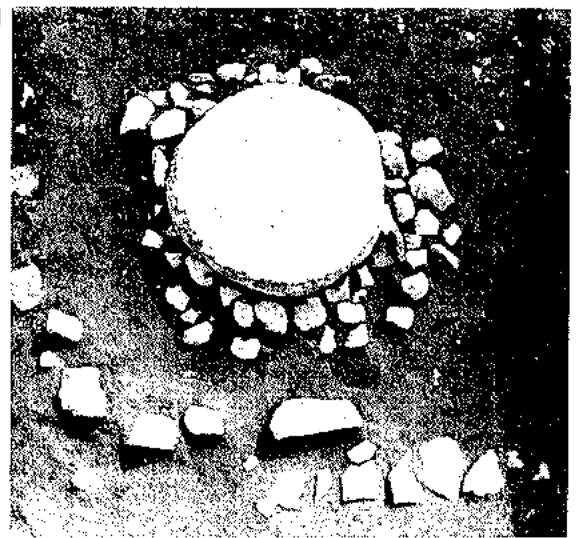
▲ 靖寧대 南側 建物址 全景



▲ 점성대 全景



▲ 점성대 平面圖



▲ 점성대 南側 建物址 礎石

뿔기둥은 圓柱로 되어 있고 관문이 달리는 중앙기둥은 4각기둥을 하여 지금의 건물 정문가구와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전면이 한 칸으로서 단층 기와집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 이 門址 동편 10여m 떨어져 성곽을 조사하기 위해 횡단면 조사를 하였는데 축성면에서 불과 0.45m 지하에서 自然石이 성의 길이를 따라 놓이거나 또는 무질서하게 산재하여 축성할때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밑 외곽쪽으로 넓직한 자연석을 몇 단씩 깔아 성곽을 따라 정열한 石段이 나왔고 그 밖에는 물이 나는 지질로 되고 여기서 다시 10여m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마주보는 석축이 같은 방식으로 쌓여있다. 이 양 석축열의 간격은 동쪽으로 가면서 차츰 넓어져 최고 20여m까지 되고 문지 앞 외부에서는 약 1.5m까지 좁아져 길이 10m가량 유지되며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서 다시 넓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삼국시대에 성 주위에 흔히 시설한 周濠(적을 방어하기 위한 못)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 주호는 동서로 길이 121m까지 부분 확인하였다. 또 문지 북측에서 안압지를 향하는 방향으로 탐색핏트를 넣어 조사한 바, 表土下 약 1.5m 간격으로 末口 15cm되는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다시 원목을 차곡 차곡 가로 대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로를 위한 방책으로 생각이 되나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성곽은 전술했듯이 土石을 혼용하여 쌓은 듯 하지만

그 基底 외곽은 자연편석을 3~4단 쌓아 잘 정열된 부분도 있다. 결국 이 월성은 王城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성으로 다른 궁과는 일단 격리를 하여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궁실임을 알 수 있었고 1986년부터 실시한 월성 해자 발굴에서 성 북쪽변으로 주호를 돌리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2) 露臺臺

점성대를 굳이 궁궐건축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 구조물은 당초부터 궁성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궁궐건축에 포함시켜 기술한다. 『三國遺事』 선덕왕 知幾三事條 끝에 〈善德之創靈廟寺 具載良志師傳 詳之 別記云 是王代 鍊石築瞻星臺〉라고 하여 이때 (632-647년)에 돌을 다루어 점성대를 쌓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동양 最古의 천문대이다. 점성대는 입면으로 보아 입이 넓은 우유병과 비슷하게 생겼다. 석축으로 27단을 쌓아 올렸는데 원통형이다 높이에 따라 직경을 달리하는 입면에 배흘림의 曲을 나타내고 또 정상부에는 상부 직경에 맞추어 井자형으로 잔 2단의 석단이 놓였다. 밑면의 직경은 약 5.12m이고 높이는 약 9.17m이며 남면 중앙지상에서 약 5.2m위에 口자로 뚫린 구멍이 있다. 이 구멍에 들어가 보면 이 구멍의 문지방 높이까지는 내부가 흙으로 차 있고 윗쪽은 텅 비어있다. 여기서부터 사다리나 기타 방법으로 위로 오른것으로 추측된다.

화강석 석축은 층이 같고 표면쪽은 원주곡선에 맞게 가공하여 차차 올라가면서 안으로 물려 쌓아 안정감을 주도록 하고 밑에는 方形 2단으로 잔 長臺石壇을 갖고 있다. 그 한편의 길이는 약 5.3m의 정방형이다. 또 상부 井자형 部의 한 변은 약 2.58m이다.

□ 註 □

- 1) 周禮考工記에 「殷人重屋 堂脩七尋 堂崇三尺 四阿重屋」이라 함.
- 2) 周禮 考工記에 「周人明堂, 度九尺之筵 東西九筵 南北七筵 堂崇一筵 五室凡室二筵」라 함.
- 3) 美田美代治, 朝鮮上代建築の研究.
- 4) 「有府東三里 赫居世 二十一年 甲申築京城號曰金城 土築周二千四百七尺 二十七年己丑 營宮室於金城」
- 5) 「婆娑王 二十二年 於金城東南築城 號曰城或號在城 周一千二十三步 新月城北有滿月城 周一千八百三十八步」
- 6) 「瞻星臺 元月城中 玉笛聲含萬古風 文物已隨羅代盡 嗚呼山水古今同」

〈參考文獻〉

- 考古美術 162・163 號,
統一新羅 時代의 美術特輯(宮殿建築),
韓國美術史學會, 1984.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76-0123~5
FAX 279-1718



제2기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행정대학원 연수생모집안내

〈현대건축과 도시계획〉

本協會國際委員會에서는 美國의 傳統있는 私學名門인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協議를 하여 『Advanced Course of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에 關한 研修課程을 開設 하였습니다.
1989년 2월 26일 부터 3월 7일(9박 10일)까지 개최되는 本 教育課程에 參與할 會員을 募集하오니 多數 同參하시어 美國의 首都 워싱턴의 建築行政, 經營의 眞髓를 見學視察하시고 國際感覺을 높힐 수 있는 自己發展의 機會로 活用하시기 바랍니다.

주 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기획·주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회관(581-5711~4)

국제해외협력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24, 원석빌딩 201호(744-4007)

교육장소: 조지워싱턴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워싱턴 D. C.)

연수과정: 『Advanced Course of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연수내용: 대학강의 및 시찰(건축·설계·관련기관)

연수기간: 1989년 2월 26일~3월 7일(9박10일)

참가자격: 회원 또는 건축계 관련인사

참가인원: 20명 이상

참가회비: ₩3,700,000(왕복항공료, 숙박비, 연수교육비, 시찰기관개방비, 국제협력비, 통역료 포함)

신청비: ₩1,000,000(참가회비 일부금으로서 반환치 않음)

신청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방문도시: 뉴욕, 워싱턴, 시카고

신청마감일: 1989. 1. 25. 17:00까지

기타: • 研修後 조지워싱턴大學校 行政經營大學院측으로부터 修了證受與.

• 教育期間中 全 課程이 동시 通譯이 되므로 英語를 이해못하시는 분도 參與하실 수 있음.

• 修了者에게 조지워싱턴大學校 行政經營大學院의 同窓會 準會員 資格賦與

住居用 建物の 에너지 計算尺 開發에 관한 研究

A Study on Development of Energy Calculation Slide Rule for Residential Building

韓國 動力資源研究所 建物研究室

□編輯者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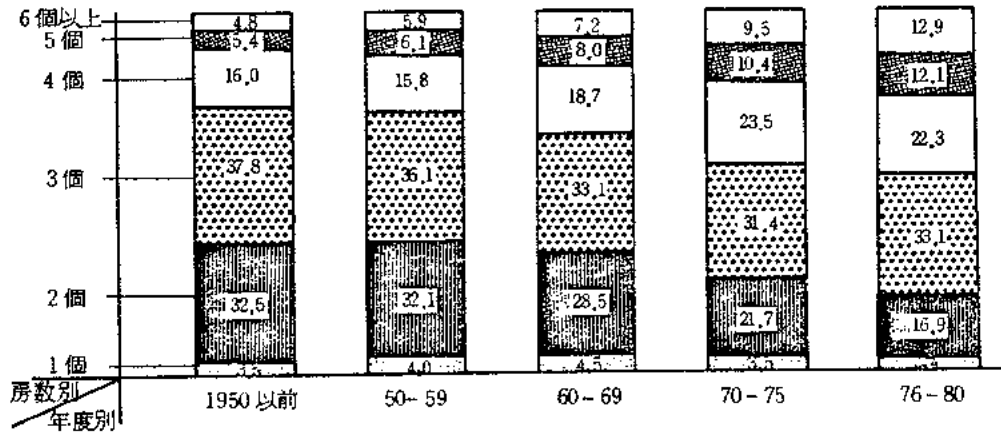
본 원고는 本協會 건물에너지
분과위원회 (위원장 李鍾寬)에서
우수 연구논문으로 추천한 원고로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건물 연구실의
朴相東, 申基植, 張海鎭, 太春璧
4인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勞作으로 本誌에서는 8812호부터
모두 2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1. 序 論

1. 研究目的
주택에서의 에너지소요량 계산방식은 간단한
手 계산방식에서, 정밀컴퓨터 프로그램
방법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주택에너지사용량은 건물형태,
유지·운영방법 및 환경등에 따라 달라진다.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소요량은 건물
자체의 열성능에 관계되며, 室의 유지온도,
내부발열, 기상조건 및 지형적인 요인들과
서로 연관되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단한 手 계산방식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에너지소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NBSLD,
DOE-2, BLAST 등이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정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현재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크기가 방대하여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데이터 작성 및 컴퓨터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형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시뮬레이션에
적합하며,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해석에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종래의
수계산에 의한 에너지 해석방법보다
간단하고, 정밀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주택의
소유주나 건축설계자등의 건물에너지분야의
비전문가이면서 에너지 사용 및 계획의
1차적인 관련자들도 직접 주택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에너지
계산방법 즉, 에너지 계산자를 개발하여,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시키고, 주택의
신·개축시 최적의 에너지 절약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한다.

2. 研究範圍 및 方法

건물의 냉난방에너지의 크기는 지역적인
기후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절약방법은 1차적으로 건물의
단열화에 따른 부하의 감소에 주안점을
둔다. 우리나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난방에 치중하여 왔고, 온도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난방부하 절감요인이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과 난방에너지
소요량 계산방법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건축설계자 또는 건물소유주들이 직접
주택의 난방에너지를 계산하여 신축 또는
개축시 에너지 절약적인 설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산결과와
정밀성과 사용의 용이성 및 다양한
부하요인들의 변경에 따른 부하의
영향도출이 중요한 안전이 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 주택의 현황 및
신축경향을 파악하여 대표적인 주택을
선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부하요인들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정밀 부하계산
프로그램인 DOE-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벽, 지붕, 바닥의 단열조건, 창구조,
창면적비, 방위별 창 분배비율, 侵氣量,
건물向, 건물형태, 1,2층간 면적비, 바닥면적
등을 변화시켜, 서울, 부산, 제주, 대전 및
대구 지역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여 각
요인별 변화에 따른 부하량 차이를 표로
작성하였다. 내부발열조건은 신축건물일
경우 고려하기 곤란하며, 건물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른 부하를 구함으로써
여러가지 절약방안에 대한 열적 성능을
비교하기 용이하므로 내부발열은
제외시켰다.
5개지역중, 서울, 부산, 대구 3개지역을
기본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상자료의
이용 가능한 전국 주요도시를 기본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난방부하계수를 결정하였다.
기본지역에 대한 부하요인과 부하차와의
관계식을 구하고,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자를 고안하였다. 아울러 계산자의
정밀도를 DOE-2 출력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2-1) 建築年度別 住宅의 室數別 比率
* 1980年 人口 및 住宅 센서스 結果 報告書, 經濟企劃院, 1980.

2. 基準住宅 選定

1. 國內 住宅現況

韓式주택은 우리의 풍토와 민족의 생활에 적응해 오면서 발달해 온 우리 고유전통의 주택형식이다. 서양건축이 전래되고, 최근 시멘트 제품 생산이 본격화 함에 따라 한식과 양식이 가미된 질층식 주택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평면적으로는 마루방을 거실로 만들어 주택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8·15해방 이후의 주택에서는 욕실을 실내에 설치하기 시작하여 주거환경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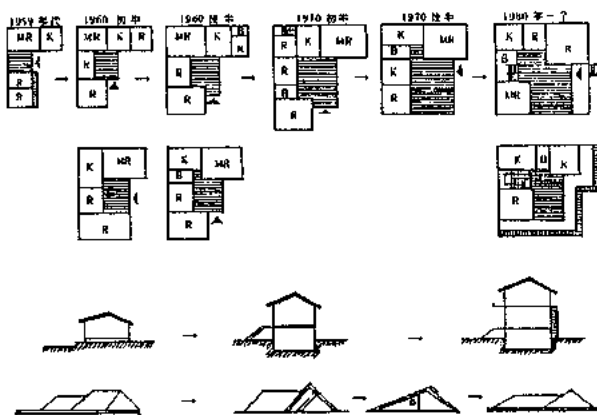
(표 1)을 보면 연도별 주택보급율은 '75년 1.42가구/주택, '80년 1.49가구/주택, '85년 1.53가구/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 주택수요가 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나 주택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택의 양적,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가구당 인원수는 '75년 5.13명/가구, '80년 4.7명/가구, '85년 4.23명/가구 등으로 매년 가구당 인원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 住宅規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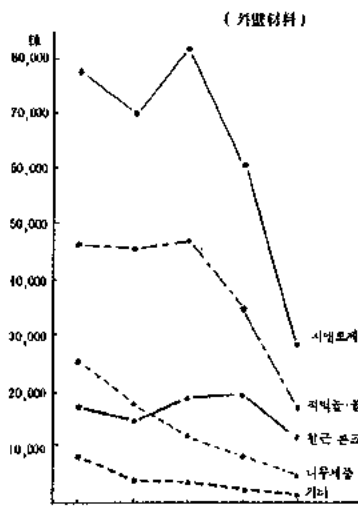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국내 주택의 평균면적은 (표2-1)참조)매년 커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70년 13.8평, '75년 16.7평, '80년 20.7평, '85년 22.3평이다. 건축 연도별 방수는(그림2-1)참조) '50~'70년까지는 2~3실이 주종을 이루었고, '70년 이후부터는 3~4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80년에는 3.6실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으로 인해 매년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들면서도 주택당 방수는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國內 住宅의 平面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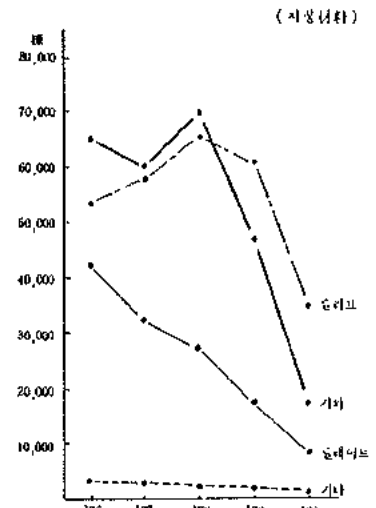
1960년 이후의 국내주택 평면변화를



(그림 2-2) 60年以後의 單獨住宅의 變化
* 單獨住宅 設計指針에 關한 研究, 建設部, 1984.



(그림 2-3) 建築 材料別 新築棟數



(그림 2-4) 建築 材料別 新築 棟數

* 1980年度 人口 및 住宅 센서스 結果報告書, 經濟企劃院, 1980.

表 2-1. 國內 住宅現況

區 分	'75年	'80年	'85年	備 考
平均住宅面積	16.7坪	20.7坪	22.3坪	'70年 13.8坪
住宅數	4,769,234	5,318,880	6,274,380	
家 口 數	6,754,257	7,969,201	9,575,356	
住宅當家口數	1.42	1.49	1.53	
家口當人員數	5.13	4.7	4.23	

* 人口 및 住宅 센서스 結果報告, 經濟企劃院, '70, '75, '80, '85

表 2 - 4. 住宅形態別 家口당 에너지使用量 (Mcal / 家口)

区 分	石 炭	石 油			가 스		電 力	其 他	合 計
	煉 炭	燈 油	輕 油	B - C	프 로 판	都市가스	電 氣	薪 炭	
單 独 住 宅	15,073 ²	336 ¹	455 ²	-	702 ²	1 ³	984 ²	324 ⁶	17,908 ¹
A P T	中央暖房	-	142 ¹	17,793 ¹	30 ²	1,431 ²	1,489 ²	-	20,887 ²
	個別暖房	13,408 ⁶	93 ⁴	-	800 ¹	257 ²	953 ²	-	15,513 ²
聯 立 住 宅	14,947 ⁶	196 ⁶	2,101 ¹	-	929 ²	32 ²	1,074 ¹	-	19,280 ²
住 宅 平 坪	13,996 ²	305 ³	567 ⁶	1,024 ²	687 ⁶	114 ¹	1,017 ²	247 ⁶	17,961 ⁶

* 1985年度 家計部分 에너지常設 標本 運營研究, KIER, 1985.

보면(그림2-2참조), '60년 후반에는 욕실이 주택내부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지하실이 생기기 시작함으로 인해 마루와 본 건물과의 활동관계가 악화되는 감이 있었으나, '70년대초 자동차 공업의 발전으로 차고가 주택내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마루 밑 부분의 천정고가 높아지고, 1층 바닥은 지면에서 1.2m 정도 올라가게 되어 반 지하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택면적의 증가와 더불어 속칭 미니 2층주택을 형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0년대 주택에서는 안방과 부엌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나타나다가 '70년대에는 안방이 꺾인 부분의 앞으로 돌출되어 그 위치가 고정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엌은 안방의 뒤쪽으로 대부분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부엌의 바닥 높이가 거실과 같아지면서 식당과 부엌을 겸하게 하여 부엌면적이 증가하고, 부엌, 식당, 거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확립되면서 거실의 기능이 강화 발전되어 오고 있다.

3. 構造體現況

가. 外部構造現況

'57~'80년에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그림2-3,4참조) 외벽 재료는 시멘트 제품이 가장 많으며('80년 45.2%), 적벽돌 혹은 돌제품('80년 26.1%), 철근콘크리트제품('80년 19.2%), 나무,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방재료는 슬라브가 가장 많으며('80년 54.6%), 다음이 기와('80년 29.2%), 슬레이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바닥재료에 대한 통계자료는 거의 없으나 국내 주택의 난방방식에 대한 통계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연탄아궁이 혹은 연탄보일러이며, 연탄보일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시멘트 바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나. 窓

국내 주택의 창에 대한 통계자료는 거의 없으며, 건축법에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10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표준주택중 '83년도에 지정고시된 표준주택과 도시중간층을 위한

단독주택(10종)에 대한 유리창 면적비를 구한 결과는(표2-2)와 같다. 방위별로는 남쪽이 약15%, 북쪽이 약 5%, 동·서쪽이 각각 1.5% 정도로 나타났다. 창은 외부구조체에 비해 K 값이 큰 관계로 열손실이 크다. 그러나 남쪽으로 면한 창은 겨울에 일사 취득으로 인하여 난방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설이며, 큰 면적의 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름의 자연통풍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쪽에도 적당한 크기의 창을 필요로 하며, 이렇게 하면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국내 주택의 유리창 면적화(창면적/바닥면적)는 대략 20% 전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방위별로는 남쪽에는 큰 면적의 창이 요구되고, 다음으로는 북쪽에 자연통풍을 위한 적당한

면적의 창이 요구되며, 동서쪽은 극히 적은 면적의 창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住宅의 에너지 消費構造

연도별 국내에너지 총 소비량은(표2-3)에서와 같이 '80년도에 41.32×10⁶ TOE, '83년도에 44.436×10⁶ TOE 로 나타났다. 이중 가계부분의 에너지소비량은 '80년도에 15.155×10⁶ TOE, '83년도에 13.35×10⁶ TOE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원 단위 (Mcal / m² · year) 는 '80년에 417 Mcal / m² · year, '83년에는 328 Mcal / m² · year 이고, '85년에는 255 Mcal / m² · year 로 나타났다. 즉,

表 2 - 2. 方位別 유리窓 面積比 (%)

区 分	東	西	南	北	計 (窓面積 / 바닥面積)
1 層 住 宅	1.77	0.93	15.57	5.12	23.32
2 層 住 宅	2.66	2.05	14.25	5.02	23.98

* '83년에 指定告示된 標準住宅, 建設部.

* 都市中産層을 위한 單獨住宅, 建設部.

表 2 - 3. 에너지源別 消費構造

(單位: 千 TOE)

區 分		'80年		'83年	
		使 用 量	構 成 比	使 用 量	構 成 比
家計部門	煉 炭	8,635.0	57.1	8,566.7	64.2
	石 油 類	1,354.8	8.9	1,324.1	9.9
	가 스	177.1	1.2	302.8	2.3
	電 力	516.9	3.4	684.0	5.1
	薪 炭	4,453.3	29.4	2,472.3	18.5
	計	15,155.1	100.0	13,349.9	100.0
産 業		26,165.3 65		31,086.7	
国内總消費量		41,320.4		44,436.6	
에너지原單位		417Mcal/m ² · year		328Mcal/m ² · year	

* '81에너지 센서스 結果報告書, 1981, 勳資部

* '84에너지 센서스 結果報告書, 1984, 勳資部

* 에너지原單位 = 家計部分 總使用量 / 平均 住宅面積 × 住宅數

* '80年度 및 '85年度 人口 및 住宅센서스 結果 利用

* '83年度 平均 住宅面積과 住宅數는 '80年度와 '85年度의 平均住宅面積과

* '80年度 및 '85年度 人口 및 住宅센서스 結果 利用.

住宅數를 平均한 값을 使用.

表 2 - 6. 月別 에너지 使用量

(Mcal /m²)

月	別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煉	炭	32 ⁷	29 ⁴	23 ⁰	15 ³	9 ²	1 ⁸	0 ⁰	0 ⁶	8 ⁷	17 ⁷	26 ¹	33 ³	198 ⁷
燈	油	0 ⁴	0 ³	0 ³	0 ³	0 ⁴	0 ⁵	0 ⁵	0 ⁵	0 ³	0 ⁴	0 ⁴	0 ³	4 ³
輕	油	2 ¹	1 ⁷	1 ²	1 ²	0 ⁰	0 ⁰	0 ⁰	0 ⁰	0 ⁰	0 ¹	0 ⁸	1 ⁶	8 ¹
B - C	油	3 ⁰	2 ⁴	2 ¹	1 ⁰	0 ⁴	0 ³	0 ²	0 ¹	0 ³	0 ⁶	1 ⁵	2 ⁶	14 ⁵
프	로 판 가 스	0 ⁸	0 ⁸	0 ⁸	0 ⁷	0 ⁸	0 ⁸	0 ⁹	0 ⁹	0 ⁸	0 ⁹	0 ⁹	0 ⁸	9 ⁶
都	市 가 스	0 ¹	0 ¹	0 ¹	0 ¹	0 ¹	0 ¹	0 ¹	0 ¹	0 ¹	0 ¹	0 ¹	0 ²	1 ⁶
電	力	1 ¹	1 ⁰	1 ⁰	1 ¹	1 ¹	1 ²	1 ⁴	1 ⁶	1 ⁴	1 ³	1 ²	1 ¹	14 ⁵
薪	炭	0 ⁶	0 ⁵	0 ⁴	0 ³	0 ²	0 ⁰	0 ⁰	0 ⁰	0 ²	0 ³	0 ⁴	0 ⁵	3 ⁵
計		40 ⁸	36 ³	28 ⁹	19 ⁰	12 ²	4 ⁸	4 ⁰	3 ⁶	11 ⁹	21 ⁶	31 ⁴	40 ³	255 ⁰

* 사사오입에 의한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1985年度 家計部分 에너지常設 標本 運營研究, KIER, 1985. (家口當 에너지사용량을 換算하였음)

'80년에 비해 '83년도 주택의 에너지 원단위는 약21.3%, '85년도는 38.9%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법에 "건축물에 있어서 열 손실방지"조항이 신설되고,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연립주택, 단독주택, 개별 난방식 APT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별로는 연탄이 13,996 Mcal /가구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BC유, 전력, 프로판, 도시가스, 경유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난방설비용 에너지 및 취사용에너지, 문화용(T.V, 냉장고, 선풍기등)에너지 사용이 포함된 것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 住宅形態別 에너지消費構造

1985년도 "가계부분 에너지 상설표본 운영 연구"에 의하면 가구당 에너지사용량은 단독주택이 17,9 Mcal /가구, 중앙난방식 APT는 20,888 Mcal /가구, 개별난방식 APT는 15,513 Mcal /가구, 연립주택은 19,280 Mcal /가구로 나타났다. 주택평균은 17,962 Mcal /가구이다. 즉, 가구당 주택형태별 에너지 사용량은 중앙난방식 APT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2. 에너지 原單位

건평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9평 이하가 1,420.5 Mcal /평, 10-14평, 1,119 Mcal /평, 15-19평, 943.9/평 등으로 면적이 클수록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841.6 Mcal /평(=255 Mcal /m²)으로 나타났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큰

3. 月別消費構造

국내 주택의 월별 에너지 사용량은 <표2-6>과 같으며, 월별 에너지 소비흐름은 "U"자와 같으며, 난방기인 1월, 12월, 2월, 11월순으로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별로는 난방기에 연탄, 경유, BC유, 신탄등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난방기에는 전력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용인 가스(프로판가스, 도시가스)는 연중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용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약88%로 나타났으며, 이중 연탄과 신탄은 취사용으로도 일부 사용되므로,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약80%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表 2 - 5. 單位面積當 에너지使用量

區 分	使用量 (Mcal/坪)	建 坪 別 家 口 數 分 布	加 重	備 考
9坪 以下	1,420.5	2.9%	40.6725	
10~14坪	1,119.0	14.2%	158.898	
15~19坪	943.9	22.6%	213.3214	
20~29坪	781.3	37.7%	294.5501	
30~39坪	621.4	13.5%	83.889	
40~49坪	604.7	5.3%	32.0491	
50~59坪	497.2	2.6%	12.9272	
60坪 以上	483.6	1.1%	5.3196	
合 計	-	100.0%	841.6269	(=255Mcal/m ²)

* 85년도 家計部分 에너지常設標本調查研究, KIER, 1985.

表 2 - 7. 建物 概要

建 物 名	1層住宅('83-25-라)	2層住宅('84-40-75)
面 積		
地下室	14.4 m ²	19.44 m ²
1 層	82.26 m ²	83.16 m ²
2 層	-	52.02 m ²
計	96.66 m ²	154.62 m ²
暖 房 方 式	煉炭溫水 보일러	單独 기름 보일러
構 造 (共通)	外 壁 적벽돌(0.5 B) + 斷熱材 + 시멘트벽돌 (1 B) 地下壁 鉄筋콘크리트 200% + 액방위 保護몰탈 바 닥 잡석다짐 + 버림콘크리트 + 슬라브 150% + 斷熱材 + 자갈層 + 마감 지 붕 시멘트기와 + 防水層 + 슬라브 120% + 斷熱材 + 空間 + 마감 窓 2重窓, 或은 複層 유리	

3. 基準住宅 選定

본 연구에서 에너지 해석을 할 건물의 선정은 건설부에서 지정고시한 표준주택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였다.

○평면

—장·단변비는 1:1.5~2.0

—평면은 가능한 굴곡이 적은형

○입면

—지붕은 박공지붕

—천정은 평천정

○단면

—외벽은 적벽돌(0.5 B) + 단열재 + 시멘트 벽돌 (1 B)

—내벽은 시멘트 벽돌 (1 B)

○난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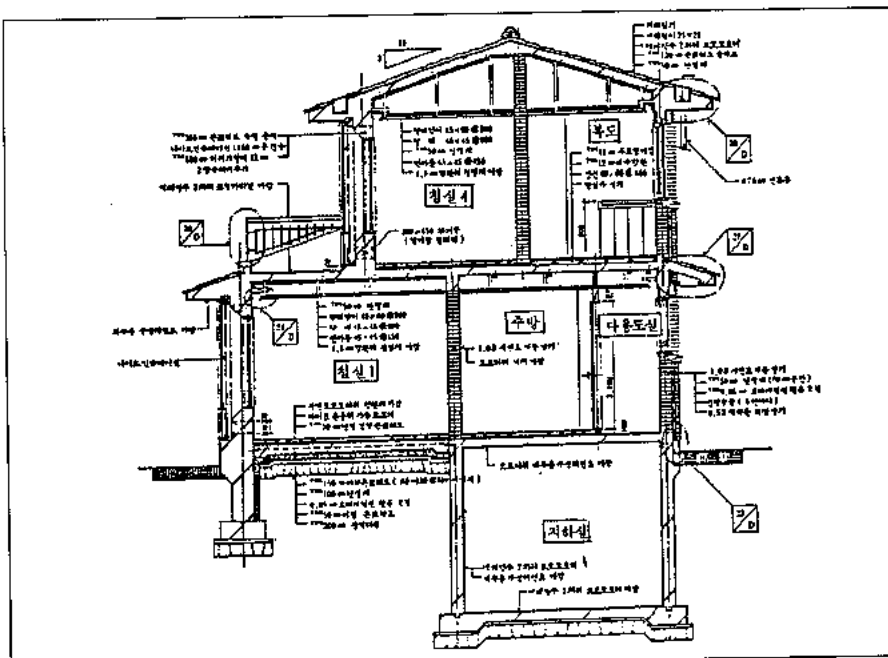
—1층주택(25평형)은 연탄 온수 보일러

—2층주택(40평형)은 단독 기름 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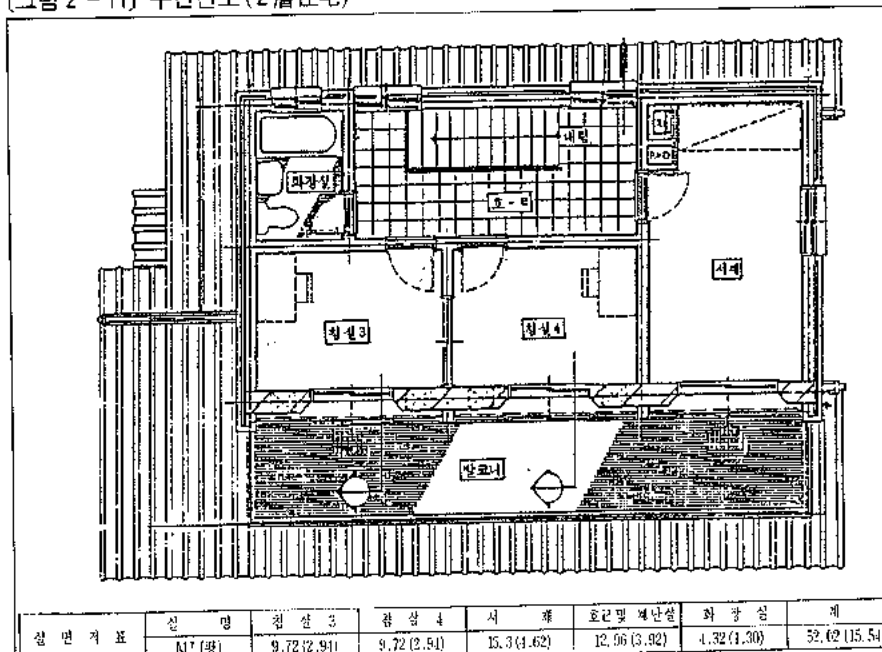
○소요 방수

—1층주택은 3실(표준주택 중에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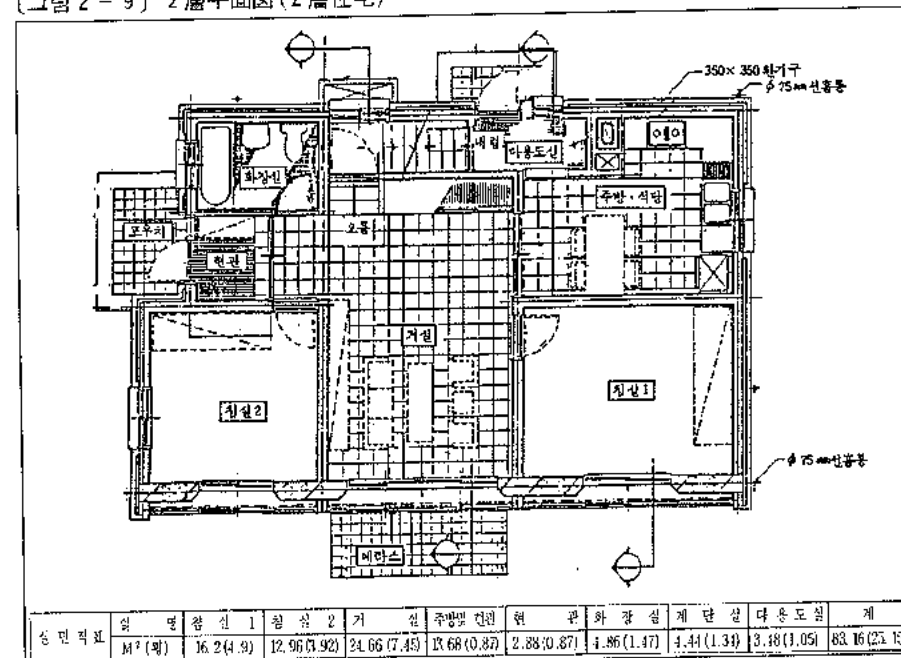
—2층주택은 5실(도시중산층용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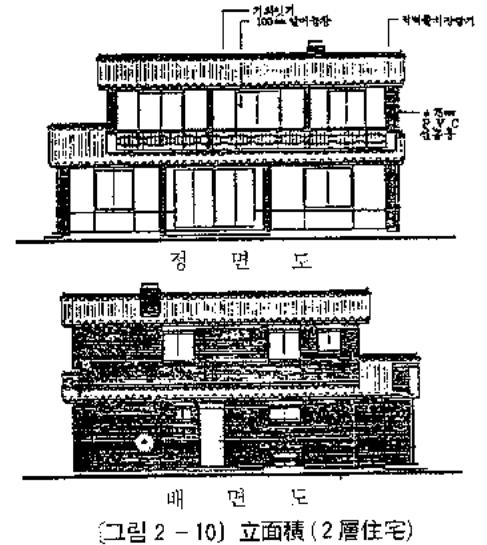
(그림 2 - 11) 주단면도 (2層住宅)



(그림 2 - 9) 2層平面圖 (2層住宅)



(그림 2 - 8) 1層平面圖 (2層住宅)



(그림 2 - 10) 立面圖 (2層住宅)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지역별 기후
 - 실내 유지온도
 - 주택의 형태
 - 외피의 구조 및 단열정도
 - 유리창 구조 및 면적비
 - 창틀 및 유리의 종류
 - 방위별 창문의 배분비율
 - 주택의 방위
 - 주택의 바닥면적
 - 외피의 색
 - Sun-Space, 차양, 야간단열덮문, 커튼의 설치 유무 등
- 본 장에서는 간이 계산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기된 여러가지의 변수를 조합하여 난방부하를 시뮬레이션한 후 각 변수가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별로 분석하여 변화량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별로 1,2층 주택에 대해 모든 변수를 조합한다면 작동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게 된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내 유지온도를 18℃로 고정하였고, 주택 외피의 구조체를 일정하게 하고 단열재 두께만 변경하였다. 또한 외피의 단열은 스티로폼 50mm, 창구조는 이중창, 유리창 면적비는 바닥면적의 20%, 방위별 창분배 비율은 동, 서, 남, 북향으로 각각 1:1:6:2, 주택형태는 장단비가 1:1.6인 직사각형 주택, 방위는 남향, 바닥면적은 1층 25평형, 2층 40평형을 위주로 하고 각변수를 조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외피의 단열과 창구조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합하였다. 즉, 외피 각 부위별(벽, 지붕, 바닥)로 단열재 두께의 차이가 큰 조합을 하지 않으며 무단열에 3층창과 같은 부리한 조합을 하지 않았다. 난방부하시뮬레이션은 DOE-2.1 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1년 8760시간에 대해 매시간별로 부하를 계산한다. Zone구분은 1,2층 주택 공히 1 Zone 으로 하였는데 2층주택을 1 Zone 으로 한 이유는 2층바닥에서의 손실열량은 1층에서는

表 3 - 1. 代表年度 暖房期間의 主要氣象資料

都市 項目		1月	2月	3月	4月	5月	10月	11月	12月
서울 (1962)	平均外氣溫 (°F)	26.6	30.5	37.6	49.5	62.5	54.7	42.9	33.1
	暖房度日 (65°F基準)	1,222.4	966.2	849.8	467.5	148.6	336.9	66.29	987.7
	平均 風速 (MPH)	4.3	5.2	7.0	7.0	6.9	2.9	5.0	4.4
	sky cover (晝間)	2.8	4.2	5.4	5.6	4.2	4.6	5.4	4.8
釜山 (1955)	平均外氣溫 (°F)	33.5	41.0	47.8	56.1	63.3	60.7	48.2	42.2
	暖房度日 (65°F基準)	975.8	673.4	534.0	274.2	95.1	167.8	503.7	707.0
	平均 風速 (MPH)	9.6	7.9	7.7	7.6	6.5	12.0	11.9	11.3
	sky cover (晝間)	3.5	5.2	7.2	6.6	5.8	4.4	3.5	2.9
濟州 (1955)	平均外氣溫 (°F)	39.5	45.7	49.9	57.2	62.5	63.1	51.4	47.9
	暖房度日 (65°F基準)	791.7	541.6	468.3	238.2	104.2	124.9	411.8	529.8
	平均 風速 (MPH)	16.5	15.8	15.2	12.9	8.5	11.4	10.6	12.0
	sky cover (晝間)	8.4	7.6	8.8	7.9	7.3	4.8	5.2	5.1

表 3 - 2. 各 住宅의 概要

層別	住宅形態	區分			
		바닥面積 (㎡)	壁面積 (㎡)	窓面積 (㎡) (20%의 경우)	純壁面積 (㎡) (20%의 경우)
1層住宅	A型住宅	83.613	84.170	16.723	67.447
	B型住宅	84.727	86.976	16.723	70.253
	C型住宅	84.263	89.641	16.723	72.918
	D型住宅	83.613	91.886	16.723	75.163
	E型住宅	83.613	93.990	16.723	77.267
2層住宅	A型住宅	138.240	152.067	26.765	125.311
	B型住宅	138.389	156.276	26.756	129.520
	C型住宅	138.390	161.306	26.756	134.570
	D型住宅	138.463	165.815	26.756	139.059
	E型住宅	138.428	171.146	26.756	144.390

획득열량이 되어 열적으로 손실이 없으므로 1,2층을 각 Zone 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 都市別 氣象資料

우리나라의 기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난방부하도 매우 다르다. 간이 건물에너지 계산자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기후에 따라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지역구분을 할 경우 난방도일, 외기 온도, 풍속 및 풍향, 일사량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므로 각 도시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부하를 시뮬레이션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DOE-2.1 A 프로그램으로

난방부하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도시로는 서울, 부산, 제주, 대전, 대구, 광주 등이 있는데 86년도 연구사업에서는 우선 서울, 부산, 제주의 3개 도시에 대해 난방부하를 시뮬레이션하였고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87년도에 수행할 계획이다. 기상자료는 TRY(Test Reference Year) 방식으로 선정된 대표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서울은 1962년, 부산, 제주는 1955년이다. 각 도시에 대한 대표연도 난방기간의 월별 주요기상자료는 <표3-1>과 같다.

서울, 부산, 제주의 1,2층 주택에 대해 난방부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산은 서울의 약65%, 제주는 서울의 약55%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2. 住宅의 形態

주택의 형태가 바뀌면 외벽면적이 변화되어 에너지소비량도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형태를 고려하였다. 주택의 형태가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1층은 25평형, 2층은 40평형 주택을 대상으로 <그림3-1>과 같은 5종의 형태에 대하여 난방부하를

(表 3 - 3) 外皮의 斷熱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比較

(單位: MBtu/y)

都市			서울		釜山		濟州	
層別	窓構造	斷熱						
1層住宅	單窓	0	100.07		66.74		53.03	
		25	54.26		35.59		29.91	
		50	42.35		27.80		24.25	
	二重窓	0	96.28	(1.00)	63.80	(1.00)	50.19	(1.00)
		25	50.41	(0.52)	32.56	(0.51)	26.99	(0.54)
		50	38.48	(0.40)	24.74	(0.39)	21.32	(0.42)
		75	33.04	(0.34)	21.22	(0.33)	18.77	(0.37)
		100	29.93	(0.31)	19.22	(0.30)	17.33	(0.34)
	三重窓	50	35.66		22.66		19.46	
		75	30.21		19.15		16.92	
		100	27.10		17.15		15.47	
2層住宅	單窓	0	157.36		105.01		86.71	
		25	85.77		55.38		47.59	
		50	68.64		44.02		38.87	
	二重窓	0	151.28	(1.00)	100.31	(1.00)	82.17	(1.00)
		25	79.61	(0.53)	50.55	(0.50)	42.94	(0.52)
		50	62.45	(0.41)	39.14	(0.39)	34.19	(0.42)
		75	54.79	(0.36)	34.12	(0.34)	30.35	(0.37)
		100	50.45	(0.33)	31.29	(0.31)	28.20	(0.34)
	三重窓	50	57.92		35.82		31.23	
		75	50.26		30.80		27.39	
		100	45.92		27.97		25.24	

*이 표는 窓面積比 20%, 正南向인 B型 住宅의 값임 (1層 25坪型, 2層 40坪型)

*괄호안의 값은 各 都市의 無斷熱을 基準으로 한 比率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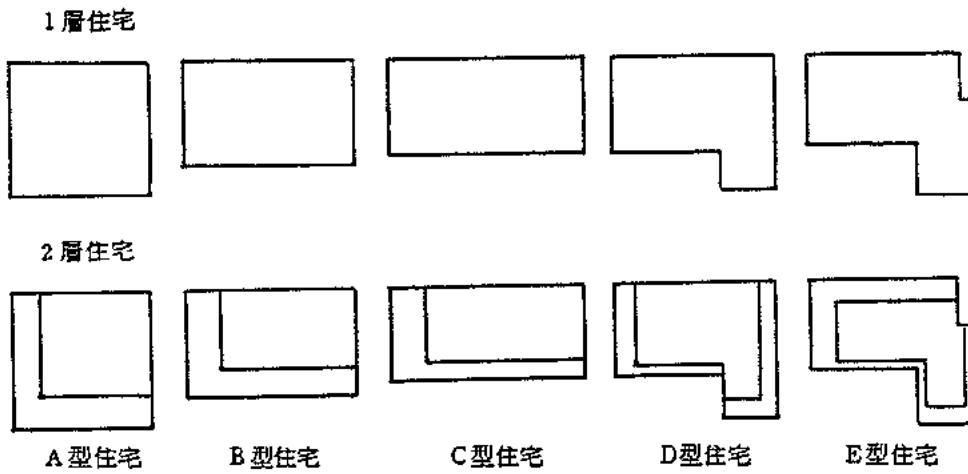


그림 3-2. 壁의 構造 및 熱貫流率

構 造	材 料	두께 ℓ (mm)	λ	$r = \frac{\ell}{\lambda}$
	1. 적 벽 돌	90	0.67	0.05
	2. 스티로폴	0	0.032	0.134
		25		0
		50		0.781
		75		1.563
		100		2.344
	3. 空 氣 層	20		3.152
	4. 시멘트벽돌	190	1.2	0.09
	5. 물	18	1.2	0.158
				0.015
				0.125
斷熱材 두께別 R 및 K 값	스티로폴	0	$R = 0.572$	$K = 1.748$
		25	$R = 1.354$	$K = 0.739$
		50	$R = 2.135$	$K = 0.468$
		75	$R = 2.943$	$K = 0.340$
		100	$R = 3.724$	$K = 0.269$

시뮬레이션하였다. A형 주택은 장단비가 1:1인 정사각형이고 B형주택은 장단비가 1:1.6인 직사각형이며 C형주택은 장단비가 1:2인 직사각형 주택이다. 또한 D형 주택은 직사각형에서 남쪽으로 약간 돌출한 형태이며 E형주택은 D형주택보다 굴곡이 심한 형태이다. 각 주택의 천장높이는 2.3m이다. 각 주택의 바닥 및 벽면적은 <표3-2>와 같다.

본 장에서는 각 변수가 난방부하가 미치는 영향을 도시별로 기술하고 있다.

본 장과 부록에 표시한 난방부하는 분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바닥의 온수패널에서 열손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정한 값이다.

2. 住宅의 外皮

주택의 난방부하는 외피의 단열정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또한 외피의 형상에 따라라도 약간 변화한다. 본 절에서는 외피의 각 부위 즉, 벽, 지붕, 바닥의 단열재 두께의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의 변화량과 주택의 형태가 달라짐으로 인한 난방부하의 변화량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림 3-3. 傾斜지붕의 構造 및 熱貫流率

構 造	材 料	두께 ℓ (mm)	λ	$r = \frac{\ell}{\lambda}$
	1. 기 와	15	0.3	0.05
	2. 보호물탈	20	1.2	0.017
	3. 방 습 층			0
	4. 콘크리트이	120	1.4	0.086
	공 기 층			0.09
	4. 스티로폴	0	0.032	0
		25		0.781
		50		1.563
		75		2.344
		100		3.125
斷熱材 두께別 R 및 K 값	6. 합 판	4.5	0.14	0.032
				0.105
	스티로폴	0	$R = 0.430$	$K = 2.326$
		25	$R = 1.221$	$K = 0.819$
		50	$R = 1.993$	$K = 0.502$
		75	$R = 2.774$	$K = 0.360$
		100	$R = 3.555$	$K = 0.281$

1. 外皮의 斷熱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變化
외피의 단열두께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의 변화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부위별 구조체는 <그림3-2, 3, 4, 5>와 같이 일반적인 구조로 고정시켰다. 즉, 벽은 시멘트 벽돌 1B에 적벽돌 0.5B 쌓기로 하고 지붕은 기와를 덮은 경사지붕으로 하였으며 바닥은 지반면 직상바닥(Slab on grade)에 온수온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부위의 단열은 무단열로부터 스티로폴 25mm, 50mm, 75mm, 100mm의 5종을 각 부위별로 무리하지 않도록 조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바닥을 통한 열손실율은 온수파이프 상부와 하부의 K값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는데 그 값은 무단열시 0.22, 단열재 25mm 사용시는 0.13, 50mm 사용시는 0.10, 75mm 사용시는 0.08, 100mm 사용시는 0.06이다.

〈表 3 - 4〉 壁斷熱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變數			數	暖房負荷差異 (MBut/y)									
壁斷熱 (mm)	지붕斷熱 (mm)	바닥斷熱 (mm)	窓構造	1 層 住 宅					2 層 住 宅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0 → 25	0	0	單窓	18.57	13.18	11.06	15.83	15.16	38.90	22.59	23.30	33.13	31.78
			二重窓	18.54	13.21	11.10	15.81	15.20	38.95	22.57	23.38	33.19	31.84
	25	25	單窓	18.53	13.06	10.96	15.79	15.10	38.83	22.41	23.14	33.07	31.64
			二重窓	18.55	13.12	11.01	15.82	15.15	38.89	22.51	23.25	33.15	31.73
25 → 50	25	25	單窓	4.39	2.98	2.45	3.80	3.57	9.21	6.24	5.16	8.01	7.44
			二重窓	4.40	2.99	2.46	3.82	3.58	9.23	6.28	5.19	7.98	7.48
	50	50	單窓	4.39	2.96	2.44	3.80	3.55	9.20	6.22	5.15	7.95	7.43
			二重窓	4.38	2.98	2.45	3.81	3.57	9.22	6.25	5.18	7.97	7.46
50 → 75	50	50	單窓	1.94	1.31	1.07			4.15	2.73	2.25		
			二重窓	1.95	1.31	1.07	1.69	1.57	4.16	2.74	2.26	3.55	3.30
			三重窓	1.96	1.30	1.07	1.70	1.58	4.16	2.74	2.27	3.55	3.30
	75	75	二重窓	1.95	1.30	1.07	1.70	1.57	4.09	2.73	2.26	3.55	3.29
三重窓			1.95	1.30	1.07	1.70	1.57	4.09	2.73	2.26	3.56	3.29	
75 → 100	75	75	二重窓	1.10	0.73	0.60	0.96	0.89	2.37	1.54	1.26	2.01	1.86
			三重窓	1.10	0.74	0.60	0.96	0.89	2.36	1.54	1.26	2.00	1.86
	100	100	二重窓	1.09	0.73	0.59	0.96	0.88	2.30	1.53	1.26	2.00	1.86
			三重窓	1.10	0.73	0.60	0.96	0.89	2.31	1.53	1.26	2.00	1.85

* 이 표는 窓面積比 20%, 正南向인 B型住宅의 값임 (1層 25坪型, 2層 40坪型)

〈表 3 - 5〉 지붕의 斷熱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變數			數	暖房負荷差異 (MBut/y)									
지붕斷熱 (mm)	벽斷熱 (mm)	바닥斷熱 (mm)	窓構造	1 層 住 宅					2 層 住 宅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0 → 25	0 0	0	單 窓	19.68	13.74	10.91	16.69	16.23	24.93	17.58	14.35	20.91	20.62
			二 重 窓	19.69	13.75	10.93	16.69	16.25	24.93	17.59	14.36	20.90	20.63
	25	25	單 窓	19.68	13.67	10.86	16.74	16.22	24.89	17.44	14.21	20.92	20.53
			二 重 窓	19.69	13.70	10.89	16.75	16.25	24.90	17.47	14.25	20.94	20.56
25 → 50	25	25	單 窓	5.44	3.68	2.88	4.68	4.47	5.44	3.90	3.12	4.94	4.73
			二 重 窓	5.45	3.68	2.89	4.70	4.48	5.45	3.92	3.13	4.95	4.75
	50	50	單 窓	5.45	3.66	2.88	4.70	4.46	5.45	3.88	3.12	4.94	4.72
			二 重 窓	5.45	3.67	2.88	4.71	4.47	5.78	3.89	3.12	4.94	4.73
50 → 75	50	50	單 窓	2.53	1.69	1.32			2.58	1.71	1.37		2.11
			二 重 窓	2.54	1.69	1.32	2.20	2.07	2.58	1.72	1.38	2.22	2.11
			二 重 窓	2.54	1.68	1.27	2.20	2.08	2.58	1.72	1.38	2.22	2.10
	75	75	二 重 窓	2.53	1.69	1.32	2.20	2.07	2.60	1.71	1.38	2.22	2.10
三 重 窓			2.53	1.68	1.32	2.20	2.07	2.64	1.71	1.37	2.22	1.20	
75 → 100	75	75	二 重 窓	1.47	0.97	0.76	1.27	1.20	1.47	0.97	0.77	1.26	1.20
			三 重 窓	1.45	0.97	0.76	1.28	1.20	1.47	0.97	0.77	1.26	1.20
	100	100	二 重 窓	1.46	0.97	0.75	1.27	1.19	1.46	0.96	0.77	1.26	1.19
			三 重 窓	1.46	0.96	0.76	1.28	1.20	1.46	0.96	0.77	1.26	1.19

* 이 표는 窓面積比 20%, 正南向인 B型住宅의 값임 (1層 25坪型 2層 40坪型)

〈表 3 - 6〉 바닥의 斷熱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變 數				暖房負荷差異 (MBtu/y)									
바닥斷熱 (mm)	壁斷熱 (mm)	지붕斷熱 (mm)	窓 構 造	1 層 住 宅					2 層 住 宅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0 → 25	0 0	0	單 窓	7.56	4.31	1.18	7.09	5.98	7.80	4.62	1.59	7.14	6.13
			二 重 窓	6.58	4.33	1.19	7.09	5.99	7.81	4.63	1.59	7.13	6.13
	25	25	單 窓	7.69	4.36	1.29	7.27	6.09	7.88	4.63	1.65	7.29	6.16
			二 重 窓	7.72	4.33	1.30	7.37	6.11	7.91	4.65	1.66	7.31	6.17
25 → 50	25	25	單 窓	2.07	1.15	0.33	1.93	1.62	2.14	1.23	0.44	1.97	1.66
			二 重 窓	2.05	1.15	0.33	1.93	1.62	2.15	1.24	0.43	1.97	1.66
	50	50	單 窓	2.11	1.15	0.34	1.95	1.62	2.15	1.24	0.45	1.98	1.66
			二 重 窓	2.09	1.16	0.33	1.95	1.63	2.15	1.24	0.44	1.98	1.66
50 → 75	50	50	單 窓	0.95	0.53	0.15			1.01	0.57	0.20		
			二 重 窓	0.97	0.53	0.15	0.89	0.74	1.01	0.57	0.20	0.92	0.77
			三 重 窓	0.97	0.52	0.15	0.90	0.74	1.01	0.57	0.20	0.92	0.77
	75	75	二 重 窓	0.95	0.43	0.16	0.90	0.74	0.99	0.57	0.21	0.91	0.75
			三 重 窓	0.95	0.52	0.15	0.90	0.74	1.90	0.57	0.20	0.92	0.77
75 → 100	75	75	二 重 窓	0.55	0.30	0.09	0.51	0.43	0.57	0.33	0.11	0.53	0.45
			三 重 窓	0.55	0.31	0.09	0.52	0.43	0.57	0.33	0.12	0.52	0.45
	100	100	二 重 窓	0.54	0.30	0.08	0.51	0.43	0.56	0.33	0.12	0.52	0.44
			三 重 窓	0.55	0.30	0.09	0.52	0.43	0.57	0.33	0.11	0.52	0.44

* 이 표는 窓面積比 20%, 正南向인 B型住宅의 값임 (1層 25坪型, 2層 40坪型)

〈表 3 - 7〉 壁斷熱 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單位: MBtu/y)

區 分 壁斷熱 變更	1 層 住 宅					2 層 住 宅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0 → 25mm	18.55	13.14	11.03	15.81	15.15	38.89	27.52	23.27	33.14	31.75
50mm	22.94	16.12	13.48	19.62	18.72	48.11	33.77	28.44	41.12	39.21
75mm	24.89	17.42	14.55	21.32	20.29	52.24	36.50	30.70	44.67	42.51
100mm	25.99	18.15	15.15	22.28	21.18	54.58	38.04	31.96	46.67	44.37

〈表 3 - 8〉 지붕의 斷熱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單位: MBtu/y)

區 分 지붕 壁斷熱 變更	1 層 住 宅					2 層 住 宅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0 → 25mm	19.69	13.72	10.90	16.72	16.24	24.91	17.52	14.30	20.92	20.59
50mm	25.14	17.39	13.78	21.42	20.71	30.36	21.42	17.42	25.86	25.32
75mm	27.67	19.08	15.10	23.62	22.78	32.98	23.13	18.80	28.08	27.43
100mm	29.13	20.05	15.86	24.90	23.98	34.45	24.10	19.57	29.34	28.63

〈表 3 - 9〉 바닥의 斷熱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單位: MBtu/y)

區 分 바닥斷熱 變更	1 層 住 宅					2 層 住 宅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0 → 25mm	7.64	4.33	1.24	7.20	6.04	7.85	4.63	1.62	7.22	6.15
50mm	9.72	5.48	1.57	9.14	7.66	10.00	5.87	2.06	9.20	7.81
75mm	10.68	6.01	1.72	10.04	8.40	11.00	6.44	2.26	10.12	8.58
100mm	11.23	6.31	1.81	10.56	8.83	11.57	6.77	2.38	10.64	9.03

〈표3-3〉은 각 도시별로 단열정도 및 창구조에 따른 난방부하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단창과 이중창의 경우 무단열 상태에서는 각 부위에 단열재를 25mm만 사용하여도 난방부하가 약52%(3개 도시의 평균값) 정도로 되어 48%가 감소되므로 외피의 단열이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그 상태에서 단열재를 25mm씩 증가시킴에 따라 각각 11%, 6%, 3%가 감소되어 단열재가 두겹게 사용된 상태에서는 단열재를 더욱 증가시켜도 그 효과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개의 동일한 주택에서 일정 부위에 사용된 단열재의 두께만 다를 뿐이고 가다 변수의 값이 동일하다면 두 주택의 난방부하는 다르게 되는데 이 변화량은 그 부위에 사용된 단열재 두께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각 부위의 단열재 두께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보면 〈표3-4, 5, 6〉과 같은데 주택의 일정 부위의 단열재 두께를 0에서 25로, 25에서 50으로, 50에서 75로, 75에서 100으로 증가시킴에 따른 난방부하의 차이가 도시별로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창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3-7, 8, 9〉와 같다.

난방부하 시뮬레이션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단열재 두께 증가폭을 25mm로 하였으므로 그 중간값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를 구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3-7, 8, 9〉를 보면 외피 각부위별로 같은 두께의 단열재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부위는 벽 지붕 부위에 비해 난방부하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값들은 분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바닥 하부로의 열손실을 무시하고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의 값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층주택에서 각 부위의 단열을 0에서 25로 변경시켰을 경우에 대해 바닥손실을 계산하였을 경우와 무시하였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바닥손실을 무시한 경우의 난방부하 차이는 벽부위에서 평균 18.55 MBtu/y, 지붕 부위에서 평균 19.69 MBtu/y, 바닥 부위에서 평균 7.64 MBtu/y 이지만 바닥손실을 계산한 경우의 난방부하 차이는 벽부위에서 평균 21.79 MBtu/y, 지붕 부위에서 평균 15.76 MBtu/y 가 되어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닥손실을 고려한 경우의 난방부하 차이는 벽부위에서는 바닥이 무단열인 경우 22.66, 22.62, 바닥의 단열이 25mm인 경우 20.93, 20.96이고, 지붕 부위에서는 바닥이 무단열인 경우 24.01, 24.02, 바닥의 단열이 25mm인 경우 22.23, 22.24이며, 바닥 부위에서는 17.55, 17.23, 14.26, 14.00으로 단열변경에 따른 난방부하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지만 바닥손실을 무시한 경우의 단열변경에 따른 난방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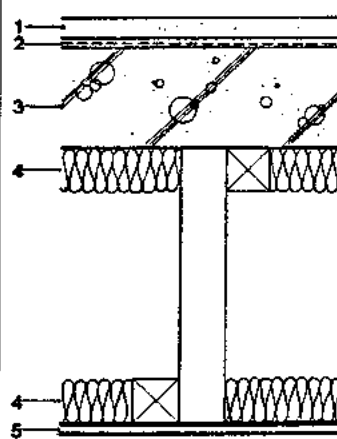
〈表 3 - 10〉 窓構造別 概要

窓構造	區 分	窓틀	유 리	K 값 (Kcal/m ² h℃)
單 窓		목 재	3mm 무늬유리	6.767
二 重 窓	内部	목 재	3mm 무늬유리	4.037
	外部	알미늄	3mm 무늬유리	
三 重 窓	内部	목 재	3mm 무늬유리	2.657
	外部	알미늄	페어그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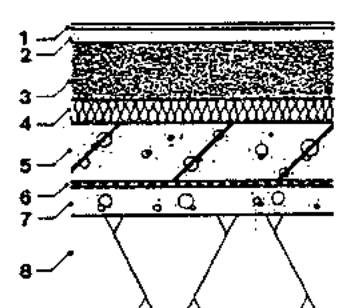
*外表面 熱抵抗値를 제외하고 계산한 값임.

*窓틀 面積은 전체 窓面積의 20%로 가정

〈그림 3 - 4〉 평지붕의 構造 및 熱貫流率 (2層住宅의 1層 지붕)

構 造	材 料	두께 ℓ (mm)	λ	$r = \frac{\ell}{\lambda}$
	1. 보호물탈	30	1.2	0.05
	2. 아스팔트 방수	10	0.63	0.016
	3. 콘크리트	120	1.4	0.086
	공 기 층			0.09
	4. 스티로폴	0	0.032	0
		25		0.781
		50		1.563
		75		2.344
		100		3.125
	5. 합 판	4.5	0.14	0.032
斷熱材 두께別 R 및 K 값		스타로폴	0	R = 0.404 K = 2.475
		25		K = 1.195 R K = 0.837
		50		R = 1.967 K = 0.508
		75		R = 2.748 K = 0.364
		100		R = 3.529 K = 0.283

〈그림 3 - 5〉 바닥의 構造 및 熱貫流率

構 造	材 料	두께 ℓ (mm)	λ	$r = \frac{\ell}{\lambda}$
	1. 장 판 지			0.167
	2. 물 탈	20	1.2	0
	3. 자 갈	50	0.32	0.17
	4. 스티로폴	0	0.032	0.156
		25		0
		50		0.781
		75		1.563
		100		2.344
	5. 콘크리트	120	1.4	3.125
	슬 라 브			0.086
	7. 버림물탈	60	1.2	0.050
	8. 잠 석	180	1.87	0.128
	흙			0.625
斷熱材 두께別 R 및 K 값		스타로폴	0	R = 1.229 K = 0.814
		25		R = 2.010 K = 0.498
		50		R = 2.792 K = 0.358
		75		R = 3.573 K = 0.280
		100		R = 4.354 K = 0.230

〈表 3-11〉單窓과 二重窓의 暖房負荷 差異

變數				暖房負荷差異 (MBtu/y)									
壁斷熱 (mm)	지붕斷熱 (mm)	바닥斷熱 (mm)	窓面積比 (%)	1 層 住 宅					2 層 住 宅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0	0	0	10	1.89	1.46	1.40	1.45	1.47	3.04	2.34	2.23	2.31	2.35
			10	2.84	2.19	2.12	2.18	2.20	4.55	3.51	3.37	3.49	3.51
			20	3.79	2.94	2.84	2.92	2.94	6.08	4.70	4.54	4.67	4.70
			20	4.77	3.71	3.60	3.67	3.70	7.63	5.93	5.73	5.87	5.91
			30	5.75	4.51	4.42	4.44	4.48	9.22	7.21	6.79	7.09	7.15
25	0	0	20	3.76	2.97	2.88	2.90	2.98	6.13	4.78	4.62	4.73	4.76
0	25	0	20	3.80	2.95	2.86	2.92	2.96	6.08	4.71	4.55	4.66	4.71
0	0	25	20	3.81	2.96	2.85	2.92	2.95	6.09	4.71	4.54	4.66	4.70
25	25	0	20	3.82	3.06	2.91	2.89	2.99	6.13	4.81	4.64	4.72	4.79
25	0	25	20	3.83	3.00	2.89	2.95	2.98	6.10	4.73	4.54	4.72	4.77
0	25	25	20	3.84	2.97	2.87	2.93	2.96	6.15	4.80	4.61	4.66	4.71
25	25	25	10	1.86	1.47	1.41	1.41	1.48	3.06	2.36	2.26	2.30	2.37
			15	2.87	2.24	2.15	2.19	2.23	4.61	3.59	3.43	3.51	3.56
			20	3.85	3.03	2.92	2.96	3.01	6.16	4.83	4.65	4.74	4.80
			25	4.84	3.83	3.69	3.81	3.81	7.74	6.12	5.89	5.97	6.07
			30	5.84	4.65	4.46	4.61	4.61	9.33	7.41	7.11	7.22	7.36
50	25	25	20	3.86	3.04	2.93	3.02	3.02	6.18	4.87	4.68	4.71	4.84
25	50	25	20	3.86	3.03	2.93	3.02	3.02	6.17	4.85	4.66	4.75	4.82
25	25	40	20	3.83	3.03	2.92	3.01	3.01	6.17	4.84	4.64	4.74	4.80
50	50	25	20	3.89	3.05	2.94	3.03	3.03	6.19	4.88	4.69	4.76	4.85
50	25	50	20	3.87	3.04	2.92	3.03	3.03	6.19	4.87	4.68	4.76	4.84
25	50	50	20	3.88	3.05	2.93	3.02	3.02	6.17	4.85	4.65	4.74	4.82
50	50	50	10	1.90	1.46	1.44	1.44	1.50	3.07	2.38	2.26	2.33	2.38
			15	2.89	2.26	2.17	2.22	2.25	4.63	3.62	3.46	3.55	3.60
			20	3.87	3.06	2.93	2.98	3.04	6.19	4.88	4.68	4.76	4.85
			25	4.83	3.85	3.71	3.84	3.84	7.78	6.16	5.91	6.00	6.12
			30	5.87	4.66	4.46	4.54	4.63	9.37	7.45	7.13	7.25	7.40

* 正南向, B型住宅에 대한 값임. (1층주택 25평형, 2층주택 40평형)

차이는 부위별로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분석이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바닥부로의 열손실을 무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바닥부로의 열손실은 부위별 난방부하 차이를 계산한 후에 최종적으로 부하계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2. 窓

창구조는 단창, 이중창, 삼중창에 대하여 고려하였는데 변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3-10〉와 같이 고정하였으며 창면적비는 바닥면적의 10%, 15%, 20%, 25%, 30%의 5종으로 구분하였다. 창구조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 차이는 외피의 단열치와 창면적비를 변경시키면서 조사하였다.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난방부하 차이는 〈표3-11〉, 이중창에서 삼중창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난방부하 차이는 〈표3-12〉과 같이 나타났는데 이 표를 보면 창구조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 차이는 외피의 단열치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창면적비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값들을 창면적비별로 정리하면 〈표3-13〉과 같다.

방위별 창면적비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 변화량은 외피단열이 50mm인 남향의 B형주택에 대하여, 동·서측 창면적은 바닥면적의 1%로부터 5%까지 1%간격으로 증가(남·북측은 각각 12%, 4%로 고정)시키는 5종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남쪽 창면적은 바닥면적의 4%에서 20%까지 2%간격으로 증가(동, 서, 북측은 각각 2%, 2%, 4%로 고정)시키는 9종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북쪽 창면적은 바닥면적의 2%에서 8%까지 1%간격으로 증가(동, 서, 남측은 각각 2%, 2%, 12%로 고정)시키는 7종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였는데, 그에 따른 난방부하 차이는 〈표3-14〉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남쪽 창면적은 넓을수록 난방부하가 감소하고 북쪽이나 동·서측 창면적은 넓을수록 난방부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方 位

방위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 변화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90도(정방향)부터 90도(정방향)까지 30도 간격으로 회전시켜

7개 방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였는데 남쪽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각도를 동쪽이나 서쪽으로 회전시킨 경우에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난방부하 차이를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 창면적비는 창구조중에서 방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표3-15〉, 〈표3-16〉과 같다. 창구조 변경에 따라서는 방위별 난방부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창면적비 변경에 따라서는 방위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住宅의 面積

주택의 면적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 변화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1층주택은 20평형, 25평형, 30평형에 대하여 2층주택은 1,2층별 면적비가 1:0.6인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에 대하여 난방부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 평형별 바닥면적은 〈표3-17〉과 같다. 각 평형별 바닥면적은 1층주택의 경우 20평형, 30평형, 35평형은 25평형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각각 0.8배, 1.4배가 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20, 30, 35평형의
바닥면적이 정확하에 0.8배, 1.2배, 1.4배가
되도록 계산한 면적과 실제면적을 비교하여
난방부하를 증감하여 보정하였으며,
2층주택의 경우도 40평을 기준으로 하여
1층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난방부하를

보정하게 자료를 작성하였다.
1,2층주택의 서울, 부산, 제주지역에 대한
면적별 난방부하는 <표3-18>과 같은데 이
값들을 분석하면 1층주택 25평형, 2층주택
40평형을 기준으로 한 난방부하의 비율이 각
평형별로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19>은 25평형 및 40평을

기준으로 한 각 평형별 난방부하
비율(창구조별 평균값)을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1,2층주택 공히 난방부하의 비율이
창구조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 대구지역에 대하여 1,2층 주택의
바닥면적별 난방부하 비율을 25평형 및

<表 3 - 12> 二重窓과 三重窓의 暖房負荷 差異¹⁾

變 數				暖房負荷差異 (MBtu/y)									
壁 斷 熱 (mm)	지붕斷熱 (mm)	바닥斷熱 (mm)	窓面積比 (%)						1 層 住 宅				
				서 울	釜 山	濟 州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濟 州	大 邱
50	50	50	10	1.39	1.02	0.91	1.12	1.12	2.24	1.65	1.46	1.80	1.79
			15	2.11	1.55	1.38	1.68	1.68	3.33	2.48	2.20	2.72	2.68
			20	2.82	2.08	1.86	2.28	2.24	4.53	3.32	2.96	3.67	3.59
			25	3.52	2.60	2.32	2.87	2.81	5.66	4.15	3.71	4.61	4.49
			30	4.24	3.11	2.79	3.47	3.38	6.78	4.97	4.45	5.53	5.38
75	50	50	20	2.82	2.07	1.86	2.29	2.25	4.53	3.32	2.96	3.67	3.59
50	75	50		2.82	2.07	1.85	2.28	2.25	4.53	3.32	2.96	3.67	3.59
50	50	75		2.83	2.07	1.86	2.29	2.24	4.53	3.32	2.96	3.67	3.59
75	75	50		2.81	2.08	1.86	2.29	2.25	4.52	3.32	2.97	3.67	3.59
75	50	75		2.83	2.08	1.86	2.29	2.25	4.55	3.32	2.97	3.68	3.57
50	75	75		2.83	2.07	1.85	2.29	2.25	4.53	3.32	2.96	3.67	3.59
75	75	75	10	1.40	1.03	0.91	1.13	1.11	2.24	1.68	1.46	1.80	3.59
			15	2.11	1.56	1.38	1.70	1.68	3.39	2.49	2.21	2.74	1.69
			20	2.83	2.07	1.85	2.29	2.25	4.53	3.32	2.96	3.68	3.59
			25	3.53	2.59	2.32	2.88	2.81	5.65	4.14	3.71	4.61	4.48
			30	4.23	3.09	2.77	3.47	3.37	6.77	4.94	4.44	5.51	5.35
100	75	75	20	2.83	2.07	1.85	2.29	2.25	4.52	3.32	2.96	3.67	3.59
75	100	75		2.81	2.07	1.85	2.30	2.25	4.53	3.32	2.96	3.68	3.59
75	75	100		2.83	2.08	1.85	2.30	2.25	4.54	3.32	2.97	3.67	3.59
100	100	75		2.82	2.07	1.85	2.29	2.25	4.52	3.32	2.97	3.68	3.59
100	75	100		2.83	2.08	1.85	2.29	2.24	4.53	3.32	2.96	3.68	3.59
75	100	100		2.82	2.07	1.85	2.30	2.24	4.52	3.32	2.96	3.68	3.59
100	100	100	10	1.40	1.06	0.91	1.13	1.11	2.25	1.65	1.46	1.80	1.79
			15	2.12	1.55	1.38	1.71	1.68	3.39	2.49	2.21	2.74	2.69
			20	2.83	2.07	1.86	2.30	2.25	4.53	3.32	2.96	3.68	3.59
			25	3.53	2.58	2.32	2.87	2.80	5.65	4.13	3.71	4.60	4.47
			30	4.22	3.08	2.77	3.44	3.55	6.76	4.93	4.44	5.50	5.33

* 正南向, B형주택에 대한 값임. (1층주택 25평형, 2층주택 40평형)

<表 3 - 13> 窓構造 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單位: MBtu/y)

區 分		單 窓→二重窓					二重窓→三重窓				
層別	窓面積比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서 울	釜 山	濟 州	大 田	大 邱
1 層 住 宅	10%	1.88	1.46	1.41	1.43	1.48	1.40	1.04	0.91	1.13	1.11
	15	2.87	2.23	2.15	2.20	2.23	2.11	1.55	1.38	1.70	1.68
	20	3.84	3.02	2.91	2.95	3.00	2.82	2.07	1.85	2.29	2.25
	25	4.81	3.80	3.66	3.72	3.78	3.53	2.59	2.32	2.87	2.81
	30	5.82	4.61	4.45	4.50	4.58	4.23	3.09	2.78	3.46	3.37
2 層 住 宅	10	3.06	2.36	2.25	2.31	2.37	2.24	1.66	1.46	1.80	1.79
	15	4.60	3.57	3.42	3.52	3.56	3.37	2.49	2.21	2.74	2.69
	20	6.15	4.82	4.64	4.72	4.78	4.53	3.32	2.96	3.68	3.59
	25	7.72	6.07	5.85	5.95	6.03	5.65	4.14	3.71	4.61	4.48
	30	9.31	7.36	7.07	7.19	7.30	6.77	4.95	4.44	5.51	5.35

40평형 주택의 부하와 비교하여 외피단열 및 창면적비에 따라 나타내면 <표3-20>, <표3-21>과 같다. 이를 보면 외피단열 및 창면적비에 따라 그값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 값들의 평균치는 외피단열 50mm, 창면적비 20%인 주택의 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層別 面積比에 따른 暖房負荷의 變化
2층주택에서 총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1,2층별 면적비가 변경되면 총외피면적이 달라져서 난방부하도 달라진다. 총별 면적비의 변경이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부위별 단열 50mm,

방위별 창분배비율 1:1:6:2, 남향인 40평형 B형주택을 대상으로 층별 면적비를 1:1, 1:0.8, 1:0.6, 1:0.4로 변경시켰다. 이러한 4종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3개도시의 이중창과 삼중창에 대하여 총면적비를 10%, 15%, 20%, 25%, 30%를 적용시켜 난방부하 시뮬레이션을

<表 3-14> 各 方位別 窓面積比 増加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方位別 窓面積 増加		구 분		1 층 주택		2 층 주택	
		대 전	대 구	대 전	대 구	대 전	대 구
南 向	바닥면적의 2%	-0.69	-0.84	-1.12	-1.36		
	4%	-1.35	-1.65	-2.19	-2.69		
	6%	-1.99	-2.43	-3.23	-3.94		
	8%	-2.60	-3.17	-4.22	-5.13		
	10%	-3.18	-3.86	-5.15	-6.24		
	12%	-3.73	-4.53	-6.05	-7.32		
	14%	-4.24	-5.12	-6.88	-8.27		
北 向	바닥면적의 1%	0.29	0.28	0.46	0.45		
	2%	0.58	0.56	0.93	0.91		
	3%	0.87	0.85	1.39	1.37		
	4%	1.16	1.14	1.86	1.83		
	5%	1.45	1.42	2.33	2.29		
	6%	1.75	1.71	2.80	2.75		
東, 西向	바닥면적의 1%	0.08	0.09	0.16	0.17		
	2%	0.17	0.19	0.32	0.36		
	3%	0.27	0.29	0.51	0.54		
	4%	0.39	0.42	0.72	0.76		

*서울, 부산, 제주지역도 결과는 비슷한 양상이었음. (단위: MBtu/y)

<表 3-16> 窓構造 變更에 따른 方位別 暖房負荷 差異

窓構造 方位		1 층 주택					2 층 주택				
		서울	부산	제주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제주	대전	대구
單 窓	0도(南)	0	0	0	0	0	0	0	0	0	0
	±30	0.74	0.87	0.54	0.57	0.89	1.36	1.52	0.82	1.09	1.57
	±60	1.93	2.11	1.23	1.47	2.19	3.67	3.80	2.18	2.95	3.90
	±90	3.21	3.26	2.09	2.49	3.41	6.21	6.17	3.73	5.05	6.33
	(東, 西)										
二 重 窓	±15	0.18	0.21	0.11			0.33	0.41	0.22		
	±30	0.62	0.75	0.33	0.48	0.77	1.16	1.32	0.71	0.94	1.36
	±45	1.10	1.30	0.72			2.12	2.32	1.29		
	±60	1.59	1.80	1.06	1.21	1.84	3.13	3.29	1.90	2.52	3.41
	±75	2.08	2.30	1.40			4.14	4.25	2.54		
	±90	2.64	2.86	1.78	2.02	2.86	5.28	5.33	3.24	4.28	5.44
	(東, 西)										
三 重 窓	0도(南)	0	0	0	0	0	0	0	0	0	0
	±30	0.55	0.69	0.38	0.42	0.69	1.06	1.23	0.66	0.86	1.26
	±60	1.42	1.65	0.97	1.06	1.66	2.86	3.03	1.76	2.29	3.13
	±90	2.35	2.60	1.64	1.77	2.57	4.83	4.90	2.98	3.89	4.98

* 외피단열 50mm, 窓面積比 20%인 B형주택의 값임 (단위: MBtu/y)
(1층주택 25평형, 2층주택 40평형)

<表 3-18> 住宅의 面積에 따른 暖房負荷 (單位: MBtu/y)

都市		窓面積比		10%	15%	20%	25%	30%
		二重窓	二重窓	單 窓	二重窓	三重窓	二重窓	三重窓
서울	20坪型	34.00	33.41	36.10	32.91	30.61	32.49	32.15
	25坪型	39.79	39.11	42.35	38.48	35.66	37.99	37.59
	30坪型	46.42	45.56	42.98	44.83	41.45	44.26	43.79
	35坪型	52.94	51.91	56.43	51.07	47.18	50.40	49.88
釜山	20坪型	22.92	21.94	23.64	21.13	19.43	20.46	19.92
	25坪型	26.91	25.74	27.80	24.74	22.66	23.93	23.30
	30坪型	31.69	30.31	33.04	29.15	26.65	28.26	27.56
	35坪型	35.68	34.02	36.88	32.65	29.78	31.57	30.74
西州	20坪型	19.11	18.42	20.32	17.92	16.40	17.52	17.24
	25坪型	22.78	21.96	24.25	21.32	19.46	20.83	20.50
	30坪型	26.51	25.53	28.30	24.77	22.55	24.21	23.81
	35坪型	30.19	29.05	32.24	28.17	25.60	27.53	27.09

25坪型을 基準으로 하여 보정한 값

* 이 表는 各 部位 斷熱 50mm, 南向인 B型住宅의 값임.

40坪型을 基準으로 하여 보정한 값

<表 3-15> 窓面積比 變更에 따른 方位別 暖房負荷 差異

窓比 方位		구 분		1 층 주택		2 층 주택	
		대 전	대 구	대 전	대 구	대 전	대 구
10%	0도(南)	0	0	0	0		
	±30	0.16	0.29	0.40	0.61		
	±60	0.31	0.67	1.05	1.55		
	±90(東, 西)	0.53	1.06	1.85	2.54		
15%	0도(南)	0	0	0	0		
	±30	0.31	0.54	0.66	1.01		
	±60	0.76	1.27	1.78	2.53		
	±90(東, 西)	1.29	1.99	3.08	4.06		
20%	0도(南)	0	0	0	0		
	±30	0.48	0.77	0.94	1.36		
	±60	1.21	1.84	2.52	3.41		
	±90(東, 西)	2.02	2.86	4.27	5.44		
25%	0도(南)	0	0	0	0		
	±30	0.67	1.01	1.23	1.74		
	±60	1.66	2.37	3.24	4.26		
	±90(東, 西)	2.74	3.72	5.41	6.75		
30%	0도(南)	0	0	0	0		
	±30	0.85	1.23	1.53	2.26		
	±60	2.08	2.85	3.92	5.03		
	±90(東, 西)	3.40	4.41	6.50	7.92		

* 外皮斷熱 50mm, 二重窓인 B형주택의 값임. (단위: MBtu/y)
(1층주택 25평형, 2층주택 40평형)

<表 3-17> 住宅의 바닥面積

		바닥面積計(㎡)	1層面積(㎡)	2層面積(㎡)
1層住宅	20坪型	66,333	66,333	
	25坪型	84,727	84,727	
	30坪型	101,450	101,450	
	35坪型	119,659	119,659	
2層住宅	30坪型	102,286	64,382	37,904
	40坪型	138,389	84,728	53,661
	50坪型	170,737	106,355	64,382
	60坪型	203,551	126,627	76,924

〈表 3-19〉 1層 25坪型, 2層 40坪型을 基準으로 한
各 面積別 暖房負荷의 比率

區 別			都 市	서 울	釜 山	濟 州
1 層住宅	20坪型	單窓	0.852	0.850	0.838	
		二重窓	0.855	0.854	0.840	
		三重窓	0.858	0.857	0.843	
	30坪型	單窓	1.168	1.188	1.167	
		二重窓	1.165	1.180	1.162	
		三重窓	1.162	1.176	1.159	
	35坪型	單窓	1.332	1.327	1.329	
		二重窓	1.328	1.321	1.322	
		三重窓	1.323	1.314	1.316	
2 層住宅	30坪型	單窓	0.798	0.801	0.799	
		二重窓	0.801	0.806	0.803	
		三重窓	0.804	0.810	0.807	
	50坪型	單窓	1.215	1.209	1.214	
		二重窓	1.210	1.203	1.206	
		三重窓	1.206	1.197	1.201	
	60坪型	單窓	1.421	1.411	1.419	
		二重窓	1.412	1.399	1.404	
		三重窓	1.402	1.385	1.392	

〈表 3-22〉 層別面積比가 상이한 40坪型 住宅의 面積 概要
(單位: m²)

層別面積比	바닥面積計	1層面積	2層面積	總壁面積
1:1	138.222	69.111	69.111	157.398
1:0.8	138.240	76.924	61.316	157.118
1:0.6	138.389	84.728	53.661	156.276
1:0.4	138.426	99.035	39.391	153.611

〈表 3-24〉 層別 面積比 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窓面積比 斷熱			層別面積比			
도시			1 : 1	1 : 0.8	1 : 0.6	1 : 0.4
대 전	無 斷 熱	20%	-2.47	-0.76	0	2.22
	25mm	20%	-2.85	-0.74	0	1.78
	50mm	10%	-1.91	-0.88	0	1.31
	〃	20%	-2.43	-0.88	0	1.30
	〃	30%	-2.81	-0.87	0	1.27
	75mm	20%	-1.16	-0.90	0	1.02
	100mm	20%	-1.99	-0.89	0	0.83
	平 均		-1.28	-0.85	0	1.43
대 구	無 斷 熱	20%	-2.01	-0.89	0	1.60
	25mm	20%	-2.62	-0.67	0	1.62
	50mm	10%	-1.74	-0.83	0	1.19
	〃	20%	-2.26	-0.81	0	1.19
	〃	30%	-2.63	-0.82	0	1.16
	75mm	20%	-2.03	-0.83	0	0.93
	100mm	20%	-2.87	-0.84	0	0.77
	平 均		-1.16	-0.80	0	1.22

* 이 表는 二重窓, 正南向인 40坪형 주택의 값임. (단위: MBtu/y)

* 各 住宅의 바닥面積 差異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1:0.6住宅을 基準으로 하여 補正하였음.

수행하였다. 4종 주택의 1:2층 바닥면적 및
층외벽면적(층면적 포함)은 〈표3-22〉와
같다. 열손실이 있는 바닥면적과 지붕면적은
1층 바닥면적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층별 면적비 변경에 따른
외벽면적 변화는 바닥면적의 변화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각 도시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3-23〉과
같다. 각 지역 공히 1층 바닥면적이
넓어질수록 난방부하가 커지며 창구조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팔호안의 값은 층별 면적비가 1:0.6인
주택을 기준으로 한 난방부하의 차이인데,
층별 면적비 1:0.8 및 1:0.4인 주택은
창면적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층별면적비 1:1인 주택은
창면적비가 증가함에 따라 난방부하 차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피의
단열과 창면적비를 변경시키면서 대전,
대구지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표3-24〉와 같은데 양 도시의 1:0.8인
주택에 대해서 무단열 및 단열 25mm 경우를

〈表 3-20〉 1층주택의 各 坪型別 暖房負荷 比較 (25坪형 기준)

도 시	外皮斷熱 (mm)	窓面積比 (%)	20坪형	25坪형	30坪형	35坪형
대 전	0	20	0.877	1.0	1.158	1.319
	25	20	0.866	1.0	1.162	1.329
	50	10	0.858	1.0	1.166	1.336
	75	20	0.860	1.0	1.165	1.334
	100	20	0.860	1.0	1.164	1.335
	75	20	0.855	1.0	1.166	1.337
	100	20	0.851	1.0	1.167	1.339
대 구	0	20	0.875	1.0	1.154	1.281
	25	20	0.865	1.0	1.159	1.316
	50	10	0.856	1.0	1.164	1.325
	75	20	0.859	1.0	1.161	1.320
	100	20	0.860	1.0	1.161	1.320
	75	20	0.854	1.0	1.162	1.323
	100	20	0.852	1.0	1.164	1.325

〈表 3-21〉 2층주택의 各 坪型別 暖房負荷 比較 (40坪형기준)

도 시	外皮斷熱 (mm)	窓面積比 (%)	30坪형	40坪형	50坪형	60坪형
대 전	0	20	0.826	1.0	1.192	1.366
	25	20	0.815	1.0	1.200	1.386
	50	10	0.804	1.0	1.206	1.403
	75	20	0.807	1.0	1.204	1.398
	100	20	0.808	1.0	1.204	1.392
	75	20	0.801	1.0	1.207	1.405
	100	20	0.797	1.0	1.208	1.411
대 구	0	20	0.829	1.0	1.188	1.360
	25	20	0.819	1.0	1.196	1.378
	50	10	0.808	1.0	1.203	1.396
	75	20	0.811	1.0	1.200	1.389
	100	20	0.812	1.0	1.199	1.388
	75	20	0.805	1.0	1.199	1.396
	100	20	0.801	1.0	1.204	1.402

〈表 3-26〉 換氣回數別 暖房負荷 (單位: MBtu/y)

區 分		1層住宅			2層住宅		
窓面積比	換氣回數	서 울	釜 山	濟 州	서 울	釜 山	濟 州
10%	0.5 ACH	30.61	18.99	14.28	43.93	27.30	21.26
	0.75	34.68	-	-	50.56	-	-
	1.0	38.76	24.59	18.68	57.21	36.42	28.43
	1.25	42.84	-	-	63.88	-	-
	1.5	46.94	30.24	23.14	70.56	45.64	35.70
20%	0.5 ACH	29.44	17.13	13.16	42.13	24.40	19.44
	0.75	33.44	-	-	48.61	-	-
	1.0	37.45	22.49	17.37	55.14	33.08	26.29
	1.25	41.49	-	-	61.71	-	-
	1.5	45.55	27.97	21.66	68.32	41.99	33.29
30%	0.5 ACH	28.74	16.02	12.68	41.06	22.67	18.66
	0.75	32.64	-	-	47.38	-	-
	1.0	36.58	21.14	16.70	53.77	30.96	25.19
	1.25	40.55	-	-	60.22	-	-
	1.5	44.54	26.41	20.83	66.72	39.51	31.93

제외하면 단열치 및 창면적이 변하여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피단열이 강화될수록 난방부하가
적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6. 侵氣量

침기량 변경에 따른 난방부하 변화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환기회수가 0.5 ACH,
0.75 ACH, 1.0 ACH, 1.25 ACH 인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환기회수 1.0 ACH 를 기준으로 한 침기량

〈表 3-23〉 層別面積比 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單位: MBtu/y)

1) 서 울

總別面積比 窓面積比 窓構造		1 : 1	1 : 0.8	1 : 0.6	1 : 0.4
10%	二重窓	62.60 (-2.02)	63.61 (-1.01)	64.62 (-1.48)	66.10 (1.48)
	三重窓	60.36 (-2.02)	61.36 (-1.02)	62.38 (1.47)	63.85 (1.47)
15%	二重窓	61.02 (-2.46)	62.43 (-1.05)	63.48 (1.44)	64.92 (1.44)
	三重窓	57.71 (-2.44)	59.04 (-1.11)	60.15 (1.40)	61.55 (1.40)
20%	二重窓	59.73 (-2.72)	61.46 (-0.99)	62.45 (1.47)	63.92 (1.47)
	三重窓	55.32 (-2.60)	56.92 (-1.00)	57.92 (1.47)	59.39 (1.47)
25%	二重窓	58.62 (-3.01)	60.63 (-1.00)	61.63 (1.41)	63.04 (1.41)
	三重窓	53.09 (-2.88)	54.96 (-1.01)	55.97 (1.41)	57.38 (1.41)
30%	二重窓	57.69 (-3.25)	59.93 (-1.01)	60.94 (1.44)	62.38 (1.44)
	三重窓	51.07 (-3.09)	53.15 (-1.01)	54.16 (1.43)	55.59 (1.43)

3) 濟 州

總別面積比 窓面積比 窓構造		1 : 1	1 : 0.8	1 : 0.6	1 : 0.4
10%	二重窓	35.87 (-0.77)	36.20 (-0.44)	36.61 (0.53)	37.17 (0.53)
	三重窓	34.45 (-0.73)	34.74 (-0.44)	35.18 (0.53)	35.71 (0.53)
15%	二重窓	34.33 (-0.94)	34.83 (-0.44)	35.27 (0.52)	35.79 (0.52)
	三重窓	32.17 (-0.90)	32.62 (-0.45)	33.07 (0.52)	33.59 (0.52)
20%	二重窓	33.20 (-0.99)	33.76 (-0.43)	34.19 (0.52)	34.71 (0.52)
	三重窓	30.29 (-0.94)	30.79 (-0.44)	31.23 (0.52)	31.75 (0.52)
25%	二重窓	32.28 (-1.11)	32.94 (-0.45)	33.39 (0.50)	32.29 (0.50)
	三重窓	28.63 (-1.05)	29.22 (-0.46)	29.68 (0.49)	30.17 (0.49)
30%	二重窓	31.61 (-1.18)	32.35 (-0.44)	32.79 (0.49)	30.17 (0.49)
	三重窓	27.23 (-1.11)	27.90 (-0.44)	28.34 (0.50)	28.84 (0.50)

2) 釜 山

層別面積比 窓面積比 窓構造		1 : 1	1 : 0.8	1 : 0.6	1 : 0.4
10%	二重窓	41.24 (-1.47)	42.07 (-0.64)	42.71 (0.89)	43.60 (0.89)
	三重窓	39.64 (-1.42)	40.42 (-0.64)	41.06 (0.89)	41.95 (0.89)
15%	二重窓	38.06 (-1.72)	40.12 (-0.66)	40.78 (0.87)	41.65 (0.87)
	三重窓	36.60 (-1.70)	37.64 (-0.66)	38.30 (0.87)	39.17 (0.87)
20%	二重窓	37.21 (-1.93)	38.53 (-0.61)	39.14 (0.88)	40.02 (0.88)
	三重窓	33.99 (-1.83)	36.21 (-0.61)	35.82 (0.88)	36.70 (0.88)
25%	二重窓	35.71 (-2.11)	37.21 (-0.61)	37.82 (0.84)	38.65 (0.84)
	三重窓	31.69 (-1.98)	33.06 (-0.61)	33.67 (0.83)	34.50 (0.83)
30%	二重窓	34.50 (-2.27)	36.22 (-0.55)	36.77 (0.83)	37.61 (0.83)
	三重窓	29.70 (-2.10)	31.31 (-0.49)	31.80 (0.83)	32.63 (0.83)

* 이 表는 斷熱 50mm, 正南向인 B型住宅의 값임 (40坪型)
各住宅의 바닥面積 差異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1 : 0.6住宅을 基準으로 하여 보정하였음.

〈表 3-25〉 侵氣量 變更에 따른 暖房負荷 差異

變 數				暖房負荷差異 (MBtu/y)			
斷熱 (mm)	窓 面 積 比 (%)	窓 構 造	侵氣量 差 異 (ACH)	1 층 주 벽		2 층 주 벽	
				대 전	대 구	대 전	대 구
0	20	이 중 창	-0.25	-6.92	-6.52	-11.43	-10.42
			+0.25	-3.46	-3.26	-5.70	-5.21
25	20	"	-0.5	-6.85	-6.44	-11.33	-10.28
			+0.25	-3.43	-3.22	-5.67	-5.15
50	10	"	-0.5	-6.91	-6.51	-11.47	-10.42
			+0.25	-3.46	-3.26	-5.75	-5.22
50	20	"	-0.5	-6.79	-6.35	-11.24	-10.18
			+0.25	-3.40	-3.19	-5.64	-5.11
50	30	"	-0.5	-6.63	-6.18	-10.94	-9.84
			+0.25	-3.33	-3.11	-5.50	-4.96
75	20	"	-0.5	-6.74	-6.31	-11.16	-10.09
			+0.25	-3.38	-3.17	-5.61	-5.08
100	20	"	-0.5	-6.71	-6.27	-11.11	-10.01
			+0.25	-3.37	-3.16	-5.59	-5.05

차이에 따른 난방부하 차이는 〈표3-25〉와 같다. 이 표를 보면 동일한 창면적비에서는 단열치가 낮을수록 난방부하차이가 크며, 또한 동일한 단열치에서는 창면적비가 작을수록 난방부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값들은 그리 크지 않다. 이 값들의 평균치를 계산하면 대전, 대구의 1,2층 주택의 경우 공회 외피단열 50mm, 창면적비 20%, 이중창인 경우의 값과 유사하다. 또한 서울, 부산, 제주지역의 환기횟수별 난방부하는 〈표3-26〉과 같다.

강 범 회 고 록

나그대로

정 수 덕 이

□ 회원동정 □

경기도지부 鄭禹澤회원이 喜壽(77세)의 나이에 건축사사무소 개업50주년 기념으로 회고록을 출간하였다.
鄭회원은 1941년부터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업하고 50여년을 운영하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주옥같은 글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山戰水戰을 겪으면서 회고록에 그의 人生論, 信仰論, 藝術論, 政治論등을 담아, 많은 후배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데 충분하다 하겠다.

3 원리

10	姓	
6	姓호의 인 人爲結合	金松孝
8	저 3차 여치미해설 3次書 題覽書內	
	書卷內	
11	동양적(주) 11 동양사상	金東宰
14	남로 14 남로회관	李在均
16	대형에의 사색 16 대형에의 사색	李起熙
18	한성대학 후준관 18 한성대학 후준관	朴好牧
20	영동로 유물관 20 영동로 유물관	尹學謙
21	서조술 21 서조술 3월말	鄭相淳
25	학 25 학 25월말 회관	俞元佐
28	신화 역사 28 신화 역사	35 28부 28월말 회관(1) / 28부사
	학 회	
32	이 시의 32 이 시의 32월말 회관	32 이 시의 32월말 회관(1) / 32부사
	학 회	
34	건국 34 건국 34월말 회관	34 건국 34월말 회관(1) / 34부사
	학 회	
54	건국 54 건국 54월말 회관	54 건국 54월말 회관(1) / 54부사
	학 회	
56	한국 56 한국 56월말 회관	56 한국 56월말 회관(1) / 56부사
	학 회	
60	한국 60 한국 60월말 회관	60 한국 60월말 회관(1) / 60부사
	학 회	
62	한국 62 한국 62월말 회관	62 한국 62월말 회관(1) / 62부사
	학 회	
70	한국 70 한국 70월말 회관	70 한국 70월말 회관(1) / 70부사
	학 회	
80	한국 80 한국 80월말 회관	80 한국 80월말 회관(1) / 80부사
	학 회	
84	한국 84 한국 84월말 회관	84 한국 84월말 회관(1) / 84부사
	학 회	
89	한국 89 한국 89월말 회관	89 한국 89월말 회관(1) / 89부사
	학 회	

6 월항

[illegible]

7 월호

8 월호

9 월호

10 월호

11 월호

12 월호

건축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3호)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동 조사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제10조의2).
- 나. 지체부자유자 전용변소의 설치기준을 정함(제27조 제4항).
- 다. 건설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의4).
- 라. 지하층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지표에서 깊이 5미터이상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서 흙막이판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함(별표1).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치도·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2.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 각 1부(영 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 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여부 등
2. 구조: 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 등
3. 설비: 법 제22조·법 제22조의2·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비상급수설비등 건축설비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4. 형태: 법 제31조·법 제39조·법 제39조의2·법 제40조·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제한에 대한 적합여부

5. 용도: 법 제32조·법 제33조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대한 적합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 상태조사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 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종 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승강기등 건축설비에 대하여 건축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각 1부

제1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19조 제1항 본문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을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벽”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용 변소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소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은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각변의 길이는 유효폭이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대변기의 양측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영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축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1] 중 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의 형질변경을 요하는 경우	토지의 지형 평면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중·경단면 3. 구조물의 위치
		토지의 단면도	임의	1. 축척 2. 단면 상세(구조물 및 인접 토지를 포함한다)
		흙막이판구조도 (지표면에서 깊이 5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	1. 축척 2. 평면 및 단면 3. 공법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별지 제5호의3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중

④공사감리자란 및 ⑤공사시공자란을 각각

④ 공사 감리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	
⑤ 공사 시공자	명 제8조제2항에 의한 상주감리 건축 사보의 성명,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 번호 감 설 업 면허번호	
	주소	(전화)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배 치기술자의 성명	자격 및 면허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제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2 서식] 제67항중
“(58+59+60+61+62)”를 “(58+59+
60+61+62+66)”으로 하며, 동서식
제70항중 “Mcal/m²h℃”를 “
“Mcal/m²hr”로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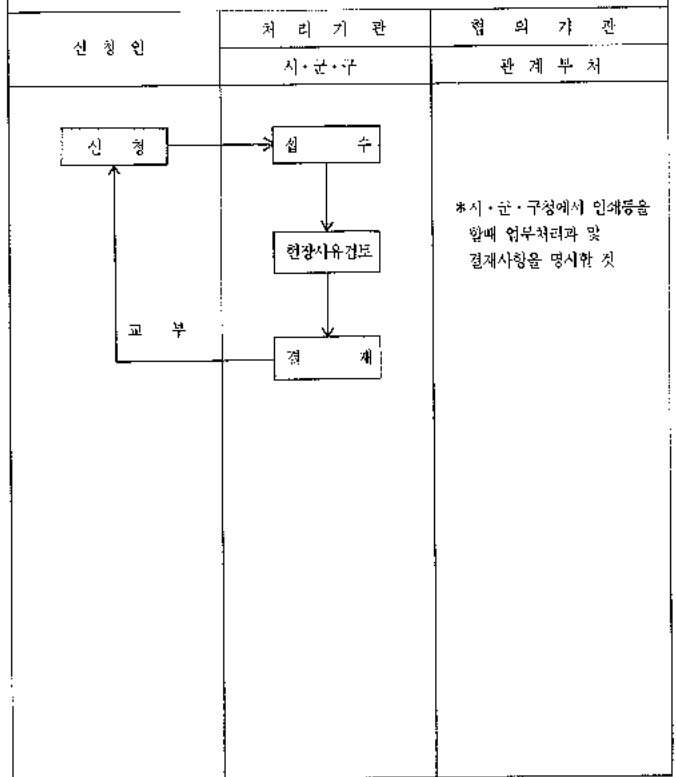
[별지 제5호의2]

(앞쪽)

작성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 일
건축주	①성명 ③주소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④대지위치		
⑤건축허가 번호	일자	
⑥연장기간 일자 (일간)		
연장사유:		
건축법 제5조 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작성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건축법 제5조 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기간연장을 승인합니다.		
수주요 없음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증축등신고서				처리기간
				일
①건축구분	☐ 증축 ☐ 재축 ☐ 개축 ☐ 대수선 ☐ 설계변경			
건축주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대지의위치				
⑥지역		⑦지구		
⑧대지면적(㎡)		⑨공사종별		
⑩주용도		⑪부속용도		
규모	면적(㎡)	⑫신청부분	⑬신청이외부분	⑭합계
	⑮신축면적			⑯공사또는 변경면적(㎡)
	⑰연면적			⑱건폐율(%)
				⑳용적률(%)
㉑구조		㉒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건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신장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1.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각 1부 2. 구조재산서 및 구조도 각 1부 (영 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30304-06511 인
1988. 9.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구·군	관계부서
신고 ↓ 접수 ↓ 검토 ↓ 결정 ↓ 신고종교부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와 및 결재사항을 명시할 것
제 호 건축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제1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⑤면허번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 호	
	⑧주소	(전화)		
공사감리자	⑨성명	⑪면허번호	제 호	
	⑩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 호	
	⑬주소	(전화)		
공사시공자	⑭성명또는 상호	⑮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⑯주소	(전화)		
⑰대지의위치				
⑱허가번호		제 호	⑲허가일자	
㉑착공일자		㉒준공일자		
㉓준치기간(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년				
※검사일자		※검사자		㉔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준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신장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신청건축물 등별개요 2. 설계도서2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30304-07021 인
1988. 9.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제1면)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일반현황	①소유자	성명(집합건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②건물명	③소재지	
	④허가일자	⑤준공일자	
	⑥허가기관	⑦입주일자	
	⑧지역	⑨지구	
⑩유지관리책임자	성명·상호		
	주소	(전화)	
준공도면의 종류와 비치여부	⑪도면의 비치장소	⑫도면의 관리자	
	⑬비치도면의 종류	배치도 ☐ 각층평면도 ☐ 단면도 ☐ 단면상세도 ☐ 구조재산서 ☐ 구조도 ☐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도 ☐ 조경도 ☐ 건축설비도 ☐ 소방설비도 ☐ 주차장평면도 ☐ 토지의 지형평면도 ☐	

30304-12531 인
1988. 9.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제 2 편)

구 분		문 공 시	조 사 시	증강및 사유
대 지	①대 지 면 적 (㎡)			
	②식목·용벽갈이와 안전유무			
	③대지안의 면 적 (㎡)			
	④대지안의 식 수 (본수)			
형 태	⑤예술품장식품(개)			
	⑥건축선제한 격법유무			
	⑦바 닥 면 적 (㎡)			
	⑧건 축 면 적 (㎡)			
대	⑨연 면 적 (㎡)			
	⑩건 세 율 (%)			
	⑪용 적 륜 (%)			
	⑫대지면적 최소한도 (㎡)			
비	⑬높 이 제 한 (m)			
	⑭대지안의 공지 (㎡)			
	⑮기 타			

(제 3 편)

용 도	⑯주 용 도			
	⑰부 속 용 도			
	⑱기 타			
구 조	⑲구조내력 지장유무			
	⑳방 화 구 획 (개소)			
	㉑방 화 벽 (개소)			
	㉒내화구조 변경유무			
	㉓방화구조 변경유무			
	㉔대수선이외의 수선사항			
	㉕기 타			

(제 4 편)

설	①생·난방설비	방 식			
		작 동 유 무			
	②공기조화설비	방 식			
		작 동 유 무			
비	③승 강 기	승 용 (대)			
		작 동 유 무			
		비상용 (대)			
		작 동 유 무			
비	④배상급수설비	방 식			
		용 량 (ℓ)			
	⑤급·배수설비사용지장 유무				
	⑥배연설비의 작동유무				
비	⑦미난계단의 유지 및 보수유무				

(제 5 편)

⑧조사자 종합의견

건축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의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⑨

제출자 ⑩

귀하

1988년 10월분 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 4,186,309㎡ 보다 3.5%감소(147,253㎡) 한 4,039,056㎡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1~10월분 합계한 전년누계 44,301,030㎡ 보다 31.9%증가(14,140,213㎡) 한 58,441,243㎡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지난 9월분 5,338,875㎡ 보다 24.3%감소(1,299,819㎡) 한 4,039,056㎡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 (地域別 増減狀況)

(연면적 기준) (전년동월비)

(단위 M²)

구분	지 부 별	87년도	88년도	비 율 (%)
증가지역	인천지부	269,731	515,336	91
	경기지부	648,192	813,789	26
	충남지부	178,333	273,165	53
	전북지부	76,630	142,324	86
	경북지부	197,540	265,851	35
감소지역	서울지부	976,847	843,781	-14
	대구지부	252,065	134,380	-47
	광주지부	164,756	162,972	-1
	강원지부	136,431	123,445	-10
	충북지부	141,331	116,674	-17
	전남지부	148,893	121,052	-19
	경남지부	494,437	481,244	-3
	제주지부	50,843	45,043	-11

全國圖書申告 概況 (種別前月 對比狀況)

(연면적 기준)

(단위 M²)

종 별	9 월분	10월분	증· 감	비율 (%)
단 독 주 택	929,521	592,449	-336,972	-36.3
다 세 대 주 택	242,299	126,573	-115,726	-47.7
연 립 주 택	136,328	69,039	-67,289	-49.4
아 파 트	1,104,120	716,709	-387,411	-35.1
근린생활시설	1,000,934	1,072,972	72,038	7.2
종 교 시 설	58,142	36,249	-21,893	-37.7
의 료 시 설	20,142	10,552	-9,590	-47.6
교육연구시설	151,884	106,230	-45,654	-30
업 무 시 설	206,782	251,913	45,131	21.8
숙 박 시 설	103,821	66,998	-36,823	-35.5
공 장	949,003	648,870	-300,133	-31.5
기 타	435,899	340,402	-95,497	-21.9
계	5,338,975	4,039,056	-1,299,919	-24.3

* 10월 부산지부 도서자료 누락.

* 부산지부 도서자료 누락.

支部別 全國圖書 申告 理況 (10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1,022	1,072	775,493	170	177	68,288	0	0	0	1,192	1,249	843,781
부산지부	0	0	0	0	0	0	0	0	0	0	0	0
대구지부	268	281	96,009	168	179	30,234	26	26	8,137	462	486	134,380
인천지부	332	380	494,158	53	56	16,671	13	13	4,507	398	449	515,336
광주지부	379	405	147,462	56	61	13,799	12	12	1,711	447	478	162,972
경기지부	1,392	1,494	638,912	208	239	130,873	61	61	44,004	1,661	1,794	813,789
강원지부	303	357	104,951	80	91	14,957	17	17	3,537	400	465	123,445
충북지부	404	444	98,663	81	85	14,475	21	22	3,536	506	551	116,674
충남지부	455	483	227,296	139	139	35,850	85	85	10,019	679	707	273,165
전북지부	235	289	108,874	78	81	31,582	16	16	1,868	329	386	142,324
전남지부	348	383	99,912	136	144	17,370	7	7	3,770	491	534	121,052
경북지부	416	464	164,552	149	167	91,490	20	20	9,809	585	651	265,851
경남지부	1,213	1,394	381,324	538	634	93,981	25	27	5,939	1,776	2,055	481,244
제주지부	170	190	38,153	43	44	6,890	0	0	0	213	234	45,043
합 계	6,937	7,636	3,375,759	1,899	2,097	566,460	303	306	96,837	9,139	10,039	4,039,056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1月~10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22,882	23,673	11,030,974	2,011	2,102	823,899	0	0	0	24,893	25,775	11,854,873
부산지부	11,076	12,667	4,047,453	3,030	3,355	517,559	442	462	146,435	14,548	16,484	4,711,447
대구지부	6,487	7,088	2,416,110	4,435	4,655	359,316	281	281	82,018	11,203	12,024	2,857,444
인천지부	5,111	5,386	3,940,934	445	481	203,035	166	167	56,648	5,722	6,034	4,200,617
광주지부	3,813	3,960	1,523,704	711	765	327,944	73	76	20,227	4,597	4,801	1,871,875
경기지부	20,126	21,707	9,223,943	2,498	2,773	1,408,101	528	528	380,663	23,152	25,008	11,012,707
강원지부	3,673	4,199	1,215,476	892	1,051	245,140	153	154	42,543	4,718	5,404	1,503,159
충북지부	4,442	5,017	1,673,687	1,191	1,299	383,345	175	192	35,508	5,808	6,508	2,092,540
충남지부	6,856	7,072	3,078,177	1,202	1,202	511,830	695	695	168,484	8,753	8,969	3,758,491
전북지부	2,932	3,219	1,614,691	788	818	314,444	174	174	41,652	3,894	4,211	1,970,787
전남지부	4,034	4,661	2,137,784	1,302	1,565	457,930	63	63	28,806	5,399	6,289	2,624,520
경북지부	6,016	6,765	2,595,103	1,696	1,981	1,014,390	191	192	78,606	7,903	8,938	3,688,099
경남지부	12,656	14,639	4,431,296	4,558	5,395	1,212,095	239	250	94,500	17,453	20,284	5,737,891
제주지부	1,889	2,108	504,718	241	242	51,900	2	2	175	2,132	2,352	556,793
누 계	111,993	122,161	49,434,050	25,000	27,684	7,830,928	3,182	3,236	1,176,265	140,175	153,081	58,441,243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10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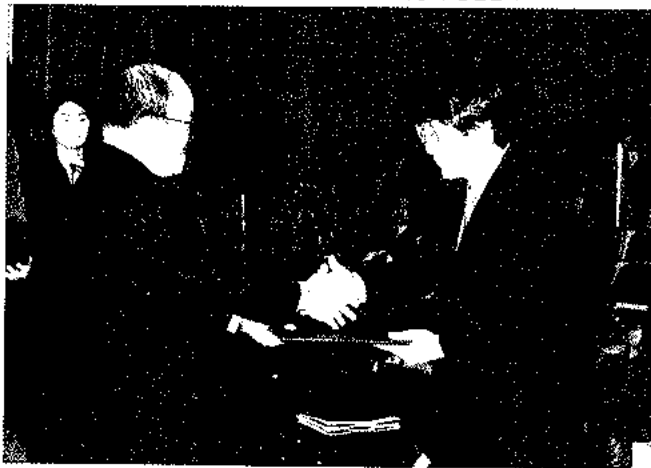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569	3,667	531,771	768	820	58,709	52	52	2,069	4,389	4,539	592,549
다세대주택	527	546	122,076	90	90	4,492	1	1	5	618	637	126,573
연립주택	37	65	66,635	7	8	2,404	0	0	0	44	73	69,039
아파트	58	198	682,545	10	19	33,768	4	4	396	72	221	716,709
근린생활시설	1,573	1,602	943,477	375	389	75,552	143	144	53,943	2,091	2,135	1,072,972
종교시설	58	66	26,120	34	37	10,122	1	1	7	93	104	36,249
의료시설	3	3	5,802	7	11	4,750	0	0	0	10	14	10,552
연구교육시설	34	42	56,295	49	58	48,976	4	4	959	87	104	106,230
업무시설	95	106	226,864	32	34	24,745	2	2	304	129	142	251,913
숙박시설	79	79	53,433	31	31	12,171	8	8	1,394	118	118	66,998
공장	348	547	436,690	160	224	193,112	32	34	19,068	540	805	648,870
기타	556	715	224,051	336	376	97,659	56	56	18,692	948	1,147	340,402
합 계	6,937	7,636	3,375,759	1,899	2,097	566,460	303	306	96,837	9,139	10,039	4,039,056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1月~10月 合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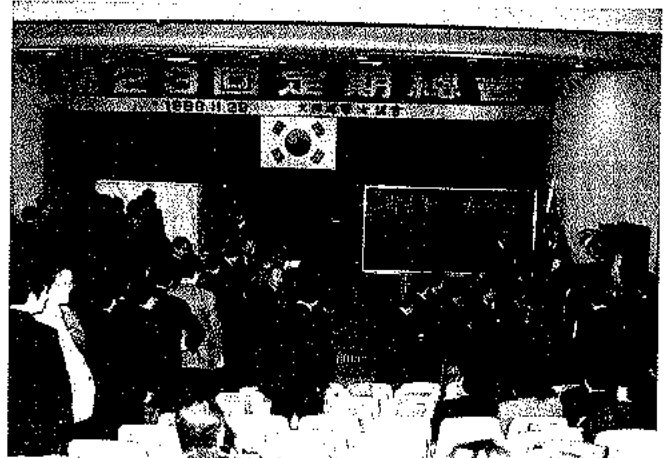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60,278	162,190	9,442,135	10,506	11,001	693,332	520	520	34,453	71,304	73,711	10,169,920
다세대주택	12,128	12,683	2,556,540	2,425	2,453	110,610	61	64	5,928	14,614	15,200	2,673,078
연립주택	567	1,064	1,342,928	34	41	20,357	1	1	232	602	1,106	1,363,517
아파트	915	3,814	12,188,038	112	220	373,320	14	22	29,543	1,041	4,056	12,590,901
근린생활시설	25,878	26,292	10,533,901	4,754	4,847	1,045,857	1,407	1,422	419,415	32,039	32,561	11,999,173
종교시설	651	746	415,504	423	465	149,560	29	29	6,897	1,103	1,240	571,961
의료시설	71	82	214,360	94	104	76,569	17	17	4,839	182	203	295,768
교육연구시설	369	502	813,019	535	615	719,835	105	107	106,916	1,009	1,224	1,639,770
업무시설	1,018	1,096	2,115,892	538	593	329,417	54	54	35,625	1,610	1,743	2,480,934
숙박시설	1,358	1,450	1,364,358	439	458	269,641	105	106	66,966	1,902	2,014	1,700,965
공장	3,412	5,689	5,873,524	2,052	3,262	2,710,495	323	342	253,570	5,787	9,293	8,837,589
기타	5,348	6,553	2,573,851	3,088	3,625	1,331,935	546	552	211,881	8,982	10,730	4,117,667
누 계	111,993	122,161	49,434,050	25,000	27,684	7,830,928	3,182	3,236	1,176,265	140,175	153,081	58,441,243



▲ 제17대 회장에 당선된 송기덕회장의 당선인사



▲ 건축사설계작품전에서 건설부장관상을 받는 김석철회원



▲ 새회장을 선거하는 대의원들



▲ 신인·학생공모전의 신인부문 금상 시상



▲ 신임이사에 선임된 정환호, 박영희, 조상호, 이종환 이사

제23회 정기총회

開 會 辭



오늘 歷代 會長님과 代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大韓建築士協會 제23회 定期總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臨席하여주신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崔同燮 건설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한건축학회 朴胤成 會長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3일로 創立 23周年을 맞은 우리 協會는 이제 14個市道支部에 2천 9백여 會員을 기록하는 큰 協會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体制과 組織의 놀라운 발전은 물론 會員의 權益도 현저하게 확대신장되어 확실히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蓄積한 底力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經濟와 社會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서울 올림픽 때에는 각종 施設物의 建築을 통하여 성공적인 개최에 어느 분야 못지않게 功獻함으로써 우리 建築士의 긍지를 드높인 것도 그 한 예로서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歷代 會長님과 任員과 會員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 자타가 인정하는 오늘의 당당한 協會의 成長으로 결실된 것이라고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나라가 안팎으로 분주하고 바쁜 한 해였습니다만 꾸준히 協會 当面業務를 추진하고 해결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조용한 가운데 많은 일로써 協會發展을 示顯한 한해가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建築士年金制度는 당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基金이 조성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최고의 이율로 預託하여 큰 폭으로

増殖되고 있습니다. 또한 一抹의 시행착오없이 운영되도록 연구를 의뢰한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검토도 완료되었습니다. 聯合會制度는 既히 2차년도로 접어든 獨立預算制實施로 각 지부가 자율적 운영의 경험을 蓄積하게 되어 政府가 地白制를 실시하면 그 시기와 때 맞추어 지체없이 실시될 것입니다. 法令이나 制度改善에 관하여서는 關係機關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꾸준히 協會案을 제출,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고자 協會案을 수렴하려는 정부 및 關係機關의 노력이 확연하여 점진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때 우리가 크게 염려하였던 建設技術管理法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는 立法 및 行政府가 그 타당성을 인정 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지난 總會 때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겠다고 서약한 그 어려운 고비를 겪었던 것이 새삼 감회깊게 생각되며, 그 결과, 이 강열한 의지의 결과가 성취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會員을 中心으로 한 建築士特別銓衡問題도 확고한 정신력의 바탕이 없었던들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겠음니다만 協會나 會員 당사자들의 혼연일치된 피나는 努力의 성과가 만족할 만한 오늘의 結實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協會의 가장 컸던 行事로서는 會員들의 전적인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치룬 제3차 아카시아大會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大會는 創立以來 최초의 國際大會로서 회원여러분의 잠재한 실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우리 협회를 國內外로 빛내고 國威를 아낌없이 宣揚하는 큰 몫까지 해냈었다는 사실에서 기리 協會史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또한 會員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운데 「韓國의 建築」을 발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業務가 協會發展의 차원에서, 會員의 權益伸張의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또한 추진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結果가 뜻한대로 좋은 成果를 얻으려면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聲援이 있어야 할 것임은 再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협회를 運營해 나가는 原動力은 다른 아무 것도 아닌 오직 全會員의 舍心協力 하나 뿐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強調하여 말씀 드리고 앞으로의 협회 운영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代議員 여러분,

오늘의 이 總會는 우리 자신의 일을 협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음니다만 이곳이 곧 이 나라 建築文化 發展의 播監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이 總會를 통하여 우리나라 建築文化 發達에도 기여하는 유익한 성과가 거두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協會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開會辭에 같습니다.

1988年 11月 29日

會長 安 箕 泰



建設部

崔同燮長官

致辭

오늘 대한 건축사협회 스물세돌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安箕泰 회장님과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국회건설위원회 李麟求 의원님과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본인이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협회가 주관하여 이달초에 성대하게 개최한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문화와 건축인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과시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 건축사간의 교류와 우호의 증진은 물론이고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민주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노력을 여러 분야에서 기울이고 있으며, 건축계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건축사 여러분께서도 이같은 역사적 요청에 부응한 참신한 建築士像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나라 건축을 포함한 건설행정의 총책임을 맡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建築士像에 대해서 평소에 가져오던 몇가지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여러분의 이해와 분발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건축사란 造形藝術創作人인으로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배타적으로 허용받고 계시는 측면에서는 公人의 입장에 계시며 建築行政遂行의 同業者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건축분야에 있어서 법질서 확립과 아울러 스스로 보다 대승적 견지에 서서 전체적인 면에서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에 적극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법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건설행정질서를, 다시 말씀드리어서 건축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꼭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같이 겸허한 반성과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건축은 조형창작 활동을 통해 그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고 역사를 담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社會的 責任은 대단히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더구나 國際化의 물결이 쇄도하는 개방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건축문화수준을 국제사회에 선양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이 점에서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가 또한 남다른 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이 빛나는 총회가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건축사의 召命意識에 대한 새로운 재확인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분발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선출하게 되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을 구심점으로 해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건축사협회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건축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퇴임하게 되는 安箕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올리면서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치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國會 建設分科委員會

李麟求議員

祝 辭



오늘 건축사협회 제23회 定期總會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의의있는 곳에 국회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오용운위원장께서 나오실 계획이었습니다라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제가 대신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職場人 중에서 가장 긍지가 높은 계층의 직장인으로 알고 존경해 오고 있는 터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공간에 여러가지 문화발전을 상징하는 조형예술을 창조해 나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또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선도적 산업인 건축산업의 원천적 主導人으로서 설계와 감리를 주도해 나가는 대단히 책임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치른 나라로서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나라가 온통 긍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각국에서 온 올림픽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올림픽이 조직이 잘되고 기록이 풍성해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 都市로서 調和가 잘 되어 있고, 건축이 훌륭하는 등 도시적 측면에서 놀랐다고 보겠는데 이런 발전을 가져오게 된 創造의인 役割을 해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더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존경하고 긍지가 높은 직업인을 가릴 때 대개 3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창조적 세계를 그려나가는 建築士 여러분, 그리고 인체의 모든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醫士, 또 사회의 잡다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辯護士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같이 국가에서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法律的 問題와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사 여러분이 바늘이라면 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인의 입장에서 더욱 더 오늘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축사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인고를 하고, 참지 못할 것도 참아가면서 오늘까지 자체적인 발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나라의 모든 시책이 그렇지만 經濟가 官主導의인 관행에서 전문인인 여러분들이 볼때 수준이 낮은 행정관리에 의해 억압과 수모를 당하며 영역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가지 法改正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심이 모자란 많은 建築主들의 횡포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세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존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한 일이지만 바로 건축사 세계에서 似而非 建築士도 있고, 연구를 게을리하는 건축사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내의 갈등과 혼란을 여러분 스스로 슬기롭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충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긍지가 높고, 격조 높은 지성인 집단인 건축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을 인식하면서 정진해 나가야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비민주적 사회로부터 청산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는데 지성인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과 그간의 독주와 독점의 시대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절충과 타협에 의한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첫발을 내디디 주시고, 여러분들의 업계의 의견이 하나로 귀일되고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들 共同的 힘이 凝化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축사를 통해서 또 이러한 기회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는 그런 뜨거운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第16代 會長

離任辭

離就任

韓建築士協



지난 2년은協會의 발전과會員의權益을 먼저 생각하면서 公人의 位置에서 微力하나마 온 힘을 쏟았던 저의生涯中 가장 보람찬 時期였다고 생각합니다.

回顧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으며會員 여러분의 理解가 아쉽게 느껴진 때도 있었고, 協調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도 있었읍니다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心的으로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괴로움들이 바로 우리가 目標한 問題 解決을 위해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努力의 한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微笑짓게 됩니다.

제가 在任中 개척되었던 올림픽 때에는會員 여러분의 훌륭한 建築作品을 통해 우리의 位置에서 올림픽의 成功에 이바지한 것도 자랑스러울뿐 아니라協會가 未修交國 建築士團體와 새로움게 관계를 맺게 된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전임 吳雄錫 회장 당시 誘致한 것입나다만 우리協會 創立以來 최초로 제3차 아시아건축사 대회라는 國際大會를 主管하여 成功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저의 在任中の 일로서 名譽로움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大會는

全會員의 적극적인 協調가 아니었던들 成功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우리會員의 底力이 誇示되고 國威도 宣揚한 뜻깊은 行事였다고 믿습니다.

저의 記憶에서 아직도 새로움게 느껴지는 在任中の 일 가운데 하나는 建設技術管理法과 관련하여 일부會員들이 意見不一致 현상을 보임으로써 잠시나마 不便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建設技術管理法이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한대로 원만하게 終結된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일부會員들의 그토록 열띤 反作用의 에너지가 結果的으로는 하나의 推進力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의 眞實도 역시會員의 權益을 死守하자는 저의 決然한 意志와 軌를 같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歸結點은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業務受注方式의 公正去來 저축여부 문제, 建築士特別銓衡문제, 法令의 改正과 制度의 改善문제, 建築上年金制度 실시, 獨立豫算制 및 聯合會制度 실시 등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協會의 發展과會員의 權益伸張 차원에서 推進되어 큰 進展을 보이기도 하였고 또 어떤 것은 이미 終結되어 有終의 美를 거두기도 하였읍니다.

次期會長의 所管으로 옮겨지게 된 것들은 業務內容의 性格上 終結되지 못한 것들이며 그렇다고 그 어느 하나 疏忽함 없었음을 뉘우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처럼 큰 보람을 안고 名譽로움게 退任하게 되기까지는 歷代會長님과 本部任員과 市道支部長을 비롯한 그늘에 가리어진채 묵묵히 일하고 있는 事務處職員 여러분 勞苦가 컸음을 밝힙니다.

특히協會의 일이라면 事務所일을 뒤로 비우고 肅然하여 앞에 나서 주셨던 本部任員과 각 委員會委員과 市道支部長 및 支部任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의 그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宋基德 회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任員陣 여러분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베풀어져協會가 持續的으로 發展하여 나가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더욱 發展하고 貴宅에 幸運이 넘치시기를 祈願합니다.

1988. 12. 13

第16代 會長 安箕泰

1988년도 제23회 定期總會 開催

會長에 宋基德회원 選出

- 일시: 1988년 11월29일(화) 오전10시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 참석: 재적대의원 311명중 292명

• 부의안건처리 및 임원개선

(1) 부의안건 처리

- 제 1 호의안: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수정통과(세입에서 3,640만원 삭감, 세출도 균형조정)
- 제 2 호의안: 1989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제 3 호의안: 건축사연금 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89년도 3월 결산총회까지 검토 처리하기로 보류
- 제 4 호의안: 1989년도 건축사연금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2) 임원개선

- 會長: 宋基德(임기 2년)
- 理事: 鄭煥鎬(임기 2년)
- 趙相鎬(")
- 朴永熹(")
- 李種完(")
- 監事: 金一榮(임기 1년)
- 吳雲東(임기 2년)

• 회의경과

오전 10시24분 安箕泰 議長の 成員報告 및 개회선포로 개회되어 국민의례와 건축사현장 낭독을 하였다. 이어 議長の 개회사와 崔同燮 건설부장관의 치사, 그리고 李麟求 국회건설위원회 의원의 축사가 있는 다음 施賞順으로 들어갔다. 시상은 건축사설계작품에 대한 大賞을 건설부장관이 수여하고, 신인 및 학생 건축설계 입선작의 시상 이후 공로회원 표창 및 업체 감사패 수여, 모범직원 표창, 추대회원 추대가 있었다. 다음 安箕泰 의장은 1988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승인방법을 대의원에게 물은 후 이의없이 유인물대로 승인하고, 사무처장의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감사보고에



들어갔다. 감사보고는 일반행정 및 경리감사 결과를 尹鳳源 감사와 柳根淵 감사가 각각 보고하였으며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보고를 접수하였다. 이어 의장은 1989년도 시도지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보고를 이의없이 유인물대로 집수를 한 후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갔다. 부의안건 상정은 安箕泰 의장이 부의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안건순서 및 추가안건 여부를 물은 후 金永奭 대의원(서울) 및 田在基 대의원(경북)의 동의로 건설기술 관리법의 대책에 관한 건을 제1호의안 심의전에 기타사항으로서 다루고 제3호의안과 제4호의안을 순서를 각기 바꾸기로 결정한 다음 의장은 부의안건 상정을 선포하고 中食을 위하여 12시48분에 정회를 하였다. 오후 2시7분 의장이 속개를 선포한뒤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제1호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호의안,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후 金亨培 대의원(서울)의 동의로 세입에서 실적회비 3,6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입 범위내에서 세입과 세출을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기로 하여 제1호의안을 이의없이 승인하였다. 제2호의안, 1989년도 특별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제3호의안,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姜基世 담당이사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다수 대의원들의 동의로 1989년 3월 결산 총회시까지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제4호의안, 1989년도 건축사 연금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장이 설명한 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고 임원개선에 들어갔다.

다음 安箕泰 의장은 임원개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의없이 會長選任을 먼저하기로 하고 회장후보로 宋基德, 朴瑀夏, 姜錫俊 등 3인을 확정 발표한 후 오후 4시43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 이어 오후 4시54분 의장은 속개를 선언하고 회장 선출방법, 감표위원 지명 및 所見發表를 듣기로 하였다. 所見發表는 姜錫俊, 朴瑀夏, 宋基德 후보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姜錫俊 후보의 사퇴가 있는 후 오후 5시20분 투표에 들어가서 오후 5시50분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에 이어 무효 1표, 朴瑀夏 후보 107표, 宋基德 후보 169표로서 신임회장 당선자로 宋基德 후보가 결정된 것을 선포하였다. 이어 理事 選任에 들어가서 의장은 이사 4명의 선임방법을 묻고 이의없이 신임회장 당선자에게 일임하기로 한 다음, 신임 宋基德 회장 당선자는 신임이사로 鄭煥鎬, 趙相鎬, 朴永熹, 李種完 등 4인을 지명하였으며 의장이 이를 발표, 대의원이 만장일치 박수로 승인의 뜻을 포함으로써 이사가 선임되었다. 다음 監事 選任에 들어가서는 의장이 감사선임 방법을 묻고, 李春相 대의원의 동의로 역대 회장단과 현 安箕泰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이의없이 결정한 후 임기 1년 감사에 金一榮, 임기 2년 감사에 吳雲東을 각기 선출하여 의장이 이를 선포하였다. 이어 의장은 신임 宋基德 회장 및 임원의 인사에 이어 부의안건의 처리가 모두 끝나 만세삼창을 끝으로 오후 6시35분 폐회를 선포하였다.

協會消息

제11회 理事會 개최

본 협회는 11월 18일 (금) 제 11회
理事會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협의
하였다.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案件: 建築士年金規定改正 (案)
決定: 연금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검수하고 그 외에 총괄비교 (총회자료) 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사무처에 제출하고
90년, 92년 시행여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서 제출토록 함. 단 사망시에 대한
기준은 소위원회에 위임함.

案件: 감사패 및 표창대상자 결정
決定: 회장에 일임. (이사들의 건의 참조)
또한 부산지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함.

案件: 職員表彰対象者 결정
決定: 원안대로 승인

其他案件: 부산, 대구지부 찬조금 미납 및
납부부진에 관한 건
決定: 납부토록 촉구공문을 발송기로 함.

〈協議事項〉

案件: 建築三団体 合同送年會 개최에
관한 건.
協議: 차기 임원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

案件: 건축법, 건축사법 改正에 대한 協議
協議: 법제위원장으로 하여금 건축법
건축사법개정 (안) 을 검토하고 다음에
건설부에 제출토록 하고 추가사항은
계속 (국회상정시까지) 제출토록 함.

宋基德會員, 第17代 會長에 就任

지난 12월 13일 오후 5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임기 만료된 安箕泰 회장과 新任 宋基德
회장의 離就任式을 거행하였다.

安箕泰 회장은 離任辭를 통하여 〈大過없이
任期를 마치게 되어 名譽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고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본부 임원과 시도지부장과 임원 및
사무처직원에게 감사 한다〉고 謝意를
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임 宋基德 회장을
도와 더 큰 협회 발전이 기록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宋基德 회장의 就任辭 (별항참고) 가

있었으며 張起仁 제 2대 회장의
就任祝辭가 있었다.
張起仁 회장은 〈우리는 技術로써
나라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진제하고
〈마음껏 기술을 펼쳐 건축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업무조건을
개선하고 업무환경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宋基德
회장에게 당부하였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신임 회장과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본부 및 시도지부 임원 취임축하연을 겸한
'88년도 건축사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會長 離就任式 光景



▲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



▲ 主題發表演 하는 朴時翼 氏(영등포본소)



▲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경기도지부 안양건축사회)

서울 (지부장 李永熙)

風水地理說

세미나

서울특별시지부 영등포본소 (분소장 金得洙)는 10월 25일 영등포 문화예식장에서 지부장, 분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風水地理說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 분야에 연구가 깊은 朴時翼 회원 (일신종합건축사사무소)이 〈풍수지리설의 현대건축 계획론적 적용방법〉이라는 主題의 발표를 하였다.

京畿 (지부장 李一潤)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경기도지부 안양본소 (분소장 咸在喆)는 11월 18일 (금) 오후 7시부터 안양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은 성금 4백50만원은 안양시청 (2백만원) 과천시청 (1백만원), 시흥군청 (50만원) 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전달하였으며 戰警도 위문 (1백만원) 하였다.
이날 합창지휘는 崔承國 회원이 맡았으며

합창단원은 안양건축사회 여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음악회는 플루트독주, 클라리넷독주, 피아노3중주의 찬조출연하에 12곡의 합창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崔承國 회원 작사·작곡의 〈건축사의 노래〉가 소개되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양건축사회 여직원 합창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장: 咸在喆
지 휘: 崔承國
반 주: 최경아

소프라노: 김혜경 이봉자 이경주 김현자
정아남 전경숙 박순애 임영애 권미영 조희남
김선휘 박현숙 김해란 최영화 박춘화 신정순
이현정 박성희 윤정란
엘 토: 김경옥 김경미 박병옥 송정순
이영민 황종화 양갑예 정수진 임국희

• 선정결과

구분 등위	선 정 작 품		실 계 건 축 사	건 축 주
	소 재 지	작 품 명		
최우수상	명주군 연곡면 신왕리 산 215	소금강 학생야영장	춘천시 요선동 4-13 국남건축사사무소 이 국 남	강원도교육감
우 수 상	강릉시 금학동 10-2	이상용 내과의원	강릉시 금학동 127-3 새안건축사사무소 안 문 효	이 상 용
장 려 상	태백시 장성동 69-59	태백시 교육청	춘천시 조양동 37-2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 민경수, 박재국, 이명섭	태백시교육장
장 려 상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188-1 189-3	최남용씨 주택	춘천시 중앙로1가 63 정도건축사사무소 조 진 원	최 남 용
장 려 상	춘천시 후평동 832-6	진동렬씨 주택	춘천시 조양동 48-10 원건축사사무소 정 상 원	진 동 렬

江原 (지부장 趙貞鎬)

88년도 優秀建築物

選定

江原道는 88년도 미관건축심사운영계획에 따라 '88년도 강원도 미관우수건축물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총용모수...59 작품 - 주 거 용: 23 작품
- 비주거용: 36 작품
- 심 사 일...88년 11월 11일

忠南(지부장 康祐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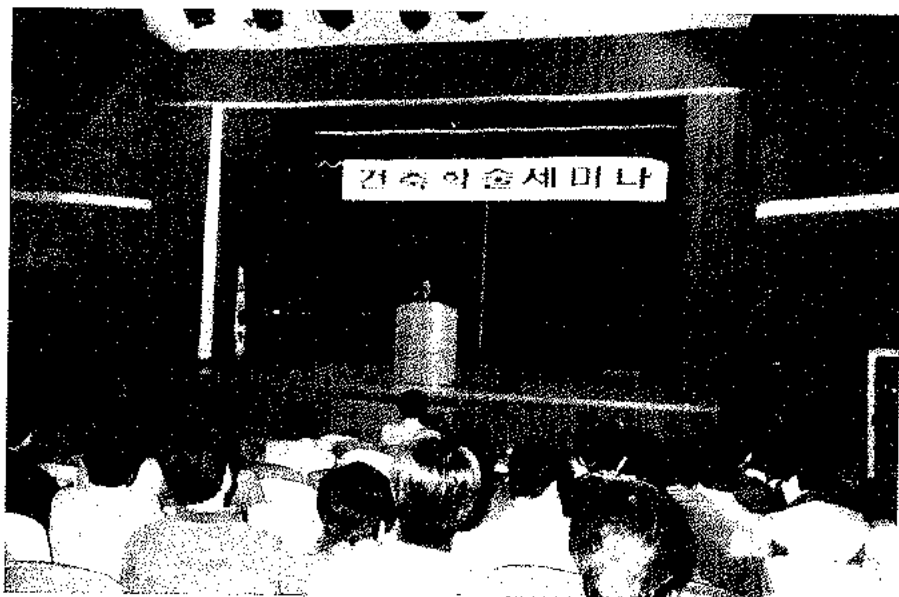
건축학술세미나

開催

지난 11월7일(월) 오후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카톨릭문화회관대강당에서 건축 학술세미나겸 건축사보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축사와 건축사보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세미나 및 교육내용은 표와 같다.



• 쿼터나리오 국제건축상 입상자 기념촬영



▲ 건축학술세미나(충남지부)

• 건축학술세미나 교육내용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13 : 00-13 : 30분	지부장 인사	지부장 강우식
13 : 30-14 : 30분	마리오보타 건축을 통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한남대학교 건축과
14 : 30-15 : 30분	독일 도시설계개발 방향과 문제점	HORT WUNDERLICH 교수 서독하노바대학교 도시 및 주택연구소장 통역 : 충남대학교 오덕성 교수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쿼터나리오 국제건축상 금상수상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설계 金壽根 + 柳春秀)이 호주에서 열린

쿼터나리오(Quaternario) 국제건축상 선정위원회에서 금상(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쿼터나리오 국제건축상은 1988년 제정된 것으로서 공법이나 설계상의 새로운 기술적 발명과 혁신을 이룩한 아름다운 건축물에 수상함으로써 세계 건축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탄생하였고, 초대공모인 쿼터나리오 '88은 호주의 독립200주년 기념에 맞추어 시드니에서 지난 11월 27일 개최되었으며, 매 2년마다 전세계의 주요도시를 개최지로 하여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지난 6월30일로 마감된 이번 공모에는 총 17개국 52작품이 출품되어 금상 1점과 은상 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류춘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스승이었던 김수근 선생과 지붕구조를 담당했던 미국의 데이빗 게이저 박사(David H. Geiger)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피력하였다.

심사위원들에 의하면 최종까지 남은 다섯 작품가운데서 나머지 네 작품들 모두 기술적으로는 최첨단의 작품들이었지만,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은 세계최초의 케이블 돔(Cable Dome) 공법으로서 대형공간을 위한 막구조를 건축의 새로운 방향과 자연채광에 의한 에너지 절감의 기술적 혁신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적으로 지붕의 침단공법과 어울리는 최신재료를 사용한 외관처리, 배치 및 입, 단면 개념에서 보이는 인본주의적 접근,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및 휴먼스케일의 강조등이 다른 작품에 비해 뛰어났기 때문에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최종 5개 시상작품 명단

금상 :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설계자 : 공간연구소 - 김수근 & 류춘수, 한국은상 :

1. 시드니 다링하버 전시관(Sydney Exhibition Center · Darling Harbour)

설계자 : 필립콕스 Philip Cox, 호주

2. 시드니 IBM 본사 사옥(IBM Australia Ltd. National Headquarters)

설계자 : Brian W Mazlin, 호주

3. 홍콩 상하이 뱅크(Hong Kong Shanghai Bank)

설계자 : Norman Foster 영국

4. Centro Regionale Sip Bolog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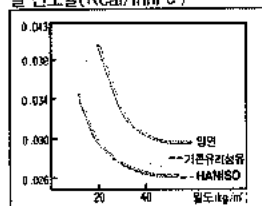
설계자 : Giovanni Trerisan & Giancarlo Giuliani, 이태리

유리섬유는 세계적인 「TEL 공법의 하니소」를 추천해 주십시오.

전세계 85%가 선택한 TEL 공법의 하니소는 프랑스 '이소베 상고방'사의
그 기술 그대로 뛰어난 단열효과와 흡음력, 내구성을 가진 유리섬유입니다.

■ 단열·보온효과가 월등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텔(Tel) 공법으로 만드는
하니소는 기존의 유리섬유에 비해 섬유 굵기가 가늘고
고르며(평균 4~4.5 마이크로) 동일 밀도에서 집속율이
열 전도율(Kcal/m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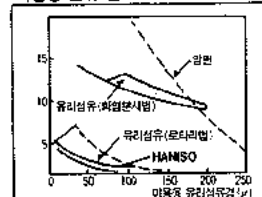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열·보온
효과가 월등하며
단열성능당 사공비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 복원력이 뛰어 나고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하니소는 최고 1/5까지 압축이 되면서도 복원력이
뛰어나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고 사공시
에는 내벽과 외벽사이를 틈새없이 충전시켜 더욱
높은 단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장강도가 높고 복원성, 내화성, 흡음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 조용하고 아늑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뛰어난 흡음효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소음공해를
완전히 해결, 밝은 시끄러워도 실내에서는 조용하고
아늑한 생활을
즐거실 수 있습니다.



않으며 불연재로서 방화벽 역할도 뛰어납니다.

■ 시공성도 좋습니다.

하니소는 유리가시가 전혀 없어 맨손으로 만져도
따갑지 않고 칼이나 가위로도 쉽게 절단할 수 있는 등
취급이 용이하므로 시공기간을 단축시켜 경제적
으로도 이익을 줍니다.

※ 섬유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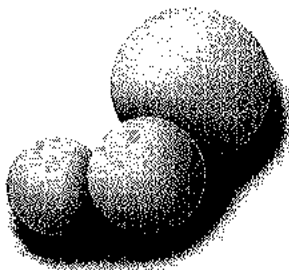


세계적인 TEL 공법의 유리섬유 -

HANISO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TEL) 785-0311~2



전문가가 권유하는 단열재- 흰색·녹색 스티로폼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단열재에 물기가 스며들면 바로 벽이나 지붕을 헐고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물기를 한번 흡수한 단열재는 이미 단열재가 아니고 열을 전달하는 전열체가 되어 버립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으므로 단열 효과를 지속시켜 항상 쾌적한 주거분위기를 유지시켜 드립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건축용 단열재, 백색은 포장재

한남화학의 원료로 만드는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건축용 단열재, 백색은 포장재용으로 사용됩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난연성(자기소화성)입니다.

화재시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이므로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UL 94 HF-1 규격 인증).

방습 단열 방음



특징

- 열전도율이 아주 낮아서 실내 보온효과가 높습니다.
- 화염이 진행하여 시공시 특장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 단열 및 방음, 방습효과가 높아서 아늑하고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의 이중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단단하고 가벼워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합니다.
- 화재시에는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으로서 화재의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 우수한 원료로 제조되므로 인체에 유해요소가 없어 안전합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폼



흰색·녹색 스티로폼 원료제조원

한남화학주식회사

본사·영업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호 784-1171~9

공장 : 경남 울산시 남구 성암동 45-25호 73-1141~5

